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평 양 출 판 사
주체111(2022)년

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머 리 말

예로부터 해외동포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민족이라는 대하에서 튀여나온 물방울에 비유되였고 그들의 력사는 례외없이 수난의 력사로 불리워왔다.

지난 세기초엽 우리 민족의 운명도 참으로 비참하였다.

나서자란 고향산천은 있어도 안겨살 품이 없어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두만강과 압록강, 현해탄을 건넜다. 일제의 총칼에 떠밀려 징용과 징병, 《학도병》과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간 사람들도 수백만에 달하였다.

피눈물을 뿌리며 산설고 물설은 일본으로, 만주로 그리고 씨비리와 중앙아시아 등 세계 여러곳으로 흩어져간 조선사람들이 당한 불행과 고통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정든 고향을 떠나 남의 나라 땅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 굶주림속에서 허덕인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는 망국노의 치욕과 원한이 천추의 한으로 맺히였고 그럴수록 그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구세주를 애타게 기다렸다.

우리 민족의 이 열망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심으로써 비로소 성취되였다.

바로 이때로부터 해외에 살고있는 조선사람들의 운명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함께 있는 자식보다 남의 집에 얹혀사는 자식때문에 더 마음쓰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남의 나라 처마밑에서 멸시를 받으며 사는 해외동포들을 더 위하시는 어버이의 사랑은 봄날의 따사로운 해빛마냥 그들의 얼어든 가슴을 녹이고 운명의 앞길을 밝게 비쳐주었다.

그 나날속에 절세위인들께서 일본에 살고있는 동포들의 한결같은 소망을 헤아려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이야기도 꽃펴났고 풍랑을 만난 귀국선의 무사도착을 위해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뜨거운 은정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도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었으며 해외동포들을 위해 해마다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도 안겨주시고 자연재해를 입은 동포들에게 사랑의 위문전문과 위문금도 보내주신 가슴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도 력사에 아로새겨졌다.

해외동포들에 대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변함없이 안겨지고있다.

해외동포들에게 베풀어지는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이 한권의 책에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담지 못하는것이 너무나도 아쉽다.

하지만 우리 겨레는 가슴에 절절히 새겨안는다.

력사와 더불어 만민을 한없이 매혹시키는 해외동포들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편 집 부

차 례

제 1 편

제 2 편

제 1 편

조국에로의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시여

주체34(1945)년 8월 15일 조국은 해방되였다. 일제의 패망과 조국해방의 충격적인 소식은 순식간에 온 일본땅에 퍼져갔다.

일본땅에 끌려가 갖은 천대와 멸시속에 살아오던 재일동포들은 모두다 떨쳐나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해방 만세!》를 목청껏 부르고 또 부르며 거리를 누비였다. 저주로운 죽음의 고역장이였던 일본 각지의 탄광과 광산, 군사시설공사장들에서 뛰쳐나온 재일동포들이 웨치는 《만세!》의 환호성은 온 일본의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그들은 눈물속에 헤여졌던 고향과 부모처자, 친척, 친우들과의 상봉의 그 시각을 그려보며 앞을 다투어 귀국의 길에 올랐다.

일본의 항구들에는 귀국을 희망하여 물밀듯이 모여드는 동포들이 하루에도 수천여명 지어 어떤 날에는 1만여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배가 없었던탓으로 조선해협을 건느지 못하여 하루이틀 날이 감에 따라 그곳에 머물게 된 동포들의 수는 며칠만에 벌써 10만명을 훨씬 넘었다.

일본반동들은 지난날의 죄과로 보나 인도주의적견지로 보

나 조국으로 돌아가려는 재일동포들의 귀국사업을 책임적으로 보장할 법적, 도의적의무를 지니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외면하였다.

오히려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고향에 보내준다고 속여 해군수송선 《우끼시마마루》에 타게 한 다음 바다에 수장시켜 귀향길에 오른 조선사람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는 만행까지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일제는 그에 그치지 않고 살아남은 얼마 안되는 조선사람들을 마이즈루에 있는 어느 한 해군숙소에 수용시키고 그곁에 있는 증기탕크를 폭파시켜 학살하는 만행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동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쪽배로 귀국하다가 풍랑을 만나 희생되였으며 항구들에 머물러있던 동포들은 로천에서 헤매다가 질병에 걸려 그처럼 그리던 고향땅을 다시 밟아보지도 못한채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재일동포들의 귀국열의를 꺾을수 없었다. 해방직후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반년 남짓한 사이에만도 수많은 동포들이 조국으로 돌아왔던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재일동포들의 귀국길에는 난관이 제기되였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은 재일동포들의 귀국을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온갖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필요한 조건보장도 고의적으로 태공하였다. 규슈의 사세보수용소에서만도 귀국의 기회를 기다리고있던 조선사람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제대로 주

지 않아 1946년 6월—9월사이에만도 270여명의 조선사람들이 객사하게 한것은 그 실례의 하나였다. 한편으로 남조선이 고향인 재일동포들이 미국의 식민지정책이 강행실시되고있는 곳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정세를 관망하고있었다.

이로 하여 수많은 재일동포들이 조국이 해방된 다음에도 피눈물나는 이국살이와 결별하지 못하고있었으며 일본땅에서 계속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국땅에서 갖은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동포들의 비참한 처지를 두고 언제나 가슴아파하시며 마음쓰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해외동포들이 하루빨리 해방된 조국땅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12월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신 친필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시였다.

《재일 100만동포들! 우리 북조선의 건설이 기초가 되여 전 민족의 통일적민주건국은 반드시 획득될것이며 그것은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룩되고야말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조국은 강대한 위력으로써 동포들에게 힘을 주고 동포들을 돌보아줄것이며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동포들을 따뜻이 맞아들일수 있게 될것입니다.》

진정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재일동포들을 조국의 품에 맞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는 해가 바뀔수록 더욱 깊어지시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으로 하여, 전후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사정으로 하여 해외동포들을 당장 조국의 품으로 맞아들일수 없었던 나날에도 어버이수령님께 있어서 재일동포들은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떼여놓을수 없는 하나의 혈육이였으며 어느때도 잊으신적 없는 한민족, 한피줄이였다.

공화국북반부에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인민들의 생활이 날을 따라 유족해질수록 해외동포들을 생각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마음은 더욱 깊어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정한 경제토대가 마련되였고 집도 마음대로 지을수 있게 된 조건에서 재일동포들의 귀국문제를 일정에 상정시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4(1955)년 9월 조국을 방문한 조국해방 10돐경축 재일조선인축하단을 만나신 자리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재일동포들을 받아들일데 대한 동포애적립장을 표명하시였으며 뒤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공화국외무상성명을 통하여 이 립장을 내외에 선포하고 일본정부에 해당한 협력을 요구하도록 하시였다.

한편 이 시기에 이르러 재일동포들속에서 자나깨나 뵙고싶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의 품에 안겨살려는 열망으로부터 조국에로 돌아가기 위한 집단적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의 이러한 절절한 념원을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47(1958)년 9월 공화국창건 10돐기념 경

축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일본에서 살길을 잃고 조국의 품안으로 돌아오려는 그들의 념원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재일동포들은 날로 륭성발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자기 조국에 돌아와 국내동포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재일동포들이 조국에 돌아와 새 생활을 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줄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의 민족적의무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여러 차례에 걸치는 공화국정부 성명을 통하여 조국으로 돌아오려는 재일동포들의 념원이 하루빨리 실현될수 있게 해당한 대책을 당장 세울것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시였으며 귀국하는 동포들을 따뜻이 맞아들이고 그들의 생활안착과 자녀교육을 전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거듭 천명하도록 하시였다.

한편 총련과 재일동포들속에서도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이 광범히 벌어졌다.

이리하여 일본정부는 마침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재일동포들을 귀국시킬것을 결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8(1959)년 2월 어느날 내각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귀국하는 재일동포들을 잘 맞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도록 하시였다.

내각전원회의가 있은 후 온 나라 각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일본에서 귀국하는 동포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재일동포들의 귀국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원호금수집운동도 벌어지고 살림집을 더 많이 짓기 위한 운동도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귀국동포들의 영접준비사업을 몸소 지도하시며 뜨거운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그처럼 데려오려고 애써왔고 또 이국땅에서 수십년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동포들을 위한 일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고 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자재와 자금을 대주시였으며 걸린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귀국동포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은 동포애가 끓어넘치는 가운데 전 인민적, 전 사회적운동으로 벌어져 불과 몇달사이에 수천세대의 훌륭한 살림집들과 가구비품들이 마련되였으며 살림집마다에 식량과 이불, 살림도구를 비롯하여 귀국동포들이 아무때라도 와서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다.

온 나라가 조국으로 돌아오는 혈육들을 맞이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명절처럼 들끓고있던 주체48(1959)년 12월 14일 드디여 975명의 귀국동포들을 태운 첫 귀국선이 일본의 니이가다항을 출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귀국선이 니이가다항을 떠난 이후 혹

시 항행도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가 념려하시며 한 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시였다.

귀국선은 니이가다항을 떠난지 이틀만인 12월 16일 조국의 북부항구도시 청진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온 민족이 그들을 환영하였고 온 나라가 크나큰 경사로 끓어번지였다. 진정 그것은 온 세상이 탄복하는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경사로운 대사변이였다.

옹근 이틀밤을 잠 못이루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첫 귀국선이 청진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으시고 며칠전부터 예견하셨던 1960년도 인민경제계획을 토의하는 내각전원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내각전원회의에서 일본에서 돌아오는 동포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의 생활을 안착시킬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오랜 투쟁끝에 영광스러운 조국의 품에 안겼으니 그들의 감격과 기쁨은 말할수 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일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그들을 만나보아야 하겠다고, 그러니 그들이 좀 힘들수 있겠지만 평양에 올라오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립고그립던 조국의 품에 안긴 귀국동포들은 12월 20일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에 이르렀다.

다음날인 12월 2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귀국동포들을

몸소 만나주시였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운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이는 귀국동포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조국으로 돌아오는것은 응당한 일이며 조국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는것도 응당한 일입니다. 조국인민들에게는 재일동포들을 따뜻이 맞아들일 의무가 있으며 재일동포들에게는 조국에 돌아올 권리가 있습니다. 나라가 없을 때에는 동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도 어찌할수 없는 일이였지만 오늘 자기 나라가 있고 자기 주권이 있고 자기 당이 있는 조건에서 해외에 흩어졌던 동포들이 조국에 돌아와 조국인민들과 함께 사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기간 이국살이를 하면서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아보았기때문에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았을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았는데 그때 제일 그리운것이 조국이였습니다.》

계속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나시여 귀국동포들이 이제부터는 조국인민들과 함께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1차로 귀국한 동포들과 함께

그들을 환영하는 예술공연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을 보아주시였다.

예술공연은 전체 조선인민이 민족의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감사의 정으로 하여, 온 민족이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어머니조국인 공화국의 품속에서 길이길이 살려는 드팀없는 결의로 하여 뜨거운 열정이 넘치는 속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해가 다 저물어가던 12월 29일에는 새 문화주택에서 살림을 편 귀국동포들의 가정들을 방문하시여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시였으며 다음날인 12월 30일에는 제2차로 귀국한 동포들을 또다시 만나시여 귀국도중 귀국선에서 태여난 어린애에게 《귀국동》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서 첫 귀국선이 도착한 때로부터 이역땅에서 어머니조국의 품,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길 날만을 학수고대하던 수많은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여 마음껏 배우고 일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제1차 귀국선이 청진항에 닻을 내린 때로부터 1년이 되는 1960년 12월까지만 하여도 연 51차에 걸쳐 모두 5만 2 000여명의 재일동포들이 귀국하였다.

그런데 몇해후 재일동포들의 귀국사업은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1967년 4월 일본당국이 귀국협정의 페기를 일방적으로 선포함으로써 그해 12월말부터 재일동포들의 귀국이 중단되였던것이다. 일본반동들과 남조선당국은 재일동포들의 귀국사업이 중단된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귀국의 배길을 영영 막아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였다.

하지만 일본땅에는 당시까지 귀국을 신청한 동포들이 1만 7 800여명이나 되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있었다.

조성된 정세와 재일동포들의 절절한 념원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의 귀국사업을 재개하는것을 공화국정부와 총련의 중요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정부로 하여금 일본에 우리 동포들이 있고 귀국희망자가 있는한 귀국협정은 무한정 연장되고 귀국사업은 끊임없이 계속되여야 한다는 립장을 밝히게 하시고 귀국재개를 위한 조일적십자회담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였다. 하여 3년나마 중단되였던 귀국의 배길이 다시 열리여 주체60(1971)년 5월 16일 귀국재개 1차선이 또다시 조국의 항구에 닻을 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귀국의 배길이 다시 열려 처음으로 조국의 품에 안긴 동포들을 평양으로 부르시고 주체60(1971)년 5월 31일 그들을 친히 만나주시였다.

그들을 만나신 석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귀국의 배길이 다시 열리게 된것은 공화국정부의 동포애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부당한 구실을 붙이면서 귀국사업을 방해하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어떻게 하나 재일동포들을 조국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인내성있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래동안 막혔던 귀국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에 의하여 귀국의 배길이 열린 때로부터 25년이 되는 주체73(1984)년 12월까지 연 187차에 걸쳐 10만여명의 재일동포들이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열어주신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의 배길은 재일동포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보금자리와 참다운 새 생활을 마련해준 광명의 길이였으며 그들이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창조적힘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게 한 영광의 길이였다.

조국의 한 부분이라시며

재일동포들의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이 실현되였을 당시 조국에는 먼바다려객선이 없었기때문에 부득불 귀국하는 재일동포들을 다른 나라 배에 태워와야 하였다.

이런 사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9(1970)년 12월 20일 귀국선을 현대적으로 잘 무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으며 다음해 1월 어느날에는 귀국동포들이 우리의 손으로 만든 배를 타고 조국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며 긍지감을 가지겠는가고 하시며 배무이를 빨리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계공업부문에서 대형려객선을 무을데 대하여 과업을 주시고 1월 29일에는 기계공업부문의 책임일군에게 전화를 거시여 배를 만드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큰 려객선을 처음으로 뭇는것만큼 힘이 들것이라고, 하지만 대담하게 생각하고 달라붙으면 못할것이 없다고 고무해주시였다. 계속하여 수령님께서는 려객선은 사람을 태우는 배인것만큼 질적으로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특별히 고급품으로 배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일

본에 다니는 배이기때문에 외형도 곱고 내용도 좋게 고급배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거치른 이국땅에서 살다가 돌아오는 동포들이 배에 오르는 순간부터 조국의 품에 안기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이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배의 설계와 모형이 다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 하나, 점 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살펴보시며 설계의 부족점을 일일이 바로잡아주시고나서 재일동포들을 태워올 이 배는 조국의 한 부분이라고, 그러므로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훌륭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청진조선소의 로동계급은 짧은 기간에 배를 훌륭히 무어냈다.

드디여 배가 완성되자 배의 이름을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 만경대를 그리는 해외동포들의 뜨거운 심정을 담아 《만경봉》호로 부르기로 하였다.

귀국선 《만경봉》호는 이렇게 세상에 태여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1(1972)년 6월 10일 함경북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새로 무은 귀국선 《만경봉》호를 친히 보아주시였다.

《만경봉》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님방과 어린이실이며 응접실과 문화오락실을 비롯한 모든 방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락의자가 고정되지

않아서 파도가 심할 때에는 넘어지지 않겠는가, 물이 잘 나오는가, 목욕시설이 잘되여있는가 등 모든 시설들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의장품들을 더 훌륭한것으로 갖출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식당에 들리시여서는 《만경봉》호를 구경하려고 배에 오르는 재일동포들이 조국의 음식을 다 먹어보고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평양온반이 유명한데 이 배의 식당일군들이 평양에 가서 온반만드는 법을 배워오게 하라고 이르시였다. 그리고 배에 실은 통졸임이 수출용이라는것을 아시고는 그것은 조선사람들의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만경봉》호에 쓸 식료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새로 건설하도록 사랑의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그리고 《만경봉》호에 영접일군들뿐 아니라 의료일군과 탁아소보육원들까지 두어 귀국동포들이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자그마한 불편도 없게 잘 돌봐주어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최신형의 훌륭한 대형려객선을 무어주시였을뿐 아니라 귀국선이 항행할 때마다 몸소 장거리전화로 해당 부문 일군들을 찾으시여 배멀미하는 사람은 없는가, 식사들은 잘하는가, 오는 도중 사고는 없었는가, 음료수와 남새는 떨어지지 않았는가를 알아보기도 하시고 영접일군들을 친히 부르시여 그들을 잘 보살펴줄데 대하여 간곡히 이르시기도 하시였다.

언제나 재일동포들을 생각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 담아싣고 《만경봉》호는 동해바다를 누비며 재일동포들의 귀국과 조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만경봉》호가 첫 항행을 시작한 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러 20여년이 지난 주체78(1989)년 2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조국으로 오가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리용하는 《만경봉》호와 《삼지연》호의 운영과 봉사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후방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봉사조직을 잘하여 려객들의 편의를 도모해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경봉》호를 다음해 계획에 넣어 새롭게 건조하여야 하겠다고, 지금 다니는 《만경봉》호가 근 20년동안 많은 일을 하였는데 이제는 낡아서 현대적인 배로 바꿀 때가 되였다고 하시였다.

쪽배나 유람선도 아닌 현대적인 대형배를 새로 뭇는다는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현대적인 설비와 로력이 헤아릴수 없이 든다 해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조국으로 오고가는 편의를 최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일이라면 아까울것이 없으신 장군님이시였다.

곧 현대적인 려객선을 새로 뭇기 위한 거창한 전투가 시작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만경봉》호를 높은 수준에서 건

조할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선박공업이 발전한 어느 한 나라에 설계일군들을 보내시여 최신형려객선들을 보고 오도록 하시고 관록있는 기술집단과 로동계급을 배무이전투에 불러주시였으며 배무이를 짧은 시일내에 와닥닥 끝낼수 있도록 자재들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배안에 놓을 가구와 비품들에 대하여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훌륭하게 잘 만들수 있다는데 대하여 일깨워주기도 하시였다.

배에 놓을 가구 하나, 비품 한점, 벽에 붙일 타일이나 벽지 한장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일일이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는 그 다심한 마음속에는 재일동포들이 앞으로 그 배에서 어머니조국의 모습을 보고 조국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게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이 굽이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경봉》호를 새로 무어주신다는 소식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도 전해졌다.

이 소식에 접한 총련조직과 재일조선상공인들은 자기들도 배를 뭇는데 기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던 1991년 4월 총련중앙의 한 일군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새 《만경봉》호건조사업때문에 청진에 갔다와야 한다는것을 아시고는 비행기까지 내주도록

하시였다.

새 《만경봉》호에 기울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관심과 배려는 그뿐만이 아니였다.

배무이작업이 마감단계에 이르고있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친필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이 되는 1992년에 주체의 태양이 솟아 빛나던 만경봉의 이름을 단 대형화객선을 건조하였다는 뜻에서 《만경봉-92》라고 배이름까지 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만경봉-92》호가 건조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주체81(1992)년 2월 어느날 총련일군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번에 새로 뭇는 <만경봉-92>호화객선은 속도가 빠를뿐아니라 사람도 많이 태우고 자동차도 수십대 실을수 있게 현대적으로 설계되였다고 합니다. <만경봉-92>호가 운행하게 되면 재일동포들이 조국을 방문하는데 편리할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은정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만경봉-92》호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을 며칠 앞둔 주체81(1992)년 4월 6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완성된 《만경봉-92》호를 보아주시려고 몸소 머나먼 동해바다가로 나오시였다.

늠실거리는 물결우에 떠있는 배를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시다가 배에 오르시여 수령님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좋은 배

를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배의 내부시설과 기관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산항에서 일본의 니이가다항까지 가는데 몇시간이 걸리는가고 물으시였다.

선장이 올리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만족하신 어조로 하루배길이면 괜찮다고, 이틀에 다니던 배길을 하루에 갈수 있으니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나가서 배의 외형을 좀 보자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두가에서 배의 외형을 보시려는줄로만 생각하였던 일군들은 그이께서 바다에 나가서 바다우에 뜬 《만경봉-92》호의 전모를 보려 하신다는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날따라 바다바람이 세차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았는데 부두가에 댄 큰 배들도 파도때문에 기우뚱거리고있었던것이다.

일군들은 그이께 바다에 나가시는것만은 그만두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렸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배를 보러 와서 물결이 세다고 바다에 나가 배를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빨리 배를 대도록 하라고 재촉하시였다.

얼마후 그이를 모신 자그마한 배가 파도를 헤가르며 바다로 나갔다.

장군님께서는 《만경봉-92》호의 선체를 앞에서도 보시고 옆에서도 보시고 여러번 위치를 옮기시며 거듭거듭 보시였다.

그때였다.

집채같은 파도가 배전에 부딪쳤다.

더욱더 거세여지는 바람, 길길이 날뛰는 격랑, 갑판우에 휘뿌려지는 물보라…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세찬 바람도 사나운 격랑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젖은 옷자락을 날리시며 갑판우에 거연히 서시여 배의 길이와 너비, 승객인원수와 화물적재량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만경봉-92》호가 그렇게 많은 사람과 짐을 싣고 하루동안에 원산항에서 니이가다항까지 갈수 있으면 좋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 밝고밝은 태양의 미소속에는 동해의 창파너머 이국땅에서 어머니조국을 그리워하는 재일동포들에게 현대화된 대형화객선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의 한량없는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이렇듯 재일동포들을 위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은 동해바다를 항행하며 재일동포들의 귀국과 조국방문을 보장하던 귀국선들에도 뜨겁게 어리여있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 깃든 사랑

주체110(2021)년 4월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9돐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일본돈으로 2억 1 906만¥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총련에 보내주시였다.

이 소식에 접한 재일동포들의 가슴가슴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으로 끓어넘치였다.

불과 며칠전에 창립 65돐을 맞는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과 조국인민들의 마음을 담아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런데 그 축전을 받아안던 그날의 감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거액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재일동포들은 고마움의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떠나서 총련의 민족교육의 오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덕분으로 조선대학교가 이국땅 한복판

에 람홍색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리며 동포자녀들을 숭고한 정신과 애국애족의 넋을 지닌 우수한 민족인재들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해외교포대학으로 자랑찬 력사를 이어올수 있었으며 일본땅 각곳에 있는 조선학교들에서 동포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며 민족교육의 명맥을 튼튼히 이어나가고있는것이다.

지금으로부터 66년전인 주체45(1956)년 4월 도꾜에 조선대학교가 창립됨으로써 총련은 초급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정연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체계를 완비하였다. 하지만 자본주의일본땅에서 민족교육은 결코 순탄한 길을 걸을수 없었다.

이 시기 민족교육발전에서 큰 애로의 하나가 재정난이였다.

총련결성을 전후하여 한층 고조된 동포들의 교육열의에 의하여 일본 각지에 각급 조선학교들이 련이어 일떠섰다. 학교들에서는 교사로부터 교구비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새로 해결하여야 하였는데 아직 동포들의 생활은 어려웠다. 그래서 일정하게 토대가 잡힌 상기업가들이 중심이 되여 동포들의 희사금으로 교사를 신축하거나 낡은 건물을 빌려 림시교사로 썼다.

가난한 살림에도 가산을 털고 늙은이들의 노리개와 젊은이들의 례장감,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까지 학교건설에 보태쓰라고 바쳤건만 그것은 민족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에는 너무도 보잘것없는것이였다.

건설을 시작한 학교들이 자금때문에 해를 넘기면서도 마무리를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설립후에도 여러해동안 가교사신세를 면치 못했다. 갓 창립된 조선대학교도 도꾜조선중고급학교의 낡은 교실 몇칸을 빌려쓰고있는 형편이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생활이 어려워 그런 불비한 학교에조차 자식들을 보내지 못하는 동포들이 있었고 입학하였다가도 중도에서 그만두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모든것이 돈에 의하여 지배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금문제는 민족교육사업의 전망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였다.

바로 이렇듯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이 진통을 겪고있던 주체46(1957)년 1월 어느날 바다건너 조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1957년 국가예산초안을 토의하는 내각회의가 진행되고있었다.

밤늦도록 계속되던 회의가 끝날무렵이였다.

국가예산초안의 세부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뜩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어느 부분에 넣었는가고 물으시는것이였다.

보고자는 망설이며 인차 대답을 못하다가 재정형편이 너무 긴장하여 국가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림시외화계획에 넣으려 한다고 대답올렸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

으시였다.

장내에는 침묵이 흐르고있었다.

제1차 5개년계획의 첫해인 195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많은 자금과 로력, 자재가 필요하였다. 이해로 말하면 조국이 전후복구건설을 끝내고 사회주의기초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해였다. 자금도 자재도 설비를 비롯한 모든것이 부족하고 나라의 경제형편은 한푼의 돈도 쪼개써야만 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였다.

창밖에서는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문뜩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발전소건설장에서 열어보시였던 낟알보다 푸성귀가 더 많이 섞인 로동자들의 점심밥곽이 생각나시였고 사탕, 과자를 쥐여줘야 할 아이들의 손에 무우쪼각밖에 들려줄수 없었던 이 나라 녀인들의 정상이 눈물겹게 안겨오시였다.

인민들의 생활형편도 말이 아니였다. 하지만 이 모든것은 참고 견딜수 있다.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사업이야말로 그들이 인간의 존엄과 민족의 넋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가 고생을 좀 하더라도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니라고,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짓는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

줄데 대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물을 뿌린듯 조용하던 장내에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설레이는 장내를 향하여 장학금은 한두번 보내주고 그만두어서는 안된다고, 일본에 우리 동포가 있고 배워야 할 어린이가 있는 이상 계속 보내주어야 한다고, 그렇기때문에 림시적인 사업으로 하여서는 안된다고, 국가예산에 새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항목을 내오고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렇게 되여 주체46(1957)년부터 공화국의 국가예산에는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력사에도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새로운 재정항목이 태여나게 되였으며 그해 4월 1억 2 000만￥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 재일동포들에게 전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재일동포사회에 감격의 열풍을 일으켰다.

일본땅 곳곳에서 동포들은 《**김일성**원수님 만세!》를 높이 부르며 《우리 학교도 살아났다.》, 《이젠 나도 공부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자!》라는 환성을 터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곧 은을 내기 시작하였다.

재일동포사회에서는 학비가 없어 학교에 못가는 일이 크게 감소되였으며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밑천으로 하여 학교건설과 교구비품을 꾸리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창립당시 다른 학교의 교실을 빌려쓰던 조선대학교도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 있었기에 새 교사를 번듯하게 지어놓고 1959년 6월에 준공식을 성대하게 진행하였다.

같은 해에 도꾜제1조선초급학교와 규슈조선중고급학교교사가 신축되였으며 이렇게 해마다 곳곳에 조선학교가 새로 건설되였다.

총련 제10차 전체대회가 열리던 1974년까지 보아도 도꾜조선중고급학교를 비롯한 65개의 학교들에서 일본사람들도 부러워하는 큰 규모의 새 교사와 문화회관, 체육관들을 련이어 일떠세웠다.

그리하여 《따라지학교》로 불리우던 조선학교들은 례외없이 양지바른 언덕우에 솟아나 창공높이 람홍색공화국기발을 휘날리는 학교로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학생수도 현저히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재일동포들을 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어버이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주체49(1960)년 1월 1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

게 재일동포자녀들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더 늘여야 하겠습니다. 재일동포들의 귀국사업이 진행되면서 조선학교에 들어오는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도 더 짓고 교원도 늘여야 하며 그들의 로임도 높여주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에게 베푸시는 어버이사랑의 결정체인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재일동포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그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그때로부터 총련에 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어느 한해도 번지지 않고 일본땅에 와닿았으며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에도 계속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인 주체83(1994)년 9월 조국에서 보내온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수령님을 그리며 목놓아 울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해 겨울 어느날 일군들에게 총련에 보내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 종전대로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는 어려운 나날에도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해마다 어김없이 전해졌으며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으시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고계신다.

참으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그자체가 민족교육발전을 위한 막대한 재정적담보로 될뿐 아니라 교원들과 학생들, 아니 모든 재일동포들과 후대들도 대를 이어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존엄높은 **김일성**민족의 얼을 지켜나갈수 있도록 하는 사상정신적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절세의 위인들께서 총련에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난해 4월까지 167차에 걸쳐 일본돈으로 488억 7 939만 390￥에 달한다.

세계에는 나라도 많고 지도자도 많지만 해외에 있는 동포자녀들의 교육원조비까지 국가가 맡아 부담하고있는 그런 나라, 그런 지도자는 그 어디에도 없다.

조국에서 보내주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두고 재일동포들은 민족교육의 명맥을 이어주는 생명수라고 부르고있다.

나라에서 나라에서 돈을 보낼줄은
꿈결에도 꿈결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교육원조비 장학금의 많고많은 귀한 돈을
바다너머 저 멀리 조국에서 보내왔어요
아 수령님의 높고 큰 이 사랑을
산이나 바다에 그 어이 비기랴
…

이 노래는 진정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고마운 사랑을 전하며 오늘도 재일동포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는 사랑의 노래, 감사의 노래이다.

조국의 귀중함을 심어주시며

주체61(1972)년 여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축구소조와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음악무용소조를 조국에 부르시여 그들이 조국의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내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거치른 이역땅에서 나서자란 재일조선청소년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놓아주신 사랑의 무지개다리를 타고 조국방문의 길에 오르게 되였다.

여직 말로밖에 들어보지 못한 조국을 찾아가는 학생들의 가슴가슴은 끝없이 설레이였다. 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하나의 신비한 동경의 세계였다.

선생님들과 아버지, 어머니들이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느닷없이 눈물이 글썽해질 때에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그렇게도 못잊어 그리워하는것일가 하는 수수께끼같은 생각과 함께 저도 모르게 그리움이 커가던 조국이였다.

그런것만큼 그들을 태운 비행기가 각일각 조국에 가까와질수록 어서빨리 그리웁던 땅을 밟아보고싶은 간절한 생각에 심장은 마냥 높뛰였다.

비행기가 조국의 비행장에 닿았을 때 학생들은 몹시 당황하였다. 그들의 눈앞에 때아닌 꽃바다가 펼쳐진것이였다.

이런 광경을 처음 당해보는 재일조선학생들은 어찌할바를 모르고 사방을 살펴보았다.

(누구를 위하여 이처럼 요란한 환영을 마련하였을가?)

그런데 조국의 한 일군이 웃으며 그들에게 빨리 내리자고 하는것이였다. 하지만 학생들은 누구 하나 내릴 생각을 못했다. 정말이지 이것이 자신들을 위하여 마련된 환영일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것이였다.

거듭 재촉해서야 그들은 주춤주춤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러자 조국의 학생들이 환성을 올리며 달려오더니 꽃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목마를 태워 환영군중속으로 이끌었다.

사방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 보자. 머나먼 이국땅에서 찾아온 아들딸들을 안아보자.》

따뜻한 손길들이 온몸을 어루만질 때마다 재일조선학생들은 격정에 북받쳐 감격에 흐느껴울었다.

그들이 환영의 꽃물결을 헤치며 비행장을 가까스로 벗어나자 이번에는 숙소로 가는 백여리길 량옆에 환영군중들이 끝

모르게 늘어서서 오색테프를 줄줄이 드리우고 축복의 꽃보라를 뿌려주면서 환성을 올렸다.

흐리였던 날씨가 갑자기 비를 퍼부었지만 환영의 물결은 흩어질줄 모르고 조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꽃묶음을 흔들면서 차창밖으로 내민 그들의 손을 부여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꽃보라, 꽃물결을 헤치며 난생처음 조국땅을 밟는 재일조선학생들의 심장속에는 조국이란 말에 담겨진 의미가 소중히 새겨지기 시작하였다.

재일조선학생들을 위하여 마련된 이 성대한 환영에는 거치른 이역땅에서 나서자라나는 재일조선학생들에게 조국의 따사로운 손길을 안겨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높으신 뜻이 깃들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해 7월 13일 사로청중앙(당시)의 일군에게 전화를 거시여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축구소조와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무용소조가 조국에 오는것과 관련하여 준비를 잘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으며 19일에는 특별비행기를 보내여 그들을 데려올데 대하여서와 그들의 숙소도 지적해주시고 환영도 크게 하고 각별히 잘 보살펴주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이렇듯 성대한 환영이 마련되였던것이다.

조국방문의 나날은 그들의 가슴속에 막연하게만 자리잡고 있던 조국이라는 그것이 점차 생동한 모습으로 안겨져 그 품

과 떨어져 살수 없는 어머니조국의 아들딸이라는 자각이 신념으로 새겨지던 나날이였다.

그러던 8월 18일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조국의 동무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재미있는 한때를 보내고있던 그들에게 조국의 일군이 찾아와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조선학생들을 만나주시려 여기로 나오시니 어서 준비를 하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들은 환성을 올리며 영광의 그 시각을 맞이하기 위하여 궁전앞에 대렬을 지어섰다.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궁전정문앞에 와 멎었다.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에 메아리쳤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리굽혀 인사를 드리는 단장선생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겠다고, 조국에 와서 불편한 점들은 없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이때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단위원장학생이 앞으로 나서며 위대한 수령님께 우리 재일청소년들은 아버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비행기를 타고 그립고그립던 조국을 찾아와 조국동무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있다고 말씀올리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리고는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이기지 못하여 그만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야말았다.

여기저기에서 감격에 목메여 흐느끼던 학생들이 참고참던 격정을 일시에 터뜨리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품으로 앞을 다투어 달려나가 그이의 옷자락과 팔소매에 마구 매여달리며 발을 동동 굴렀다.

인솔교원들도 어쩔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 못지 않게 자신들도 어버이수령님께로 달려가 그이의 품에 안기고싶은 심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천천히 2층휴계실로 올라가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감격에 목메여 서있는 교원들에게 어서 자리에 앉으라고 거듭 권하시며 아이들에게도 오래 서있으면 다리가 아프겠는데 어서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면서 한 학생의 손을 잡으시고 걸상에 앉혀주시였다.

모두 자리에 앉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학생들이 모두 곱게 생겼다고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몇살인가,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 잘 있는가, 조국에 와서 경기와 공연은 몇번이나 하였는가 등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물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다정하신 물으심에 어느덧 용기를 얻은 학생들은 저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 대답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들으시고 우리 말을 아주 정확하게 잘한다고 하시며 매우 기뻐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친히 교원들에게는 담배를 권하시고 학생들에게는 여러가지 과일과 당과류도 쥐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시는 과일과 사탕, 과자들을 받아든 학생들은 그만 목이 메여 감격의 눈물로 눈굽을 적시였다.

이국땅에서 자라나는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을 크나큰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다정히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어떻게 하면 조국땅에 처음으로 찾아온 아이들에게 더 큰 기쁨을 줄수 있겠는가를 깊이 생각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의 남은 참관일정계획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이때 나어린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백두산에 꼭 가보았으면 좋겠다고 청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하신 얼굴에 미소를 띠우시고 다정하신 음성으로 백두산에 올라갈수 있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학생은 무슨 큰 결심을 품은듯이 오무려쥔 주먹을 가슴에 대면서 《저희들은 아버지원수님의 거룩하신 발자취가 스민 곳이라면 하늘땅 끝까지 간대도 힘들지 않습니다.》라고 챙챙한 목소리로 대답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학생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참 용감한 학생이라고 못내 기특해하시며 그의 토실토실한 어깨를

다정히 어루만져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생들을 다시한번 정겹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일본에서 사는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조국을 찾아온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동무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동무들이 이국땅에 있으면서도 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며 우리 말로 노래도 잘 부르고 시도 잘 읊는것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을 두셨다가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무들이 일본에서 우리 말로 공부를 하고 오늘과 같이 조국에도 다녀갈수 있게 된것은 사회주의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기때문입니다.

옛날부터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개만도 못하다고 하였는데 지난날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는 사실 조선사람들이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선인민들에게 사회주의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으며 조선인민은 주권국가의 떳떳한 공민으로서 응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조국이 있기때문에 동무들은 일본에서 살면서도 우리 말로 공부하고 노래부르며 우리 나라의 력사를 배울수 있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오늘의 사회주의조국이 어떻

게 건설되였는가에 대하여, 우리 민족의 우수성에 대하여 하나하나 이야기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디마디는 재일조선학생들의 가슴마다에 민족의 넋으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으로 아로새겨졌다.

이렇듯 이역의 어린 자식들에게 일생에 간직하고 살아야 할 숭고한 민족애, 조국애를 아로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예술소조원들이 준비한 공연도 보아주시였다.

무대에 오른 학생들의 눈에는 아직도 방금전에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감격의 눈물이 그대로 빛나고있었다.

매 종목이 바뀔 때마다 제일선참으로 크게 박수를 쳐주시고 잘한다고 고무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쑤놈들의 기만책동에 속아넘어가 일본학교에 끌려갔던 한 어린 학생이 완강한 투쟁끝에 드디여 조선학교로 다시 돌아온 사실을 내용으로 한 노래이야기를 보시면서는 자주 눈가에 손수건을 가져가시였다.

해외에서 자라나는 새세대의 자랑스럽고 굳센 그 모습이 못내 대견스러워 격정을 누르지 못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뵈옵는 순간 관람석과 무대우의 여기저기에서 흐느낌소리가 들려왔다.

공연이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연성과를 높이 치하

하시며 꽃바구니를 전해주시고 몸소 무대에 오르시여 조국방문단 전체 청소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어느덧 돌아가셔야 할 시간이 되였지만 수령님께서는 아이들과 헤여지기가 아쉽다고 하시면서 그들과 또다시 2층휴계실에서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껏 행복에 취하여 가슴을 들먹거리고있는 학생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둘러보시며 예술공연을 참 잘하였다고 축하해주시였다.

계속하여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공연을 보면서 크게 감동되였다고, 특히 노래이야기 《우리의 자랑》에서 일본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조선학교에 오는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매우 감동적이라고 하시면서 창가에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그 순간 그들모두는 또다시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한동안 창밖을 내다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윽하여 다시 그들을 바라보시며 《재일조선청소년들은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조선사람되찾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조선사람되찾기운동을 총련의 몇몇 일군들과 동무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힘만으로는 잘할수 없습니다. 청소년들도 힘을 합쳐 일본학교에 다니는 조선학생들을 다 끌어당겨 조선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간곡하게 이르시였다.

재일조선학생들은 감격의 눈물을 머금으며 심장속깊이 맹세를 다졌다.

(아버지원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은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이끄는 방법으로 조선사람을 되찾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 일본에 있는 동포들과 청소년들을 다 조선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친필존함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그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계함을 하나하나 여시여 시계는 잘 돌아가는지, 흠집이나 없는지 살펴보시고 친히 학생들과 교원들의 두손에 꼭꼭 쥐여주시였다.

재일조선학생들과 교원들은 또다시 감격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흐느껴울었다.

어린 학생들로부터 시작하여 한명한명에게 귀중한 선물을 안겨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어린 한 녀학생이 다가오자 공연에서 피아노를 치던 그를 알아보시고 다정히 품에 꼭 껴안으시고 손수건을 꺼내시여 그의 두볼에 얼룩진 눈물자욱을 닦아주시는것이였다.

사실 방금전 극장안에서 공연이 한창 진행되고있을 때 피아노로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노래》를 연주하는 그 녀학생의 모습을 자애롭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참 잘한다고 맨 선참으로 크게 박수를 쳐주시며 한곡을 더 타보라고 하시였다.

학생은 다시 피아노앞에 앉아 이번엔 《봄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재청까지 받게 된 한없는 영예와 자랑을 안고 피아노의 건반을 두드리는 나어린 학생의 얼굴에서는 어느덧 행복에 겨운 두줄기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있었다.

그는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랑에 넘치신 눈길로 그 학생을 바라보시며 환히 웃고계시였다. 거기에서 힘을 얻은듯 그 학생은 눈물을 훔칠념도 하지 않고 더욱 정열적으로 건반을 두드렸다. 그의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률은 충성의 노래, 행복의 노래가 되여 거침없이 극장안에 울려퍼졌다.

정녕 일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영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또다시 피아노를 잘 타는 학생이라고 칭찬해주시며 눈물자욱까지 손수 닦아주시니 그 어린것이 어찌 솟구치는 격정을 누를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안고 기쁨에 넘쳐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바를 몰라하던 녀학생은 그 순간 《아버지!》 하고 한마디를 겨우 외웠을뿐 수령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그 작은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껴울기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볼이며 등을 오래도록 다정히 쓰다듬어주시고나서야 녀학생에게 선물을 안겨주시였다.

선물을 받아안은 그 학생은 마음속깊이 간직했던 굳은 맹세를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을 올리려 하였다. 그러나 목이 꽉 메여 그의 말소리는 입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의 심정을 헤아리신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시여 그의 입가에 다정히 귀를 기울이시였다. 이때에야 그는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원수님! 저는 목숨이 지는 순간까지 원수님께 충직한 딸이 되겠습니다.》라고 울먹이며 다시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기특해하시며 그 녀학생의 빨간 볼을 어루만져주시고 품에 꼭 껴안아주시였다.

은혜로운 사랑의 대하가 눈물이 되여 세차게 굽이쳐흐르는 평양학생소년궁전의 창가에는 어느덧 8월의 여름해도 기울어지고 어둠이 깃들었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랑의 선물을 다 나누어주시고도 이국땅에서 찾아온 학생들과 헤여지기가 못내 아쉬워 차마 자리를 뜨시지 못하고 오래오래 그들속에 계시였다.

그리하여 예정된 시간은 곱절이나 더 흘렀다.

이윽고 궁전을 나서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는 학생들에게 손을 높이 들어 흔드시며 차에 오르시였다.

차는 어느덧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환호성은 더욱 높아만 갔다.

재일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크나큰 사랑과

보살피심속에서 이국땅에서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던 유서깊은 만경대와 백두산을 비롯한 혁명사적지들과 도시와 농촌, 공장과 학교 그리고 풍치아름다운 금강산과 송도원, 개성의 명승지들을 마음껏 돌아볼수 있었다. 평양에서는 물론 지방참관의 길에서도 저녁마다 영화도 보고 《피바다》와 《밀림아 이야기하라》,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 혁명가극들도 관람하였다.

어찌 그뿐이랴.

가는 곳마다에서 가족, 친척, 친우들과의 반가운 상봉을 마련하여주신 이야기며 끼니마다 푸짐한 식탁을 차려주시고도 조국에서 생일을 맞게 된 학생들에게는 그때마다 또 성대한 생일상을 차려주신 이야기, 일본에서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다니면서도 고치지 못했던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의 한 녀학생의 병을 말끔히 고쳐주신 이야기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방문한 재일청소년학생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정은 끝이 없었다.

꿈과도 같이 흘러가는 조국방문의 나날이 거의 끝나가고있던 9월 2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그들이 만수대의사당의 넓은 연회장에 이르니 거기에는 벌써 평양시안의 수많은 청소년학생들이 와있다가 달려나와 열

광적으로 환영해주는것이였다.

재일청소년학생들의 조국방문을 더욱 보람있고 뜻깊게 하여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몸소 그들에게 평양시안의 청소년들과의 뜻깊은 련환대회를 마련하여주시고 친히 참석하시였던것이다.

이 영광의 자리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다시금 만나뵈옵게 된 재일청소년학생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며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감사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사이 즐겁게 지냈느냐고, 너희들이 보고싶어서 오라고 했다고 하시며 학생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다정히 쓰다듬어주시였다.

이날만은 울지 말자고 방금전 차안에서까지 서로 약속한 그들이였건만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에 접하는 순간 참고참던 격정이 한꺼번에 터져올라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칠념도 못한채 저마다 수령님의 품에 안겨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꼈다.

수령님께서도 손수건을 꺼내시여 눈가에 가져가시며 모두들 앉으라고 몇번이나 말씀하시면서 학생들을 정겹게 굽어보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시간동안 청소년학생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권하시고 재일조선학

생들이 부르는 노래와 시랑송도 다 들어주시였다.

시간이 흘러 떠날 시간이 되였으나 위대한 수령님의 슬하를 떠나고싶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학생이라도 섭섭해할세라 차례차례로 품에 안고 허물없이 볼을 비벼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밖에까지 몸소 나오시여 또다시 학생들과 교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조국의 소식을 60만동포들에게 전해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드디여 그들이 탄 차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차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시며 오래오래 서계시였다.

이렇듯 조국에 머무르는 40여일동안에 일생을 두고도 다 누리지 못할 행복을 매일 매 시각 누리면서 조국이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의 품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새겨넣은 재일청소년학생들은 눈물을 머금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금강산가극단도 무어주시여

주체63(1974)년 3월 어느날이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조국방문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2돐을 맞으며 조국을 방문하게 된 재일동포조국방문단속에는 재일조선인예술단도 있었던것이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시고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예술단동무들이 조국에 와서 머무르는 동안 가극을 하나 배워가지고 가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너무도 뜻밖의 말씀에 놀라움과 감격을 금치 못하며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고 서있기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예술단동무들에게 가극을 배워주고 의상과 무대장치도 만들어보내자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금강산가극단을 무어주는것이라고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인 4월 4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감사와 축원의 노래를 안고 재일조선인예술단이 어머니조국을 향하여 니이가다항을 떠났다.

조국에 도착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짜주신 일정대로 뜻깊은 나날을 보내던 예술단성원들은 4월 14일 수령님을 모시고 첫 공연의 막을 올리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준공된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인민문화궁전의 첫 무대를 재일조선인예술단에 선참으로 내주시였다.

이날 오후 수령님께서 궁전에 도착하시자 예술단성원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로 다가가시여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감격에 목메여 흐느끼는 그들에게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울면 되겠는가고, 울지 말라고 거듭거듭 이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진정시키신 다음 함께 궁전안으로 들어가시였다.

잠시후 조국의 일군들과 함께 관람석에 나오신 수령님께서는 재일조선인예술단 단장을 부르시여 자신의 바로 옆자리에 앉도록 하시고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공연이 끝나자 수령님께서는 친히 무대에 오르시여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다.

이날 저녁 그들을 위하여 만찬회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공연에 대하여 치하해주시고 귀중한 선물까지 안겨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 저녁 수령님께서는 조국방문 재일조선인예술단의 한 성원인 녀성일군을 몸소 저택에 부르

시여 일본에서 총련사업을 하고있는 그의 부모들의 안부며 생활형편 등 여러가지를 알아보신 다음 그들의 축하공연에 대하여 다시금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예술단이 지방공연의 길에 올랐을 때에도 매일같이 일정을 알아보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그들이 남포예술극장에서 혁명가극을 배울 때에는 풍치아름다운 서해바다기슭 와우도에 새로 지은 국제려관을 숙소로 정해주시고 조국의 예술인들이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혁명가극창조과정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수십명의 연출가, 지휘자, 안무가, 배우들을 보내주시였다.

그리시고 수시로 먼거리전화를 거시고 또 사람을 보내시여 앓는 동무들이 없는가, 애로되는것은 무엇인가를 알아보시고 대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훈련과 련습으로 언제 날이 가고 철이 바뀌는지도 모르고있던 그들에게 여름옷을 안겨주시고 노래련습을 많이 하면 목이 쉴수 있다고 하시면서 꿀과 잣기름까지 보내주시였으며 그들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극장에 종합병원을 꾸려주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평양으로 부르시여 재일조선인예술단에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해주시고 예술단성원들에게는 국가수훈과 인민예술가, 인민배우, 공훈예술가, 공훈배

우의 영예를 안겨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렇듯 극진한 사랑과 보살피심속에 재일조선인예술단 성원들은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불과 한 달동안에 완성하여 무대에 올릴수 있게 되였다.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조국방문기간이 거의 끝나가던 그해 6월말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조선인예술단 성원들이 다음날 백두산으로 떠나며 답사를 마치고는 일본으로 돌아간다는것과 그처럼 품들여 완성한 가극을 수령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것을 몹시 서운해한다는 보고를 받게 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 동무들의 소원이라면 꼭 들어주어야 하겠다고, 당장 평양으로 올라가겠다고 하시면서 공연장소는 평양대극장으로 하고 공연준비를 해주도록 조직하라고 일군들에게 이르시였다.

이 감격적인 소식은 즉시에 예술단성원들에게 알려졌으며 그들이 기쁨에 넘쳐 환성을 올리며 평양대극장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당장 공연을 할수 있게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져있었다.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신 수령님께서는 곧바로 평양대극장에 나오시여 그들의 공연을 보아주시였으며 친히 무대에 올라가시여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시였다. 그러시고 그들을 위해 축하연회를 마련해주시고 140여명의 전체 성원들

에게 축배잔까지 일일이 찧어주시는 한량없는 은정도 베풀어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격에 겨워하는 그들에게 일본에서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공연하면 커다란 파문을 일으킬것이라고, 동무들이 일본에 돌아가서 금강산가극단을 무어가지고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공연을 몇해동안 계속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민단>산하 동포들에게도 보이고 일본에 오는 남조선동포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재일동포들이 이 가극을 보면 모두가 나라없는 민족으로서 이국땅에서 모진 수모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온 설음많던 지난날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망명생활을 하고있던 어떤 나라 기자는 평양에 와서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공연을 보고 조국에 두고 온 딸 생각이 너무도 간절하여 흐느껴울었다고 합니다.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는 애국주의교양에 매우 좋은 작품입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그해 8월 29일 일본 도꾜에서는 금강산가극단을 뭇는 모임이 진행되였다. 이리하여 세계해외교포운동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민족가극단 금강산가극단이 탄생하게 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과 재일조선예술인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 세계해외교포예술의 새시대를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였다.

1974년 9월 9일 금강산가극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6돐을 경축하여 도꾜조선문화회관에서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첫 공연의 막을 올렸다.

바로 그날 공화국창건 26돐 경축연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에게서 금강산가극단이 첫 공연을 하게 되였다는것을 아시고 못내 기뻐하시며 앞으로 총련에서 문학예술의 대를 이어나갈 후비들을 잘 키워 금강산가극단의 력량을 계속 보충해주며 가극단이 자주 조국에 와서 새로운 곡목들을 전습해갈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때로부터 금강산가극단은 일본 각지에서 재일동포들과 일본에 오는 남조선사람들 그리고 일본사람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공연활동을 활발히 벌렸다.

공연은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혁명가극을 본 오까야마현의 한 《민단》계동포는 《이 위대한 조선의 예술을 두고 사상의 차이가 문제로 되겠습니까. 이북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세인을 놀래우는 위업을 척척 해내고 총련도 한 나라 못지 않은 일을 하고있으니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북의 정치와 사회주의제도를 지지합니다.》라고 흥분된 어조로 말하였으며 남조선에서 온 한 동포는 가극을 보고 《참으로 좋았다. 난생처음 보는 가극에 매혹되여 그저 감탄, 탄복이라는 말밖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 가극을 서울이나 부산에서 공연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영명하시고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우리 겨레가 한강토에서 행복하게 살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라고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일본의 한 영화배우는 《나는 수많은 가극을 보았지만 이처럼 큰 충격을 받은것은 처음이다. 마지막에 아버지와 딸이 상봉하는 장면에서 나는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조국통일에 대한 조선인민의 불같은 념원을 가슴뜨겁게 느꼈으며 감격의 눈물을 억누를수가 없었다. 나는 앞으로 조선의 통일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했으며 아프리카에서 온 한 인사는 경탄을 금치 못하여 《무대에 압축되여 형상된 조선의 력사는 곧 싸우는 세계인민들에게 승리와 용기를 줄것이다. 예술의 왕국, 주체조선 만세! 주체의 혁명가극 만세!》라고 힘차게 웨쳤다.

이렇듯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자랑높은 주체적해외교포예술단체인 금강산가극단의 위력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였다.

남의 나라 땅에서 사는 해외교포들이 자체로 예술단을 운영한다는것만도 놀라운데 예술의 종합체이며 정수라고 할수 있는 가극을 높은 수준에서 공연하는것을 보고 사람들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단결력과 조직력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탄복하였다.

그후 금강산가극단은 조국에서 5대혁명가극의 창조과정에 이룩된 고귀한 성과와 경험 그리고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전습과 공연과정에 련마한 예술적기량을 밑천으로 하여 자체의 힘으로 가극 《어머니의 소원》을 창작하였다.

1975년에 남조선당국에 의해 조작되였던 《학원침투간첩단사건》의 희생물로 된 재일교포류학생가정의 어머니를 원형으로 한 이 가극은 1983년 7월부터 1년도 못되는 사이에 일본 각지에서 130여회나 공연되였다.

가극은 재일동포들과 광범한 일본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고 그들에게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가 얼마나 절박한가 하는것을 깨우쳐주었으며 그것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힘껏 노력할 결의를 다지게 하였다.

1984년 12월 금강산가극단은 가극 《어머니의 소원》을 안고 조국방문의 길에 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시는 은정어린 선물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안고 돌아갔던 그때로부터 10년만에 자체로 창작한 가극을 안고 조국의 품, 위대한 수령님의 품으로 다시 찾아오는 그들의 마음은 끝없이 설레이였다.

조국에 온 그들은 평양과 함흥, 청진, 신의주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공연을 진행하였다.

주체74(1985)년 2월 24일 가극 《어머니의 소원》을 보신 다음 그들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극 <어머니

의 소원>은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매우 좋은 작품입니다. 가극 <어머니의 소원>은 눈물이 나서 보지 못할 지경입니다. 가극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울것입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리시면서 가극 《어머니의 소원》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드는것이 좋겠다고, 가극 《어머니의 소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면 그것을 주제로 하여 영화를 만드는것이 좋다고 이르시였다.

그리하여 총련과 조국의 예술인들이 합작하여 예술영화 《어머니의 소원》을 만들게 되였으며 이 영화는 제1차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평양영화축전에서 홰불동상을 수여받았다.

금강산가극단결성이후 재일조선예술인들은 1985년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제12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여 주체예술의 명성을 크게 떨치였으며 1986년에는 중국을 방문하여 베이징, 상해, 심양, 무순, 합비 등 5개의 도시들에서 한달간에 걸쳐 공연을 진행하였는데 4만여명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당시 현지신문들은 금강산가극단의 공연을 보고 《금강산가극단은 창립이래 **김일성**주석님의 세심한 배려밑에 발전하여왔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여러 차례 이 가극단의 공연을 보아주시였으며 금강산가극단이라는 명칭까지 달아주시였다. 가극단은 조국통일과 사회주의건설, 동포들의 생활상권리를 위한 투쟁을 반영한 우아하고 민족적형식을 가진 많은 작품들

을 창작하였다. 가극단의 이번 공연을 보고 짙은 민족적성격, 기묘한 예술적수법, 책임적이고 성실한 기풍, 잘 째인 안삼블, 재치있는 예술적기교에 모두다 감탄해마지 않았다. …

금강산가극단 예술인들의 우아하고 감동적이며 정갈한 샘물과 같이 아름다운 예술작품은 활짝 핀 꽃송이와 같이 중국인민의 가슴속에 그윽한 향기를 영원히 뿌려줄것이다.》라고 격찬하였다.

재일조선예술인들은 서울과 부산, 전주 등 남조선의 도시들에서도 순회공연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공연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녘겨레들에게 그토록 주고싶어하시던 사랑과 은정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분계선장벽너머 비쳐주신 인덕의 해발을 소리높이 노래하였고 그 품속에 온 겨레가 함께 모여살 통일의 날을 앞당기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대륙에 높이 울린 금강산가극단의 노래소리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는 민족은 몸은 비록 이역땅에 살아도 영원히 자기 조국, 자기 민족과 더불어 재능도 희망도 마음껏 꽃피울수 있다는것을 널리 과시하였다.

언제인가 총련일군들과 재일조선인예술단 성원들을 만나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금강산가극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수령님의 고귀한 애국유산이고 재일동포들과 일본사람들, 남조선인민들에게 주체의 민족예술을 선전보급하는 중요한 예술단체

입니다. 금강산가극단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커다란 자랑입니다.》

재일동포예술인들에게 돌려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강산가극단을 위하여 훌륭한 극장을 마련해주고싶어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잊지 않으시고 주체86(1997)년 5월 도꾜 무사시노에 금강산가극단의 새 회관을 번듯하게 일떠세워주시였다. 그리고 주체91(2002)년 3월에는 금강산가극단에 2억 2 700만￥에 달하는 거액의 배려금도 보내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관심과 은정속에 재일조선예술인들은 조국이 고난을 겪고있던 시련의 시기에도 애국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를수 있게 되였다.

오늘도 재일조선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을 길이길이 전하며 조국찬가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고있다.

《삼지연》호가 전하는 이야기

주체69(1980)년 10월말 어느날이였다.

총련 조청모범반일군 단기조국방문단과 조선대학교 졸업반 학생대표단을 비롯한 근 400명의 승객을 태우고 니이가다항에서 출항하여 조국으로 항행하던 려객선 《삼지연》호는 원산동쪽 150mile해상에서 갑자기 큰 태풍을 만나게 되였다.

그때 《삼지연》호는 태풍중심권에 들어있었다. 20m/s로 몰아치는 강풍과 무서운 파도에 휩싸인 배에서는 선실유리창들이 깨여져나가고 거기로 시간당 100여t의 바다물이 밀려들고 추진기마저 공회전을 거듭하고있었다.

후에 알려진데 의하면 세계가 《죽음의 날》이라고 부른 그날 태평양서부수역을 휩쓴 그 폭풍으로 하여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1만t급이상의 선박들이 수십척이나 침몰되고 남조선근해에서만도 740여척의 크고작은 배들이 향방없이 종적을 감추었으며 수많은 인명손실을 보았다고 한다.

이날 1만 3 000t급 싱가포르선박 《화호》호는 폭풍에 휘말려 표류하다가 황해남도 룡연군 장산곶앞바다에서 바위에 부딪쳐 파손되였으며 거기에 탔던 선원들은 구사일생으로 구원되였다.

배수량이 1만t이상에 달하는 커다란 배들도 삼켜버리는 사나운 자연의 횡포앞에서 7 000t밖에 되지 않는 《삼지연》호가 침몰되는것은 시간문제였다.

배의 상태를 물어보는 전문에 《3층객실 정면유리 4개 파손, 객실 침수, 배 전진 못함, 위험!》이라는 답전이 왔다.

이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당 부서에 전화를 거시여 《삼지연》호를 구원하기 위한 조치를 곧 취하여야겠다고 하시면서 중요한것은 배자체에서 풍랑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을 잘하는것이라고, 배에 련락하여 침몰되지 않도록 견지하기 위한 투쟁을 잘하게 하여야 한다고, 이 사실을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고 다시 전화를 걸겠다고 하시였다.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속히 구조전투를 벌려야겠다고 하시면서 인민무력부와 륙해운부, 수산위원회, 《삼지연》호설계제작에 참가한 기술일군들을 망라하여 구조전투지휘부를 조직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리시고는 비행기와 해군함선들도 동원해야 하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재일동포들과 선원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그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일군들에게 배를 구원할 구체적인 임무를 주시였으며 만약 《삼지연》호가 잘못되는 경우 사람들을 구원할 비상대책까지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전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난당한 《삼지연》호의 형편을 보고받으시고 구원대책을 세

워주신데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배가 나간다고 하여도 파도에 시간당 5mile밖에 전진할수 없기때문에 배가 나가기 전에 침몰할수 있다고, 중요한것은 배의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투쟁을 잘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선원들과 총련조국방문단 성원들이 총동원하여 자체로 견지하기 위한 투쟁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서로 겁을 먹고 당황해할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배의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을 잘할수 없다고, 그러므로 배의 지휘도 침착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신심을 가지고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을 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한편 《삼지연》호에는 불안과 초조, 위험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조국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상대책을 세워주시고 이 지휘를 몸소 하신다는 전문이 날아왔다.

무전문을 받아쥔 선장은 울렁이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하고 전보문을 려객들과 선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순간 배안에서는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즉시 배에서는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결사전이 벌어졌다. 선원들과 동포청년들은 갑판과 선실에 쏟아지는 산악같은 파도와 결사적으로 싸웠다.

얼마후 태풍이 휘몰아치는 동해바다상공에 비행기들이 날아올랐고 대형구조선이 산같은 파도를 헤치며 달려나갔다. 대

규모의 구조작전이 시작된것이였다.

하지만 폭풍이 너무도 심하여 비행기와 함선들이 《삼지연》호에 도무지 접근할수가 없었다.

얼마후 다음과 같은 보고가 올라왔다.

《삼지연》호에 여전히 시간당 100t씩 쓸어드는 물이 점차 객실 웃부분에까지 쓸어들면서 상층구조물이 무거워짐에 따라 배가 기울어 넘어질 위험에 처하였다는것, 이를 극복할 대책을 거듭 의논했지만 신통한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는것이였다.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객실 웃부분에 쓸어드는 물을 뽐프가 있는 배아래부분으로 모이게 한 다음 해수뽐프와 소방뽐프로 물을 퍼내게 하라고 이르시였다.

현지에서는 물푸기전투를 힘있게 벌려 제자리걸음을 하던 배가 조금씩이나마 앞으로 전진하고있지만 여전히 사나운 파도때문에 위험하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색을 거듭하시던 끝에 배가 파도를 정면으로 맞받아나가기때문에 물을 더 퍼먹는것같다고 하시면서 변침해야 배에 들어오는 물량이 적어지고 배속도도 높일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즉시 배에 변침할데 대한 전문이 날아가고 얼마후에는 변침에 성공하여 배안으로 쓸어들던 물도 시간당 4t으로 줄어들고 전진속도도 현저히 빨라졌다는 답전이 왔다.

이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더없이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젠 배를 구원할수 있습니다.

변침한것이 대담한 조치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치렬한 구조전투속에서 《삼지연》호는 비행대와 구조함들의 엄호하에 김책앞바다 69mile지점에 이르렀다.

《삼지연》호의 상태를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배를 원산항이 아니라 현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김책항에 입항시키도록 하시였다.

다음날 새벽 엄혹한 자연의 횡포를 용감히 이겨낸 《삼지연》호는 고동소리를 높이 울리며 김책항으로 들어섰다.

부두에는 숱한 조국인민들이 모여서 그들을 열렬한 환영으로 맞이하였으며 강력한 의료진과 평양으로 올라갈 특별렬차까지 이미 마련되여있었다.

그들은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평양으로 떠났다.

《삼지연》호의 도착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온 총련 조국방문단 성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온것만큼 특별히 잘 대우해주어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한밤을 지새우시며 전례없는 구조작전을 벌리시여 방문단성원들과 선원들을 구원하여주시고도 그들자신이 용감하게 풍랑을 이겨내고 돌아왔다고 이처럼 높이 치하하시며 크나큰 배려를 돌려

주시는것이였다.

평양에 도착하여 수많은 군중들의 뜨거운 동포애의 정에 넘친 환영을 받고 **김일성**청년영예상과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을 때 그리고 또다시 평양시청년학생군중집회에 참가하여 열렬한 환영과 축하를 받게 되였을 때 방문단 성원들의 심정이 어떠하였겠는가. 진정 숭고한 동포애와 뜨거운 인간애, 비상한 조직적수완과 담력을 지니시고 죽음의 풍랑속에서도 전설과도 같은 구원의 기적을 안아오신분은 바로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오늘도 《삼지연》호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는 력사의 증견자인양 죽음의 풍랑속에서도 전설과도 같은 기적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을 길이길이 전해가고있다.

사랑의 위문전문과 위문금

주체84(1995)년 1월 17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놀라운 소식에 접하시였다. 새벽 5시 46분 일본의 한신, 아와지지역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이였다.

5 500여명의 사망자와 2만 5 000여명의 부상자, 34만여명의 피난민과 5만세대의 살림집, 도로, 철도, 항구시설의 파괴… 대충 타산해도 피해액이 10조￥이 넘는 대재앙이였다.

재일동포들이 당한 피해도 말할수 없이 컸다.

새벽에 들이닥친 자연의 광란으로 백수십명이 희생되고 1 500여명이 부상당했으며 2 200여호의 주택과 공장, 점포들이 완전히 불타거나 파괴되여 수천명이 추운 겨울에 한지에 나앉게 되였다.

이역땅에서 오직 어머니조국과 총련만을 믿고 살아오던 동포들이 하루아침에 귀중한 생명과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졸지에 잃었으니 장군님의 심중은 더욱 무거우시였다.

피해정형을 수시로 알아보시며 한밤을 꼬박 지새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날 이른아침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게 다음과 같은 위문전문을 보내시였다.

《나는 일본의 효고현을 비롯한 긴끼지방에서 대규모의 지진

이 일어나 그곳 총련조직들과 동포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는 뜻하지 않은 소식에 접하였습니다.

나는 이 불행한 소식에 접하여 한덕수의장동지를 비롯한 총련 중앙상임위원회와 피해지역 동포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문과 애도의 뜻을 표하는바입니다.

나는 총련의 모든 조직들과 동포들이 더욱 굳게 단합하여 지진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안착된 생활을 이룩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피해지역 동포들이 하루빨리 불행을 가시고 일어나 안착된 생활을 누리기 바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어린 위문전문이였다.

위문전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히가시고베 조선회관에서 열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신 위문전문이 랑독되자 장내는 삽시에 눈물바다로 변하였다.

전달자도, 청중들도 위대한 장군님의 넓은 품에 안긴듯 솟구치는 격정을 터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며칠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였다.

급히 달려온 일군들은 장군님을 뵙는 순간 그 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2～3일사이 동포들 생각을 얼마나 하셨으면 눈에 띄게 축가셨던것이였다.

일군들은 장군님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자고 서둘

러 엊그제 보내주신 위문전문이 구원과 재생의 손길이고 은혜로운 사랑의 해빛이라는데 대하여 지금 재일동포들과 일본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이 일어나고있다고 말씀올렸다.

하지만 그 소식은 그이의 근심을 조금도 덜어드리지 못했다.

장군님께서는 오늘보도에서 효고현에서만도 4 000명이 사망하였다고 했는데 사실은 더 많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속에서도 인명피해가 적지 않게 난것같다고, 총련상공인들의 재산이 불에 많이 탔다고, 특히 효고현에서 신발업을 하는 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이를 어떻게 위로해드릴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였다.

한동안 방안에는 고요한 침묵만이 떠돌았다.

이윽하여 장군님께서 결연한 어조로 해외에 살고있는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불행과 슬픔을 겪고있는데 우리가 가만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지진피해를 입은 총련동포들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한 대책을 연구해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때의 환경에서는 조국에서 돈으로 동포들을 도와줄 형편이 못되였다.

하지만 위문금을 보내줄것을 결심하신 장군님께서는 재일

동포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가셔주는 일이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설사 우리가 죽을 먹고 굶는한이 있더라도 위문금을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거듭 이르시였다.

일군들이 격정을 금치 못하는데 뒤이어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은 그들을 아연케 했다. 일본인피해자들에게도 위문금을 보내주자고 하신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문금을 보내시는것과 관련하여 한덕수의장에게 다시금 전문을 보내시였다.

《나는 이번에 일본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지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모든 동포들과 유가족들에게 다시한번 심심한 위문과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나는 총련의 모든 조직들과 동포들이 더욱 굳게 단합하여 피해지역 동포들을 적극 도와주며 그들이 하루빨리 지진피해를 가시고 안정된 정상적인 생활을 이룩할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위문금으로 미국돈 1백만딸라를 보냅니다.》

이 소식은 재일동포들을 한없이 격동시켰다.

바로 23년전인 주체61(1972)년 여름 일본 각지를 휩쓴 큰물에 의해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로전문과 함께 막대한 구원금을 보내주시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번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게 또다시 위문금을 보내주시다니.

위문전문과 위문금에 대한 반향은 일본은 물론 온 세계에

서 홍수처럼 쏟아져나왔다.

《아사히신붕》을 비롯한 일본의 주요신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문금을 보내주신 소식을 일제히 전하면서 《일본인들속에서는 <이제까지 거래가 없었는데 오랜 친우처럼 도와주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하는 감사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고 보도하였고 어느 한 나라의 출판물은 《예로부터 쌀독에서 인심이 나온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쌀독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애로 전 세계를 매혹시켰다.》라고 전했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주체85(1996)년 1월 22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을 위하여 몸소 연회를 마련해주시였다.

학생들에게 조국의 음식을 많이 들라고 그들앞에 놓아주시며 허물없이 이야기도 들어주시던 장군님께서는 문뜩 여기 효고현에서 온 학생이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좌중이 물을 뿌린듯 조용해지는데 한 교원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치경제학부 졸업반에 한 동무가 있습니다.》

금시 안색을 흐리신 그이께서 그 학생의 가정에서는 지난해의 한신—아와지대진재때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장군님.》

가슴이 아프시여 한동안 말씀을 못하시던 장군님께서는 그 학생을 불러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살인가, 어머니는 어떻게 잃었는가, 가정형편은 어떤가에 대해 친어버이심정으로 물으시였다.

학생은 울먹거리며 가까스로 대답을 올렸다.

장군님께서는 손수건을 눈가로 가져가시며 안되였다고, 참 안되였다고 하시고는 오래도록 학생의 어깨를 쓸어주시였다.

학생은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옥물었다.

그러는 그에게 장군님께서는 비록 어머니를 잃었지만 당이 있고 조국이 있는 이상 동무는 결코 외롭지 않다고 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학생은 그만에야 참아내지 못하고 장군님의 품에 와락 안기며 엉—엉 소리내여 울었다.

그 학생만이 아닌 연회에 참가하였던 동포청년들모두가, 아니 재일동포모두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고마움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였다.

그렇듯 조국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사랑의 위문전문을 보내주신데 이어 막대한 위문금까지 보내주시여 총련의 동포들뿐아니라 《민단》계동포들과 일본인피해자들에게까지 돌려주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은정은 만사람들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키였다.

로당익장해야 한다시며

1994년 4월 한덕수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이 병치료를 위하여 비행기로 조국에 왔다. 그때 한덕수의장은 전혀 운신을 못하는 상태였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83(1994)년 4월 28일 한덕수의장의 병문안을 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밀차에 앉은 한덕수의장을 보시고 너무도 억이 막히시여 침통한 표정을 지으시고 그가 앉은 밀차를 앞세우시고 휴계실로 들어서시였다.

휴계실에서 한덕수의장과 마주앉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병세와 치료정형을 세세히 알아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내가 보기에는 의장동지가 다리를 잘 쓰지 못하여 그렇지 다른 병은 없는것같습니다. 의장동지의 얼굴모습도 2년전에 비하여 별로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지금 의장동지가 다리를 잘 쓰지 못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앞으로 치료를 잘 받으면 고칠수 있을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환자를 위로해주시려고 말씀은 이렇

게 하시였지만 아직도 병고의 자욱이 력력한 한덕수의장의 안색을 바라보시며 무척 가슴쓰려 하시였다. 그러시면서도 수령님께서는 환자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애쓰시면서 그에게 고무가 될 말씀을 해주시였다.

《의장동지가 이제는 나이가 많기때문에 다리를 고치기 힘들것 같다고 한다는데 절대로 락심해서는 안됩니다. 약 절반 마음 절반이라고 병치료에서 신심을 잃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덕수의장에게 이제 고려의학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병을 고칠수 있다고 하시면서 지난 시기 조국의 고려의학치료를 받고 효과를 본 사람들의 실례도 들면서 그에게 위로가 될 말씀을 오랜 시간동안 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의장동지는 지금까지 한 일도 많은데 치료를 잘 받아 다리를 꼭 고치고 앞으로 한 20년은 더 살아야 한다고 다시금 뜨겁게 고무해주시고 해외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운동에 한생을 바쳐오는 의장동지의 병치료를 위하여서라면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이제는 의장동지가 조국에 왔으니 큰집에 온것이나 같은데 무엇이나 요구되는것이 있으면 제기하여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진정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는 한덕수의장에게 소생의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는 각별한 은정이 넘쳐있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덕수의장의 건강을 념려하시면서 크나큰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1975년 9월 한덕수의장이 총련결성이후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덕수의장이 조국에 왔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몹시 반가와하시며 당창건 30돐 경축행사준비로 몹시 바쁘시였지만 즉시 그를 만나주시였다.

한덕수의장과 27년만에 반가운 상봉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사업에서의 성과에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그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대표단 성원들을 위하여 친히 오찬까지 마련해주시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조국의 한 일군이 한덕수의장을 찾아와 빨리 병원으로 가자고 하는것이였다. 너무도 뜻밖이여서 어리둥절해있던 한덕수의장은 한참만에야 그 리유를 물었다.

그러자 그 일군은 한의장동지가 종합검진을 받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계시였다고 대답하는것이였다.

사실 그는 이젠 나이도 들어 건강도 좋지 못하고 이발도 든든치 못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다 헤아려보시고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주신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병치료도 받고 이발도 새로 해넣게 되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주체63(1974)년 6월 2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한덕수의장의 둘째딸을 부르시여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 심려하여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제는 의장동지의 나이가 많은데 동무가 아버지의 건강을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동무의 아버지가 건강하여야 총련이 계속 일을 잘할수 있습니다.》

주체70(1981)년 4월 13일 조국을 방문한 한덕수의장을 만나신 자리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건강을 두고 몹시 걱정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장동지가 건강하다고 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기때문에 건강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의장동지가 건강하여야 총련사업이 잘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의사들을 통하여 알아보니 의장동지에게 있는 병은 중병이 아니고 흔히 늙은이들에게 생기는 병이라고, 의장동지의 병은 발병초기이기때문에 치료를 잘 받으면 얼마든지 고칠수 있다고 하시면서 조건이 좋은 조국에 와서 해마다 둬달씩 휴식 겸 료양생활을 하도록 온갖 대책을 다 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또한 주체73(1984)년 9월 공화국창건 36돐경축 재일조선인 축하단을 만나신 자리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에서

는 의장동지를 아껴야 합니다. 의장동지가 오래지 않아 80살이 되는데 총련에서 의장동지의 건강을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한덕수의장의 건강을 념려해주시였다.

그런데 80살이 지나 90살이 가까와오면서부터 그는 자주 병석에 눕게 되였다. 일본병원에 입원하여 별의별 치료를 다 받아보고 약도 쓸수 있는껏 써보았으나 로환무책이라고 별로 효험이 없었다. 게다가 1년나마 내내 침상에 누워있다나니 다리근육마저 까드라들어 한발자국도 걸을수가 없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유능한 의사들도 한덕수의장의 치료를 위해 일본에 보내시고 그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려고 조국에서 살고있는 아들딸도 아버지의 병문안과 병구완을 하라고 도꾜로 보내주시였다.

그러나 한덕수의장의 병세는 호전되였다가도 다시 악화되면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즉시 한덕수의장을 조국에 데려다 치료하도록 은정을 베푸시였다.

그리하여 이렇게 조국에 오게 되였고 위대한 수령님의 병문안까지 받게 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날의 위문방문은 한덕수의장에게 두번다시 생을 준 명약이 되고 보약이 되였다. 수령님의 위문방문이 있은 후 그의 병세는 신비로울 정도로 호전되여갔다. 위

대한 사랑의 힘이 그의 병치료에서 하나의 기적을 낳았던것이다. 한덕수의장이 조국에 도착하였을 때는 사람들을 가려보지 못하였지만 집중적인 고려의학치료를 받은 다음부터 정신상태도 퍽 좋아졌고 까드라들었던 다리근육도 풀리기 시작하여 얼마후에는 밀차에서 내려 걷기 위한 노력도 하고 글쓰기련습까지도 하게 되였다.

한덕수의장의 이 기적적인 치료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시며 해당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 한덕수의장의 걷는 모습을 수령님께 보여드리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날은 6월 7일이였다. 한덕수의장은 밀차를 버리고 나와 승용차에 올라 기념촬영장으로 갔다.

촬영장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발로 걷는 한덕수의장을 보시자 몹시 기뻐하시며 그의 치료성과를 축하해주시였다.

그를 자신의 곁에 앉히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다음 휴계실에서 다시 한덕수의장과 마주앉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장동지가 건강하여야 총련사업이 계속 잘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의장동지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로당익장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덕수의장을 마지막으로 만나주신

영원한 작별의 순간이 될줄이야.

그때로부터 한달이 지난 7월 8일 천만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한덕수의장은 치료를 받고있던 숙소에서 듣게 되였다. 한덕수의장은 이 소식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였다.

그는 통분으로 하여 침식을 잊은채 며칠낮, 며칠밤을 울고 또 울었다. 그러다나니 병세는 또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별의별 특효약도 효험이 없었다.

이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덕수의장의 건강에 대하여 몹시 걱정하시며 여러 차례나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대책을 다 취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한덕수의장은 다시 소생할수 있었다.

7월 14일 위대한 수령님의 령구를 찾은 한덕수의장을 만나신 장군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으시고 한의장동지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의장동지에게 혁명을 위하여 오래오래 사셔야 한다고 하시였는데 그 유훈대로 건강하여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1997년 한덕수의장이 아흔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였다.

그의 생일은 2월 18일이였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는 2월에 자기의 생일을 쇠는것을 한사코 반대하여왔다. 그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히려 이해 1월 10일 한덕수 의장자신은 물론 해당 부문의 그 어느 일군도 아직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있던 그의 생일을 헤아려주시면서 그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생일을 원래 날자보다 앞당겨 1월 29일에 쇠도록 하며 총련중앙회관에서 축하연도 성대히 진행하도록 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시고 그의 생일을 계기로 친히 최상의 평가를 담은 축전과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진귀한 청자기를 보내주시고 **김일성**훈장과 명예원사의 칭호도 수여하도록 해주시였으며 생일상까지 차려주시는 은정을 베푸시였다.

그리고 조국에서 살고있는 그의 아들딸네 가족들까지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일본에 보내주시였다.

그해 7월 8일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3돐 중앙추모대회가 열리게 되는 날 금수산기념궁전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덕수의장이 몸이 불편하여 서있기 힘들어하는것을 헤아리시고 그가 밀차에 앉아 추모대회에 참가하도록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한덕수의장이 2001년 2월 21일 병환으로 인하여 94살을 일기로 생을 마치였다는 비보에 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통함을 금치 못하시며 그의 한생에 대한 최상의 값높은 평가의 말씀을 거듭 주시고 이역땅에서 숨진 그를 애국렬사릉의 높은 언덕에 부인의 유해와 나란히 안장하도록 하

여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한덕수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은 3차례의 **김일성**훈장과 **김일성**상,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표창장, 공화국2중로력영웅칭호와 조국통일상,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한 많은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사, 교수, 박사로 우리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빛나는 삶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오랜 일군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며

주체81(1992)년 12월 어느날 일흔다섯번째 생일을 맞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리진규제1부의장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였다.

그때 조국의 일군들은 놀랐다.

그가 이미전에 두차례에 걸쳐 **김일성**훈장을 수여받고 **김일성**상과 조국통일상도 받았기때문에 특별한 표창사업이 없을줄로만 알고있었던것이다.

하지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리진규제1부의장의 생일을 맞으며 그에게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신것이였다. 뿐만아니라 그가 생일날에 같이 사업하는 총련일군들과 동포들과 함께 마음껏 즐길수 있도록 여러가지 물자들까지 《만경봉-92》호편으로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던 날 리진규제1부의장은 멀리 조국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고마움의 눈물을 한없이 흘리였다.

리진규제1부의장은 늙어가는 자신의 나이와 어쩔수 없는 기력을 두고 생각이 깊었던적이 있다.

(젊은 일군들이 많이 자라났는데 이제는 물러나야 하지 않을가. 그러지 않고 그대로 눌러앉아있으면 주책없는 늙은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가. …)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당연한 리치라고 여겨지면서도 마음은 허전하고 구슬퍼졌다.

그러다가 조국에 다녀온 일군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듣고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였다.

조국에 온 총련의 한 일군을 만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먼저 리진규제1부의장의 건강부터 물어주시고나서 총련에서는 그의 건강을 잘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여 애국위업의 대를 옳게 이어나가자면 1부의장과 같은 총련의 핵심이 틀고앉아서 새세대 일군들의 사업을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1부의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고 지난 수십년간 총

련의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온 충신이라고, 그러므로 총련에서는 1부의장을 애호하고 건강을 잘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윽하여 절절하신 어조로 지금 나이많은 사람들은 의례히 뒤로 물러앉을것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물론 나이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관념을 버려야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나이많은 사람들을 존경해주고 잘 도와주고 아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마디마디에 다심한 정이 넘쳐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전해들었을 때 리진규제1부의장은 가슴이 뭉클하고 눈앞이 흐려와 무어라고 할 말을 찾을수 없었다. 불뭉치같이 뜨거운것이 솟구치며 흉벽을 쾅쾅 울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을 거울처럼 들여다보시고 그런 뜨거운 말씀을 주신것이 아닌가.

이런 격정과 함께 리진규제1부의장의 가슴을 더욱 숭엄하고 뜨겁게 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고결하고 웅심깊은 동포애였다.

총련의 오랜 일군들을 애호보존할데 대한 그이의 말씀에 강렬하게 굽이치는것은 인정세계의 사랑과 도덕의리심만이 아니라 먼 래일을 내다보시며 베푸시는 사랑, 총련의 대를 굳건히 이어주심으로써 모든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

지고 지켜주시려는 고귀한 은정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웅심깊은 그 뜻은 리진규제1부의장으로 하여금 청춘의 열정을 되찾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총련일군들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으시자 더없이 기뻐하시며 더욱 다심하고 뜨거운 정으로 그의 건강을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리진규제1부의장이 조국에 올 때면 비행기까지 보내여 맞아오도록 하시였으며 조국에 체류하는 나날에는 치료와 휴식에 좋은 온천과 명승지들을 친히 선정해주시고 여러 차례 가족들과 함께 보내여 이국에서 쌓인 피로도 말끔히 풀도록 해주시였다.

그리고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에서 휴식할수 있도록 딸의 집을 보통강반의 풍치좋은 곳의 새 주택으로 옮기게 하시고 방을 꾸리는데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주체83(1994)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에 온 리진규제1부의장내외와 점심식사를 함께 하신적이 있었다.

그런데 식사도중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느닷없이 그들부부에게 이번에 딸네 집에도 가보았는가고 물으시는것이였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일시에 가보았다고 대답을 올리였다.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부인에게 외손자, 외손녀들이 몹시 좋

아했겠다고 하시였다.

《예, 좋아했습니다.》

부인은 손끝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겠다고 떼를 쓰던 외손주들의 귀여운 얼굴이 떠오르는듯 마냥 웃음을 감추지 못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쉬운 표정으로 점심상을 둘러보시며 오늘 여기에 딸도 와서 식사를 하였으면 더 좋았겠는데 유감이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음식을 별로 드시지 않고 정세이야기며 식탁에 오른 음식이야기 그리고 가끔 총련사업도 화제에 올리시였다.

그러시다가 리진규제1부의장에게 딸이 일본에 갔다왔는가고 물으시였다.

그가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자 자리를 함께 하였던 한 일군이 그의 딸이 귀국한지 30년이 되였지만 아직 한번도 일본에 가서 부모들에게 인사를 드린적은 없다고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묵묵히 계시다가 그렇다면 아주 잘못되였다고 하시면서 특히 리진규제1부의장의 경우에는 단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귀국시켰는데 30년이 넘도록 아직 한번도 집에 못가보았다니 그게 어디 될말인가고 질책하시는것이였다.

사실 해당 일군들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고있고 또 일본이 공화국과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가진 나라도 아니기에 조국에 귀국한 외동딸을 친정집에 나들이보내는것과 같은것은 생각지도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조용하나 단호하신 음성으로 일본에 가는 조국대표단 성원들속에 총련일군자녀들도 보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이어 장군님께서는 리진규제1부의장의 딸도 금년중에 손녀와 같이 일본에 한달정도 보내여 아버지와 어머니곁에 있으면서 식사도 해드리고 이야기도 나누게 하여야 하겠다고, 사람들이란 50대까지는 그래도 정열이 있으니까 자식 생각을 그리 안하지만 60이 지나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 다르다고, 밤이면 령감, 로친만이 방안에 우두커니 앉아있다보니 왜 딸 생각이 안나고 손자들이 보고싶지 않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자식을 걱정 안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고, 귀국하여 30년동안이나 서로 떨어져있으니 부모들은 자식들을 얼마나 보고싶어하고 자식들은 부모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겠는가고, 혈육의 정이란 이런것이라고 뜨거운 인정이 넘치는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귀국한 총련일군들과 애국적상공인들의 자녀들이 표창휴가를 받고 일본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또다시 은정넘친 말씀을 하시였다.

그리하여 리진규제1부의장의 딸은 그해 겨울 40여일동안 일

본에 가있으면서 부모들과 그립던 정을 나눌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고 한신대진재가 일어났을 때를 비롯하여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동포군중들 속에 들어가 정력적으로 사업하던 리진규제1부의장이 과로를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졌을 때였다.

그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걱정되시여 《1부의장동지는 한평생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실하고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한 오랜 혁명가이고 애국자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원로입니다.

우리는 리진규1부의장동지와 같은 로혁명가들을 아끼고 애호보존하여야 합니다.

오늘 총련앞에 나선 애국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로간부들 특히 1부의장동지가 건강하여 계속 일을 잘해나가는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1부의장동지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총련사업을 잘 이끌어나가기 바랍니다.

총련중앙에서 책임지고 리진규제1부의장동지의 병치료를 잘해드릴것을 부탁합니다.》라고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리시고도 마음을 놓지 못하시며 그가 병을 하루속히 완치할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고 위로전문과 고무격려의 말씀도 보내주시였다.

리진규제1부의장이 위급한 상태에서 다섯시간이라는 길고 어려운 수술을 이겨낼수 있었던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극진한 사랑이 신비한 힘을 주고 소생의 불사약이 되여서였다.

의식이 회복된 날 리진규제1부의장은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밤새 잠을 못이루었다. 그에게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누려온 행복의 나날들이 화면처럼 되살아났다.

절세의 위인들께서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두번씩이나 안겨주시고 **김일성**상수상자의 영광도 지니게 해주시였으며 조국통일상이 제정되였을 때에는 선참으로 그 영예를 지니도록 해주시던 일,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에 공로가 있다고 그에게 공화국교수학직도 수여해주시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나라의 정사를 토의하는 높은 연단에도 내세워주신 그 은정…

참으로 한 일에 비해 받아온 사랑과 은정이 너무도 큰 한생이였다.

그런데 오늘은 다 죽었던 생명을 사랑의 손길로 소생시켜 일으켜세워주시니…

며칠후 리진규제1부의장은 총련일군들과 의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병원문을 나섰다.

사실 총련중앙에서는 위대한 수령님 서거 1돐을 맞으며 구성한 추모대표단에 큰 수술을 받은지 얼마 안되는 리진규

제1부의장을 망라시키지 않았었다.

그러나 리진규제1부의장은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을 때 총련조의행사들을 보장하느라 조국에 가지 못했는데 건강이 여의치 않다고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한 불충불효가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기어이 조국으로 가겠다고 나섰다.

조국에 도착한 리진규제1부의장의 건강에 특별히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관계부문 일군들에게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추모행사장에서 그를 만나시여서는 남먼저 병색부터 헤아려보시고 얼굴색을 보니 많이 상했다고, 빨리 돌아가 수술을 한 의사의 감시하에서 치료를 받고 몸을 회복한 다음에 일을 하도록 해야겠다고 신신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극진히 위해주시고 믿어주시는데 그 하해같은 은총에 다 보답하지 못하고 가면 어쩔가. …)

돌아가는 비행기안에서 리진규제1부의장은 이 생각으로 마음이 조급하고 걱정스러웠다.

그후 그는 낮과 밤이 따로없이 사업에 전념하였다.

병약한 몸에 쌓인 과로를 그대로 안은채 총련 제17차 전체대회준비사업에 마지막심혼과 정력을 쏟아붓던 리진규제1부의장은 1995년 9월 21일 쓰러져 영영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리진규제1부의장이 애석하게도 숨을 거두었다는 비보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절통

하시고 믿어지지 않으신듯 정말 사망하였는가, 다시 알아보라고 하시고는 그 사실을 재삼 확인하시고서야 아까운 사람을 또 잃었다고 그리도 비통해하시였다.

림종의 순간 장군님을 애타게 부르며 하많은 일을 남겨놓고 가는것이 안타깝다고 한 총련의 원로를 생각하시며 한동안 슬픔에 잠겨계시던 그이께서는 리진규제1부의장의 사진과 부고, 략력을 조국의 모든 신문들에 크게 보도하도록 하시고 한덕수의장앞으로 보낸 중앙인민위원회 조전에서는 그에게 총련의 원로이고 견결한 로혁명가였으며 주체형의 애국충신, 참다운 조국의 아들이라는 최상의 높은 평가를 주도록 해주시였다. 그리고 그의 딸을 일본에 보내여 장례식에 참가하도록 하며 총련에서 진행하는 장례식시간에 맞추어 조국에서도 추도회를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1995년 9월 25일 도꾜의 조선문화회관에서 총련결성이래 처음 되는 총련장으로 리진규제1부의장의 장례식이 엄숙히 거행되였으며 동시에 평양에서도 추도회가 진행되였다.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추도회에 친히 화환까지 보내주시고도 애석함을 푸실길 없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진규제1부의장의 유해를 조국에 옮겨다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는 한없는 사랑을 돌려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살아생전에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겨 열혈충신, 애국자로 삶을 빛내인 리진규제1부의장은 세상을 떠나서

도 영생의 언덕에 오르게 되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의 보살피심속에 남편의 유골을 애국렬사릉에 안치한 리진규제1부의장의 부인은 며칠동안 조국에 머무르면서 마음을 안정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5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국에 온 총련대표단들과의 기념촬영장에서 그를 친히 불러 다정히 손을 잡아주시며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따뜻이 위로해주시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그리고 며칠후에 진행된 연회에 또다시 그를 참가시켜 총련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주탁에 앉도록 하시고 손수 술을 부어주시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였다.

믿으시면 천하를 주시고 품으시면 가족과 후대들의 운명까지 다 맡아 영원히 보살펴주시는 은혜로운 품.

그 사랑이 힘이 되여 그후 리진규제1부의장의 부인은 고령의 몸에도 불구하고 총련녀맹사업과 애국사업에 헌신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살아서 인간이 누릴수 있는 최대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였으며 죽어서도 참다운 조국의 아들로 영생의 삶을 누리는 리진규제1부의장, 애국렬사릉의 돌사진의 그의 눈빛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듯싶다.

절세위인들께 모든 운명을 맡기고 그분들의 뜻을 높이 받드는 길에 참된 애국애족이 있고 영원한 삶의 보람과 행복이 있다고.

원로중의 한사람으로 내세워주시며

1948년 11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바다건너 일본의 어느 한 한적한 포구에서 자그마한 배 한척이 조용히 닻을 올리였다. 이 배에는 조국에서의 공화국창건을 경축하기 위하여 가는 10여명의 재일조선인경축단 성원들이 타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이 선포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주체37(1948)년 10월 8일 재일동포들과 함께 공화국창건의 기쁨을 나누지 못한것을 두고 못내 아쉬워하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날 재일본조선인련맹 대표를 평양에 초청한다는 국제전보를 보내도록 하시고 그것을 평양방송을 통해서 보도하게 함으로써 재일동포대표들을 조국에 불러주시였다.

그리하여 10월 17일 도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수립 경축대회가 열리고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축하편지를 가지고 갈 100여명의 대표들로 공화국창건 재일조선인경축단이 무어졌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방해책동으로 경축단성원 100여명모두가 아니라 10여명만이 조국으로 가게 된것이다.

이 범상치 않은 일행속에는 당시 민청사업을 하고있던 21살의 청년 서만술도 있었다.

한겨울의 바다는 가랑잎같은 쪽배를 뒤집어놓을듯 사납게 갈개였지만 그의 가슴은 이름못할 환희로 둥둥 떠오르기만 하였다. 그 존함만 들어도 강도 일제가 벌벌 떨고 온 겨레가 재생의 희망으로 잠 못들던 민족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는 길이 아닌가.

기승을 부리던 파도가 잔잔해지고 어느덧 려명이 깃들기 시작한 바다를 바라보느라니 베잠뱅이괴춤을 움켜쥔채 해돋이를 구경하겠다고 정신없이 달음박질치던 소년시절이 떠올랐다.

그의 고향은 경상북도 영일군(당시)이였다. 영일이라는 지명은 해맞이라는 뜻이다. 어렸을 때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새벽에 영일만으로 달려가 수평선우로 솟아오르는 불덩어리같은 태양을 가슴벅차게 안아보는것이였다. 그럴 때면 가난에 찌들고 설음으로 멍이 든 파리한 얼굴에도 한가닥 꿈이 봄무지개마냥 비끼군 하였다. 하지만 자연의 태양은 망국소년의 애달픈 소원앞에 너무도 무정하였다. 어떻게 하나 공부를 해보겠다고 바다건너 이역땅으로 간 농사군의 아들에게 차례진것이란 모진 민족적천대와 멸시뿐이였다.

그렇듯 불우한 운명을 한탄하던 그가 오늘은 민족의 태양이 찬연한 빛을 뿌리는 그리운 조국으로 가고있는것이다.

주체37(1948)년 12월 23일, 이날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되는 영광의 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선을 넘어 조국으로 찾아온 재일조선인경축단 성원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신것이다.

일본에서 온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여 대단히 기쁘다고, 여러분들이 조국으로 올 때 풍랑이 심했다고 하는데 사나운 겨울날씨에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느라고 고생이 많았겠다고 하시며 한사람한사람 따뜻이 손잡아주시는 **김일성**장군님, 예지로우시면서도 겸손하시고 비범하시면서도 소탈하신 그이의 존안에서 그는 순간도 눈길을 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시선도 일행중 남달리 애젊은 청년인 서만술에게서 자주 멈춰서군 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체 재일조선동포들이 공화국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에서와 자기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성과를 달성할것을 기대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표시하시였다. 온몸이 눈과 귀가 되여 그이의 천금같은 가르치심을 새겨안는 서만술의 가슴속에서는 세찬 격랑이 일어번지였다.

못잊을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고귀한 가르치심은 그에게 있어서 한생 흔들림없을 삶의 좌표로 되였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다시 만나뵙게 된것은 그때로부터 26년이 지나서였다.

당시 총련중앙의 조직국장사업을 하던 그는 1974년 9월 공화국창건 26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을 이끌고 조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다시 만나뵙게 되였다.

얼굴이 좀 축간것같다고, 먼길에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겠다고 하시며 무척 반가와하시는 수령님의 눈빛에는 름름하게 성장한 자식을 두고 대견해하는 어버이의 심정이 력력하였다. 북받치는 격정으로 서만술은 그이의 품에 와락 안겨 어린애마냥 흐느끼였다. 수령님께서는 오늘은 기쁜 날인데 왜 우는가고, 울지 말고 사진이나 찍자고 하시면서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곁에 세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동무를 만나게 되니 대단히 반갑다고, 명절에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면서 총련이 지금 투쟁을 잘한다고, 동무들이 사업을 잘한 결과이라고 하시며 그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시였다. 어버이를 한자리에 모신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속에서 시간은 꿈같이 흘러갔다.

사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국의 친선사절들과의 접견 등 바쁜 행사일정으로 하여 몹시 피로하시였다.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총련동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것이 가장 유쾌한 휴식이라고 하시며 총련축하단을 위해 오랜 시간을 바치시였다. 그 각별한 사랑에 서만술의 가슴은 축축히 젖어들었다.

다음날 공화국창건 26돐을 경축하는 국가연회장에서였다. 서만술은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주탁에 자기 자리가 있었던것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특례적인 조치였다. 그는 정말 몸둘바를 몰랐다.

이날 그는 재일조선인축하단 단장으로서 축하연설을 하였다. 격정으로 높뛰는 가슴을 진정하며 마이크앞에 나선 서만술은 공화국의 창건자, 령도자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안경을 벗으시고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닦으시며 서만술의 연설을 들어주시던 수령님께서는 그가 축배잔을 정히 받쳐들고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그러시고는 정에 넘친 눈빛으로 그를 한동안 바라보시였다.

장내는 물을 뿌린듯 고요해졌다.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축배는 후에 하고 우선 동무의 손부터 잡아보자고 하시며 그를 자신의 넓은 품에 따뜻이 안아주시였다. 순간 우뢰같은 박수소리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참으로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감동적인 화폭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곁에 있던 다른 나라의 국가수반에게 이 동무가 재일조선인축하단 단장이라고 소개까지 해주시였다. 그의 가슴은 격정으로 터질듯 부풀어올랐다.

그로부터 얼마후 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의 예술공연을 보아주시려 극장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관람석을 둘러보시다가 문뜩 총련축하단 단장이 왜 보이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때 서만술은 공교롭게도 감기에 걸려 치료를 받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몹시 앓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열이 38℃까지 올랐댔다는 보고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몹시 놀라와하시더니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무인데 앓으면 되겠는가고 하시며 치료대책을 단단히 세워주어야 하겠다고 당부하시였다.

숙소로 찾아온 조국의 일군으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서만술은 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린것이 못내 죄송스러워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그런데 이때 전화종소리가 울리였다. 송수화기를 드는 순간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전화였던것이다.

건강은 어떤가고, 열이 높다고 하는데 일없는가고 물으시는 그이의 음성에는 다 자란 자식을 두고도 늘 마음놓지 못하는 친어버이의 다심한 정이 어려있었다.

서만술은 너무도 감격하여 《이젠 다 나았습니다. 수령님!》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래일 동무를 한번 더 만나주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다른 일로 만날수 없게 되여 이렇게 전화를 건다고 하시며 이국땅에서 건강을

잘 살피라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에 주의하라고 거듭거듭 당부하시였다.

통화는 끝났지만 서만술은 송수화기를 틀어쥔채 굳어진듯 서있었다. 이토록 따사로운 보살피심속에 애국사업을 하는 우리 총련일군들처럼 복받은 행운아들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날 밤 수령님께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뢰였다.

(해빛같이 따사로운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을 길이 전하며 이역의 찬바람, 눈속에서도 애국의 꽃송이들을 활짝 피워가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서만술동무는 한덕수의장이랑 쪽배를 타고 자신을 찾아왔던 일행가운데서 제일 젊은 재일조선인활동가였다고 두고두고 외우시며 아끼고 내세워주시였다. 그리고 그가 이역의 사나운 풍파를 꿋꿋이 헤쳐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정녕 그 은혜로운 해빛은 애국의 씨앗을 움틔우고 꽃피워 열매맺게 해주는 사랑의 활력소였다.

이 사랑, 이 믿음을 안고 서만술은 조국의 번영과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오로지 애국위업에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서만술을 굳게 믿으시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1980년 10월당시 총련중앙의 사무총국장으로 사업하던 서

만술은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재일조선인축하단 단장의 중임을 지니고 조국땅을 밟게 되였다.

대회가 개막되던 날 주석단으로 나오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뵙는 순간 그는 마치 30여년전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뵙던 그날의 자리에 서있는듯한 환각에 빠져들었다.

예지와 열정으로 빛나는 안광, 크나큰 도량과 인정미가 넘쳐나는 미소, 활달한 기상이 맥박치는 몸가짐…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대하여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뵈오니 과시 비범한분이시구나, 주체조국의 미래는 창창하구나 하는 탄성이 절로 터져나왔다. 후날 그는 그 영광의 대회장에서 자기는 인생의 두번째 해맞이를 하였다고, 위대한 장군님을 뵙는 순간 1948년의 그 해맞이가 눈물겹게 생각났다고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그가 총련의 부의장, 제1부의장, 의장으로 사업한 시기는 총련이 사상 류례없는 시련을 겪던 때였다. 총련의 존재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일본반동들은 공화국이 어려움을 겪고있는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총련을 말살하려고 온갖 비렬한 책동을 다하였다. 그 엄혹한 시기에 서만술은 동포대중의 앞장에서 애국위업을 고수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이끌었다.

2001년 5월 도꾜에서는 총련 제19차 전체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새 세기 첫해에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특별한 의의

를 가진 대회에서는 20세기에 총련이 이룩한 자랑스러운 업적과 빛나는 애국전통을 살려 21세기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롭게 앙양시켜나가기 위한 활동방침들이 제시되고 참가자들의 열렬한 지지찬동을 받았다.

이 대회에서 새로 총련의장사업을 맡게 된 서만술은 신심에 넘쳐있는 총련일군들의 모습을 보면서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총련애국위업의 력사적전환을 마련하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치신 끝없는 로고가 되새겨져서였다.

그는 대를 이어 천출위인들의 손길아래 총련사업을 하는 긍지와 행복감으로 온몸이 달아올랐다. 줴기밥과 쪽잠으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속에서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위해 뜨거운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 자신의 마음은 언제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과 함께 있다고 하시는 그이의 말씀은 총련을 허물려고 어리석게 날뛰는 원쑤들에게는 뢰성벽력과도 같은 선언이였고 동포들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백배로 해준 원동력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역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남모르게 많은 수고를 하는 서만술을 남달리 사랑하시며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서만술의 일흔번째 생일과 여든번째 생일에 깃든 가슴뜨거운 사연은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그의 생일은 4월 14일이였다. 태양절을 하루 앞둔 날이라

고 하여 그는 애당초 자기 생일을 쇠지 않았었다. 그의 이러한 고결한 충정의 마음을 헤아려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주체86(1997)년 3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문뜩 총련의 서만술부의장이 얼마 안있어 일흔번째 생일을 맞는다고 하시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이윽하여 장군님께서는 그는 총련의 원로의 한사람이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총련사업을 잘해온 공적있는 사람이라고, 그에게 영웅칭호도 수여하고 자신의 축하의 인사와 선물도 보내주며 생일축하연도 잘 차려주도록 하라고, 그의 결곡한 성품을 보아서도 우리가 생일을 잘 쇠게 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두해전에도 서만술부의장은 21살때 한덕수의장과 함께 풍랑을 헤치고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으러 왔던 사람이라고, 총련에서는 서만술과 같은 사람을 선배부의장으로 내세워주어야 한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로력영웅의 금메달을 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생일상과 은정어린 선물을 마주한 서만술은 평범한 인생을 진주보석처럼 빛내여주시는 그이의 한량없는 믿음과 은정에 오열을 터뜨렸다.

사실 당시 서만술로서는 한 인간이 누릴수 있는 영광을 다 받아안은것이나 같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김일성**훈장수훈자의 영예를 지니였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표창장도 받아안았다. 조국통일상도 수여받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건강이 걱정되시여 10여차례에 걸쳐 귀중한 보약도 보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이토록 크나큰 은정을 부어주시는것이였다.

10년후 서만술의장이 여든번째 생일을 맞던 주체96(2007)년 4월에도 가슴뜨거운 화폭이 펼쳐졌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축복속에 마련된 서만술의장의 생일축하연에 초대되였던 일본의 한 인사는 그에게 당신은 어떤 연고로 **김정일**총비서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있는가고 호기심을 담아 물었다.

그러자 서만술의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애젊은 시절 태양이 그리워 쪽배에 몸을 실었던 자기를 총련의 원로로 내세워주시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감동깊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다.

그 일본인사는 참으로 꿈같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의장선생의 인생에 비낀 아름다운 추억을 통해서도 **김정일**총비서의 위인적천품을 잘 알수 있다.》고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일편단심 백두산위인들만을 따르며 순간도 애국의 신들메를 풀지 않은 서만술의장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인생의 찬란한 세번째 해맞

이를 하게 되였다.

뜻밖에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던 피눈물의 그 나날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총련일군들을 못내 그리워하시며 총련의 서만술의장이랑 몇해째 조국에 오지 못하고있는데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김정일**훈장이 제정되였을때 첫 수훈자들의 명단에 서만술의장의 이름을 꼭 넣도록 세심히 헤아려주신분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였다.

그 소식에 접하고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애국의 맹세를 다지던 서만술의장은 2012년 2월 19일 애석하게도 심장의 고동을 멈추었다. 그 비보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믿음을 주시던 해외의 로혁명가를 잃었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조의행사와 관련한 온갖 은정어린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였다.

그리고 서만술의장의 서거 100일을 맞으며 그의 유해를 조국에 옮겨다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서만술의장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 해외교포운동의 저명한 활동가로 값높은 생의 자욱을 새겨올수 있었고 조국의 빛나는 력사와 더불어 오늘도 영생하고있는것이다.

조국에 불러주시여

리계백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60돐경축 재일조선인축하단이 조국에 도착한것은 주체61(1972)년 3월 28일이였다.

다음날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꿈만 같은 영광을 받아안게 된 축하단성원들은 기쁨과 행복에 휩싸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을 향해 마주 걸어나오시였다.

리계백부의장은 너무도 송구스럽고 황송하여 황황히 위대한 수령님께로 달려가 《수령님!》 하고 목메여 웨치며 그이의 넓고 자애로운 품에 와락 안겨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먼저 찾던 은혜로운 태양의 품에 온몸을 맡긴 리계백부의장의 가슴속에서는 이역살이에 서리고 맺힌 설음의 고드름이 봄날의 눈석이마냥 순간에 녹아내렸다.

리계백부의장은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이역땅에서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겪어야 했던 지난날이 떠올라 더더욱 솟구치는 눈물을 억제할수 없었다.

제주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여난 그는 18살에 현해탄을 건너 일본땅으로 갔었다.

나서자란 고향산천은 있어도 안겨살 품이 없어 살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가던 그 세월에 얼마나 많은 조선사람들이 피눈물을 뿌리며 산설고 물설은 일본땅으로 끌려갔으며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겼던가.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개만도 못하다고 일본땅에서 그를 기다린것은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이였다. 신문배달, 우유배달, 막벌이로 종아리에 심줄이 켕겨지도록 뛰고 손발이 저리도록 일하였으나 차례진것은 멸시와 천대, 굶주림과 매질뿐이였다. 망국노의 치욕과 원한이 날이 갈수록 가슴속에 옹이로 맺힐 때 그가 나라를 구원해주고 민족을 빛내여줄 절세의 위인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겪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알지 못할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 백두산에서 일제의 백만대군을 쥐락펴락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가 그의 눈을 확 틔워주었다. 그는 백두산을 우러러 새로운 힘과 용기, 희망을 안고 반일운동에 나섰다. 그것으로 하여 일제경찰에 여러 차례 체포되기도 하였으나 그는 그 고초를 억세게 이겨나갔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아오신 해방은 재일조선인들의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함께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들에게 더 마음쓰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남의 나라의 서러운 처마밑에서 멸시를 받으며 사는 동포들을 더 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이 봄날의 따사로운 해빛마냥 리계백의 가슴속에 흘러들었다.

그는 민족의 태양을 우러르며 재일조선인운동에 발벗고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의지에 의하여 마침내 귀국의 배길이 열리였을 때 그의 기쁨은 말할수 없었다. 그는 해외동포들에게는 진정한 조국이 있어야 하며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따를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신념으로 억척같이 가슴에 새기였다. 그는 귀국대책실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지니고 밤낮이 따로없이 뛰여다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애국충정을 귀중히 여기시여 총련결성의 첫 시기부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의 중책을 맡은 그를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그를 해외공민으로서는 처음으로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주시였다.

그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곧 은혜로운 조국이였고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이였다. 하기에 리계백부의장은 일본정부와 완강한 투쟁을 벌려 재일조선인운동력사에서 처

음으로 총련일군들로 무어진 축하단이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다시 일본에 돌아갈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쟁취하고 조국을 방문할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자나깨나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에서 뵈옵게 된 리계백부의장은 평생의 소원이 다 풀린 크나큰 행복감에 잠겨 뜨거운 눈물만 흘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한 그를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으며 그를 자신의 옆자리에 손잡아 앉히시고 총련사업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계백부의장이 조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수십여차례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몸소 숙소까지 찾으시여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그리고 그를 백두산답사의 길에도 세워주시고 중요한 행사들과 회의, 현지지도때에는 늘 자신의 곁에 세워주시였다.

리계백부의장이 조국을 떠나기 전날에도 그를 만나시여 총련조직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하나하나 따뜻이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뜻깊은 첫 조국방문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리계백부의장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당 일군들에게 그가 혈압이 높다고

하는데 좀 낫는가고 물어도 보시고 온천에 가서 휴식시키는 것이 어떤가고 하시면서 그를 잘 치료해주라고 간곡히 당부하기도 하시였으며 행사를 지도하시다가도 그를 보면 뜨겁게 손잡아주시면서 행사들이 겹치여 피곤하지 않는가, 건강은 어떠한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따뜻이 말씀하군 하시였다.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고 일본으로 돌아간 리계백부의장은 총련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갔다. 그러던 그가 그만 통풍에 걸려 쓰러지게 되였다. 관절마디들이 퉁퉁 부어오르고 전신에서 피부가 벗겨져 고통이 말이 아니였다. 여러가지 약을 써보았지만 효험이 없었다. 70살을 훨씬 넘긴 고령에 침습한 병이라 본인도 신심을 잃고 막을길 없는 육체적로쇠앞에서 번민의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이 사실은 곧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병세를 두고 누구보다 걱정하시며 일군들에게 총련 리계백부의장이 통풍이 있다고 하는데 조국에 불러 고치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하루빨리 조국에 올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세워주시였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리계백부의장은 그날 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시는 사랑과 믿음에 감복하여 도저히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곁에서 함께 일하는 일군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일흔번째 생일을 헤아리시고 래일이 총련 리계백부의장의 생일 70돐이라고, 그는 공로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응당 평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도록 하시고 이 사실을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널리 소개하게 해주신 일, 귀국한 장모가 로환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우리가 장례를 잘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극진히 보살펴주신 숭고한 의리의 세계…

그런데 오늘은 또 자신의 신상에 생긴 병세도 헤아려주시고 보살펴주시니 정녕 그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치고있었다.

이렇게 되여 리계백부의장은 1981년 9월초 병치료를 위하여 조국에 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조국에 도착하였으니 한시름 놓겠다고 하시면서 병치료에 적합한 온천과 가장 훌륭한 숙소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나하나 조처해주시였다.

그 위대한 사랑이 그대로 소생의 젖줄기가 되고 불사약이 되여 리계백부의장은 얼마후 건강을 회복하고 왕성한 정력을 되찾게 되였다.

그후 얼마 남지 않은 생이나마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사회주의조국땅에서 살고싶고 죽어서도 조국땅에 묻히고싶은 소원을 안고 리계백부의장이 1989년 4월 조국에 귀국할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계백부의장이 조국에 인차 온다고 하는데 그에게 온갖 생활조건이 훌륭히 갖춰져있는 살림집을 마련해주어야겠다고 하시며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수도의 풍치아름다운 보통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리계백부의장의 집은 이렇게 마련된것이였다.

83살이라는 인생의 짙은 황혼기에 조국에 귀국한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오히려 조국에 짐이 되지나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높은 국가적대우를 해주도록 하시고 훌륭한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였을뿐 아니라 그가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수 있도록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던것이다.

조국에 온 얼마후 리계백부의장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8(1989)년 5월 어느날 그를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그 뜻깊은 자리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일본에서 동포들과의 사업은 물론 각이한 계층들과의 사업도 하여 많은 경험을 쌓았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나라의 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해 많은 일을 할데 대한 두터운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지혜와 정력

을 다 바쳐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건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돌려주시였으며 거듭되는 크나큰 영광을 베풀어주시였다.

그가 여든다섯번째 생일을 맞던 주체80(1991)년 1월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때에도 그의 생일을 잊지 않으시고 친히 생일상을 차려주시였으며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도 수여해주시였다.

1993년 1월 리계백위원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없이 가슴아파하시며 그의 장례를 국장으로 하도록 뜨거운 은정을 부어주시였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아들이 급히 조국에 오도록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몸소 고인의 령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슬픔을 금치 못하시며 자신께서는 리계백위원장의 서거에 대하여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고있으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밀려드는 비감을 억제하시려는듯 다음 말씀을 잇지 못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계백위원장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일생을 바쳐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나는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리계백위원장이 생전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한히 헌신한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주실수 있는 믿음, 베푸실수 있는 사랑을 다 안겨주시며 이렇듯 값높이 평가해주시는 그 뜨거운 은정은 정녕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참된 애국충신의 전렬에 세워주시고 그에게 못다 주신 사랑과 믿음을 유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시였다.

그의 부인의 여든번째 생일을 헤아리시고 생일상을 크게 차려주시고 로력훈장을 수여하도록 해주시였으며 다음해의 생일때에는 사랑의 금반지를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또한 어느해에는 일군들에게 세상을 떠난 리계백위원장의 부인이 인민군군인들을 찾아다니며 원호사업을 잘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가슴뜨거운 교시를 주시기도 하시였다.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그는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며 값높은 삶을 한껏 누려올수 있었다.

생일날에 받아안은 은정

주체109(2020)년 2월 14일이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의장에게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였다.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2월 21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여든다섯번째 생일을 맞는 허종만의장에게 축하전문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축전에서 허종만의장을 오랜 기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총련을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의 선구자적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특출한 공헌을 한 당과 혁명의 귀중한 원로이며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로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허종만의장에게 안겨주신 무상의 영광이며 최상의 믿음이였다.

허종만의장으로 말하면 오래전부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속에서 성장해온 총련의 일군이다.

주체81(1992)년 2월 허종만부의장(당시)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50돐에 즈음하여 축하단으로 조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축하단일행을 반가이 맞아주시고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이번에 조국인민들과 함께 **김정일**동지의 탄생 50돐을 뜻깊게 기념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사업에 대하여서와 위대한 장군님을 잘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담화가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축하단일행을 오찬회에 초대하시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가운데자리에 모시고 모두가 연회상에 둘러앉았다.

그런데 축하단의 부단장인 허종만부의장의 앞에는 특별히 생일똘뜨가 놓여있었다. 그가 어리둥절해있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좌중을 향하여 허종만부의장동무의 생일 57돐이 엊그제였으므로 오늘 부의장동무의 생일을 축하하여 다같이 잔을 들자고 하는것이였다.

순간 그는 너무도 뜻밖이여서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축하하러 왔다는 자기가 오히려 조국에서 자기 생일을 쉰다는것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이려니

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 생일날까지 기억에 새겨두시고 이처럼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은총과 영광을 안겨주시니 무엇이라 말을 할수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이틀전인 2월 2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련축하단 부단장으로 온 허종만부의장의 생일이 오늘이라고 하는데 내가 오늘 총련축하단을 만나주었더라면 더 좋았을걸 그랬다고 저으기 아쉬워하시며 전화로 말씀하시였다는것을 조국의 일군에게서 전해듣던 일이 생각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종만부의장의 잔에 손수 축배잔을 찧어주시며 오찬회참가자들과 함께 그의 생일을 축하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을 하여주시고도 부족하신듯 그에게 오늘 뙬뜨랑 가지고 가서 저녁에 동무들과 같이 한잔하는것이 좋겠다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가슴이 뭉클해짐을 다잡으면서 그는 감사의 눈물, 충정의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돌려주신 그날의 축복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그대로 더 뜨겁게 베풀어졌다.

주체83(1994)년 2월 21일 조국에 머무르고있던 그를 몸가까이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책임부의장동무의 생일이 래일인데 래일은 시간을 낼수 없어 오늘 축하해주자고 오라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가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식사를 차려주

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시계를 생일선물로 안겨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동지인 허종만책임부의장동무는 준엄한 시기에 우리와 생사운명을 같이할 전우이라고 분에 넘친 믿음의 말씀을 하여주시였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주체84(1995)년 2월 22일 조국을 방문하였던 그는 예순번째 생일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차려주신 생일상을 받아안게 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따스한 친어버이사랑에 감동되여 감사의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그날 저녁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또다시 불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쁨과 흥분으로 설레이는 그의 얼굴을 정답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다.

《허종만책임부의장동무의 생일 60돐을 축하합니다.

오늘 낮에 책임부의장동무의 환갑생일을 축하하여 공식적인 행사는 다 하였기때문에 나는 격식없이 가족적분위기속에서 식사나 같이하자고 저녁에 동무를 오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대한 장군님께 허리굽혀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이 책임부의장동무도 숙소에서 식사하는 시간이고 나도 저녁식사하는 시간이여서 함께 식사하자고 불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또 만

나니 얼마나 좋은가고 정겹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가 식탁에 마주앉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책임부의장동무가 오늘 조국에 있는 가족, 친척들과 총련에서 같이 온 일군들과 함께 60돐생일을 즐기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인상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책임부의장동무는 어제까지만 하여도 중년기였는데 오늘을 기하여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섭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60청춘, 90환갑입니다.》

나이 60이면 인생의 령마루에 오른다고 하였다. 인생의 아침노을을 바라보던 사람도 60고개에 오르면 인생의 저녁노을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그에게서 청춘을 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책임부의장동무는 이번 60돐생일을 조국에 와서 쇠였다는것을 공포하지 말고 총련에 돌아가면 다시 환갑생일을 쇠는것이 좋겠습니다.》

《환갑생일을 또 쉰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황송합니다.》

그는 진정 몸둘바를 몰랐다.

한가정, 한식솔의 마음이 오고가는 속에 정다운 좌석의

분위기는 친어버이를 모신 친혈육들의 단란한 정으로 한껏 부풀어올랐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그에게 베풀어주시던 사랑과 축복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의 중책을 맡은 허종만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매해 설명절때마다 그리고 그가 80살이 되는 주체104(2015)년 2월과 85살이 되는 주체109(2020)년 2월에 축하전문을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주체109(2020)년 광명성절을 맞으며 그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2월에도 그의 여든여섯번째 생일을 축하하여 다음과 같은 사랑의 축전을 보내시였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허종만동지 앞

존경하는 허종만의장동지,

나는 의장동지의 생일 86돐을 맞으며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의장동지는 우리 조국이 가장 큰 고난을 겪던 시기에 재일조선인운동의 중하를 떠맡아안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견결히 수호하고 자랑스럽게 빛내인 참다운 해외혁명가의 귀감입니다.

우리 당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발전행로에 력력히 새겨져있는 의장동지의 특출한 공적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언제나 잊지 않고있습니다.

나는 의장동지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결사의 각오로 헤쳐가신 불멸의 자욱을 따라 조국의 동부산악 2,500리의 행군길에 올랐던 24년전 그때의 그 정력으로 귀중한 우리 총련을 위하여, 사랑하는 재일동포들을 위하여 더욱 용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결한 충의지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장동지의 귀체만강과 부인을 비롯한 온 가정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　　　정　　　은

주체110(2021)년 2월 22일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축복은 그에게 있어서 생명수였고 그를 떠밀어주는 원동력이였다.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속에 허종만의장은 오늘도 총련애국사업에 헌신하고있다.

이역땅의 한 녀성일군에게 베푸신 은정

평양시교외의 신미리에 자리잡은 애국렬사릉에는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상임고문이였던 박정현과 남편인 김상기의 합장묘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총련추모대표단 성원으로 조국에 왔다가 갑자기 심장발작으로 사망한 박정현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의하여 애국렬사릉에 안장되였다.

박정현은 총련결성초기때부터 녀성동맹사업을 해온 총련의 오랜 일군이였다.

그가 총련결성초기의 어려운 형편에서 아들딸 6남매를 고생스럽게 키우면서도 애국의 길에서 탈선없이 고스란히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도꾜도본부 위원장을 거쳐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 상임고문으로 사업해올수 있은것은 그의 애국적열의에 앞서 그를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제일선에 높이 내세워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주체56(1967)년에 벌써 그를 비롯한 7명의 총련일군들을 권위있는 조국의 최고인민회의 제4기 대의원후보자로 추천하고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때에도 총련의장을 위시한 총련대의원들을 조국에 부르시여 존엄있는 국사에 참여하도록 마음을 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최고인민회의가 끝난 후에 온천욕도 하고 가족친척들과 함께 10여일간 금강산유람도 하며 이국풍상에 서린 피로도 마음껏 풀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신 그분들의 지극한 사랑의 체온은 수십년동안 그의 곁에서 순간도 식어본적이 없었다.

조국에서 큰 경사와 국사가 있을 때마다 자주 불러주시고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데도 많은 시간을 내시여 만나주시고 사진도 함께 찍어주시고 오찬도 차려주시면서 귀국한 자식들을 자신께서 맡아 키우겠으니 마음놓고 애국사업을 잘하라고, 건강관리를 잘하여 로당익장하라고 따뜻이 고무해주신 위대한 수령님, 헤여질 때에는 다심한 부모의 심정으로 손자들에게 맛보이라시며 오찬상에 올랐던 과일까지 꾸려서 들려보내주시던 그이이시였다.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것을 숭고한 도덕의리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의 오랜 일군들 특히 박정현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방문의 길에서 생일을 맞는 그를 축하하여 은정어린 생일상도 여러번 차려주시고 귀국한 아들이 받은 새집에서 며칠간 묵으면서 모자간의 정을 나누도록 류별한 은정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고 국가적인 명절때

면 일본에 전화를 걸어 박정현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당부하기도 하시였다.

어느해인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가 매해 한번은 조국을 방문하여 휴식도 하고 치료도 받도록 하라고 교시하시였는데 올해에는 박정현위원장이 조국에 오지 않는가고 하시면서 조국방문길을 따로 마련해주기도 하시였다.

또한 박정현을 총련에서 두번째 로력영웅으로도 내세워주시였다.

박정현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그가 병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방황할 때 더욱 깊어졌다.

1993년 여름 그는 심장병이 발작하여 심장수술을 받게 되였다. 그때 그는 고민이 많았다. 생명을 담보할수 없는 중대수술을 앞에 놓고 정신적번민에 몸부림칠 때 그의 괴로운 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헤아려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맞서 첨예한 대결을 하던 그 엄혹한 시기였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역땅에 있는 그의 신상을 두고 그토록 걱정하시며 극진히 돌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병을 만나 앓는 사람에게 누구보다도 보고싶어지고 힘이 되는것은 혈육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에 사는 맏딸과 둘째아들을 일본으로 보내주시였으며 그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병세도 한결 수그러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그는 수령님께서 안중에 두고 사랑하시는 한사람

이라고 하시며 조국에 있는 맏아들에게 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문안도 전하고 용기도 안겨주라고 간곡하게 이르시였다.

다음해 5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의 한 책임일군을 만나신 석상에서 지난해에 그가 앓는다고 하기때문에 귀국한 아들과 딸을 보내주었는데 몹시 기뻐하면서 힘을 얻어 병을 회복하였으면 잘되였다고 그때를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비통의 눈물이 온 강산을 적시던 그 대국상의 나날에도 박정현은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이끌려 한달씩이나 훌륭한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박정현이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100일 중앙추모회에 참가하고 10월 18일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한 일군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데 대하여 당부하시였다.

주체84(1995)년 7월 8일 저녁이였다.

이날 저녁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진행하는 국가연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인민문화궁전에 갔던 박정현은 갑자기 심장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실려갔다.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친히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주시면서 어떻게 하나 그를 살려내시려고 애를 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권위있는 의사들이 병원으로 모여들어 그를 소생시키기 위한 치료전투를 벌렸다.

그의 병세를 매분, 매 시간마다 알아보시고는 총련의 로간부를 기어이 살려야 한다고 간절히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유능한 의료진을 동원하도록 하시였다. 하지만 그는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심장의 고동을 멈추고야말았다.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격해지는 마음을 금치 못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부르시여 총련녀맹중앙 박정현상임고문이 갑자기 사망한데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조의와 장례와 관련한 여러가지 일들을 자초지종 이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날인 7월 9일 고인의 령구가 안치된 서장구락부를 찾으시였다.

서장구락부는 아침부터 조객들로 붐비였다.

조국의 일군들과 고인의 가족들, 총련일군들이 호상을 서고있었으며 앞마당에는 조국에 와있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겹겹이 서서 조객들을 맞이하고있었다. 온 총련이 떨쳐나 호상을 서는것만 같았다.

서장구락부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인의 령구를 찾으시여 총련의 로전사를 잃으신 비통함을 애써 달래시며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고인의 잠든 얼굴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며 눈가에 맺힌 뜨거운것을 손수건으로 닦으신 그이께서는 고인의 유가족들과 총련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시며 애석함을 달래지 못하

시였다.

그이께서는 고인의 유가족들도 만나시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였고 총련의 한덕수의장, 리진규제1부의장, 허종만책임부의장, 최경식 상공회 회장도 만나시여 비통한 마음을 토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전날 금수산기념궁전 중앙홀에서 박정현상임고문을 마지막으로 만나주시던 그때의 모습을 하나의 화폭처럼 그려보시며 그때를 추억하시였다.

박정현상임고문의 인사를 받으실 때 장군님의 뇌리에는 그의 아들로부터 지난해에 심장발작으로 해서 잘못될번하였다는 말을 들었던 일이 갑자기 떠오르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건강상태부터 물으시였다.

그런데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얼굴을 묻으면서 《장군님, 우리 애들을 잘 돌봐주십시오.》라고 절절히 말씀드리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날에 남긴 박정현상임고문의 말을 상기하시고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박정현상임고문이 그렇게 말한것은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것을 이미 알고 자신께 남긴 유언인것같기도 하다고, 자신께서는 그가 부탁한대로 조국에 있는 그의 자식들을 잘 돌봐주겠다고, 일본에 있는 셋째아들은 총련에서 맡아 잘 돌봐주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유가족들에게는 절대로 상심하지 말고 훌륭한

어머니를 모시고있었다는 긍지감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잘하라고, 자신께서 후에 시간을 내여 만나주겠다고 이르시였다.

유가족들은 자기 어머니를 《훌륭한 어머니》라고 내세우시며 자기들에게 그리도 크나큰 긍지와 용기를 안겨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그 품이 한없이 뜨겁고 그 은정이 하도 고마와 비오듯 흘러내리는 눈물을 쏟으며 그이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이윽고 저으기 갈리신 음성으로 여기에 참석한 총련추모대표단 전체 성원들이 건강하여 총련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하시며 령구곁을 떠나시는 그이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리여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피심속에서 박정현상임고문의 장례식은 엄숙히 치르어졌으며 시신은 애국렬사릉에 안치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곁을 떠나간 이역땅 로전사와 유가족들의 소원까지 헤아리시여 마음을 쓰시였다.

언젠가 박정현상임고문은 일본에서 사망한 남편의 유골을 조국에 묻어달라고 제기한적이 있었다.

조국의 일군들은 그의 부탁을 감감 잊고있었지만 그것을 깊이 새겨두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합장시켜줄것을 바라는 그 소원까지 풀어주시였다.

박정현상임고문의 장례식이 있은지 며칠이 지난 7월 17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이날 또다시 박정현상임고문을 높이 평가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살아있을 때 일본에서 사망한 자기 남편 김상기의 유골을 조국땅에 묻어달라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김상기의 유골을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있는 박정현의 묘에 합장해주도록 해주시였다.

바로 이렇게 되여 신미리애국렬사릉의 묘비에는 박정현상임고문의 이름이 남편인 김상기의 이름과 함께 나란히 새겨지게 되였던것이다.

정녕 망망대해에도 기슭이 있고 끝이 있지만 총련의 로세대를 생각하시는 그이의 혁명적의리와 사랑은 기슭도 끝도 없는 무한한 우주였다.

몸소 결혼식도 차려주시여

주체52(1963)년 3월 1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에서 일하는 한 일군을 조국에 데려올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얼마전에 한 귀국동포처녀를 만나보았는데 일본에서 그 동무와 약혼하였다고 하시며 총련일군이라고 그곳에서 일만 시켜서야 되겠는가고, 그 동무를 데려다가 조국에서 새 가정을 꾸리고 공부도 시켜야 한다고 뜨겁

게 말씀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두달전인 1월 10일 평양대극장에서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귀국공민들에 대한 훈장 및 메달수여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날 그들을 축하해주시려고 현지로 나가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훈식에 참가하였던 한 귀국동포처녀로부터 일본에 있을 때 약혼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였던것이였다.

그리하여 곧 그를 귀국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당시 총련 도꾜도본부 조청위원장으로 사업하고있던 박일만은 어느날 총련중앙에서 자기를 찾는다는 련락을 받게 되였다.

그가 도착하자 여러 책임일군들이 반가이 맞아주며 한덕수의장에게로 데리고 가는것이였다.

방에 들어서자 한덕수의장은 그에게 자리를 권하며 두해전에 귀국한 어머니소식에 대해 이것저것 묻더니 흥분된 어조로 동무를 조국으로 데려와야 하겠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깊은 교시가 계시였다는것을 알려주면서 인차 떠날 차비를 하라고 이르는것이였다.

순간 그는 어리둥절해졌다.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의 배길이 열린 력사적인 그날로부터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길 날을 학수고대하였건만 총련사업때문에 어머니와 약혼녀를 먼저 귀국시키고도 여러해가 지나

도록 아직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고있었던것이였다.

그는 곧 귀국선에 몸을 싣고 일본땅을 떠났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범한 재일동포청년인 자기를 어떻게 아시고 조국으로 불러주시였는가에 대하여 알수 없었다.

귀국선이 조국땅에 닻을 내리고 평양에 도착하여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아담한 아빠트로 안내되여가니 아빠트현관에서 어머니와 약혼녀가 마주 달려나오는것이였다.

어머니는 그의 얼굴이며 잔등을 쓰다듬으며 《아니, 이게 누구냐. …둘째야, 네가 돌아왔구나. …수령님께서 정말 너를 데려오셨구나.》 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손을 잡고 층계를 오르며 약혼녀는 《바로 여기가,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예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셨어요.》 하고 울먹이는것이였다.

그날 밤 어머니와 약혼녀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를 조국으로 불러주신 사연을 알게 된 그는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주체52(1963)년 4월 어느날이였다.

박일만이 귀국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에게 그 동무는 자신께서 데려온 동무이라고, 그 동무는 일본에 있을 때 고생도 많이 하고 총

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투쟁한 동무이라고 하시면서 일본에서 잘 싸우다가 온 동무들인데 결혼식을 잘 차려주자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결혼식상도 잘 차려주고 첫날에 입을 옷과 신발도 주어야 하겠다고, 그들의 결혼식을 대동강호텔에서 하는것이 좋겠다고 친히 결혼식장소까지 정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동무들의 부모와 형제들을 대신하여 결혼식을 잘해주자고 은정깊은 교시를 주시였다.

친부모도 줄수 없는 크나큰 사랑속에서 박일만은 조국에 귀국하여 처음으로 맞이하던 뜻깊은 4월의 명절날에 만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첫날옷을 차려입고 결혼식상앞에 앉은 그들부부는 수령님의 그 은덕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 한생에 두번다시 없는 결혼식날이라는것도 감감 잊고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내여 울기까지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박일만이 조국의 현실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하여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이름난 명승지, 공장과 농촌, 학교를 비롯한 전국각지를 다 돌아보도록 하시고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대학에서 공부하도록 배려해주시였다.

그리고 주체54(1965)년 10월에는 조선로동당창건 20돐을 맞

으며 진행되는 경축행사에도 불러주시였다.

10월 11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집단체조 《혁명의 후비대 만경대의 아들딸》공연이 진행된 직후였다.

박일만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련락을 받게 되였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여서 그는 한동안 어리둥절해있었다.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그는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를 기다리고계시던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박일만동무구만.》라고 하시며 따뜻이 맞아주시였다.

그는 감격에 목이 메여 그만 《수령님!》 하고는 인사도 변변히 올리지 못하고 두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그이의 사랑의 품에 얼굴을 묻고말았다.

어버이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있는 그에게 수령님께서는 동무를 언제부터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오늘에야 이렇게 만나게 되였다고, 정말 반갑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눈물에 젖은 그의 얼굴을 한참동안이나 바라보시다가 동행한 일군들에게 이 동무는 재일본조선청년동맹 도꾜도본부 위원장으로 사업하다가 귀국한 동무이라고 소개하시였다.

과분한 치하를 받고 그는 너무도 황송하여 몸둘바를 몰

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애로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이국살이에 고생이 많았지? 아마 조국이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똑똑히 깨달았을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속마음까지 그리도 깊이 헤아려주시는지 그는 설레이는 마음을 좀처럼 진정할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격정으로 몸둘바를 몰라하는 그에게 오늘 동무를 이렇게 만나니 정말 기쁘다고 하시며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이윽토록 그에게 시선을 보내고계시다가 공부하기 힘들지 않은가고 물으시였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동무가 총련에서 일을 잘한것처럼 앞으로도 당과 혁명에 끝까지 충성다하리라고 믿는다고 말씀하시였다.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긴 그 말씀을 뼈에 새기며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맡은 일을 충직하게 해나갈 마음속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박일만에게 베푸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에는 끝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게 되였을

때에는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그들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따라 배우면서 일하도록 직총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사업하게 해주시는 높은 신임과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고 해마다 설명절을 비롯한 뜻깊은 명절날이 오면 일군들을 그의 집에 보내시여 자신의 인사도 전하고 사랑의 선물도 전달하도록 해주시였다.

이렇듯 총련청년일군이였던 박일만과 그 가족은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식을줄 모르는 열정을 안고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갈수 있었다.

김만유병원에 깃든 사연

오늘 조국의 수도 평양의 문수지구에 우뚝 솟아 수도시민들의 의료봉사활동에 이바지하고있는 김만유병원에는 한 재일동포의학자의 애국충정을 소중히 여기시여 그의 삶을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김만유동포가 조국에 병원을 세우려고 생각한것은 오래전부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평양에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만년대계의 기념비인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일떠세우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해외동포들속에서는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운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그때 김만유동포는 이미 일본에서 초중급학교를 세우는 사업과 과학진흥회를 운영하는데 많은 돈을 제공하였으며 동포청년들에게 직업기술을 배워주기 위한 학교도 설립운영하였지만 경사로운 명절을 맞으며 어쩐지 조국을 위하여 크게 해놓은 일이 없다는 허전한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어느날 조국에서 온 일군에게 자신은 의학자로서 조국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려고 평양에다 병원을 하나 세워보겠다는 의향을 말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애국적인 소행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리하여 김만유동포는 1982년 12월 처음으로 조국방문의 길에 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만유동포가 맵짠 추위도 무릅쓰고 조국을 향하여 떠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조국으로 오는 길에 사소한 애로도 없도록 온갖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숙소도 좋은 곳에 정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리고 그가 병원부지때문에 애로를 느끼고있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일군들에게 병원을 지을 자리를 빨리 잡아줄데 대

하여 구체적인 방향까지 주시였다.

그때 수령님의 거듭되는 보살피심과 기념비적인 건물들이 수없이 일떠서는 조국의 벅찬 현실에 직접 접하게 된 김만유동포는 자기가 구상했던 병원규모가 작다는것을 인정하고 이왕 병원을 건설할바에는 동양에서 제일 크게 지을 결심을 하게 되였다.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는 다른 나라의 병원에도 들려보고 병원의 침대수를 그 나라의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이기로 하고 병원의 의료설비들을 최신설비들로 마련해갔다.

평양에서 병원건설이 활발하게 벌어지던 1984년 가을 김만유동포는 일흔번째 생일을 맞게 되였다.

10남매나 되는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생일상을 잘 차려주겠다고 야단법석이였다.

하지만 김만유동포는 자식들에게 자기 생일은 병원건설이 끝난 다음에 보자고 딱 잘라버렸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만유동포의 일흔번째 생일과 안해의 예순번째 생일을 축하하여 조국에서 대표단까지 무어 파견하시면서 선물도 보내주시였다.

뜻밖에도 이역땅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은정넘친 선물을 받아안은 김만유동포는 그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 분발하였다.

동포의학자의 애국충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병원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온갖 대책을 다 세워주시였다.

병원건설이 마감단계에 이르렀을무렵 김만유동포는 갑자기 중한 병을 만나 두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게 되였다.

하지만 그는 조국으로 가서 병원건설을 마감지어야 하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품고 삼륜차에 실려 비행기에 올랐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수령님께서는 그의 치료에 필요한 대책을 미리 세워주시고 조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김만유동포는 삼륜차를 타고 완공되여가는 웅장한 병원의 자태를 보고 의료설비납입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모두 확정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하해같은 은정과 보살피심에 의하여 마침내 연건평 10만여㎡에 16층의 기본건물을 모체로 하는 3개 호동으로 된 현대적인 병원이 일떠서게 되였다.

병원건설이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병원을 동포의학자의 이름으로 부르게 해주시고 그를 명예원장으로 내세워주시였다. 그리고 김만유동포를 조국에 불러 주체75(1986)년 4월 13일에 개원식을 성대하게 하며 그가 축하연설도 하고 직접 준공테프도 끊도록 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사회주의조국에 참된 애국심을 바친 그에게 영

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주체75(1986)년 4월 14일 친히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공연관람에도 초대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날인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4월 15일에도 김만유동포일행을 불러 경축공연을 함께 관람하시였으며 그 다음날인 4월 16일에 또다시 그들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관앞에까지 나가시여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오늘은 시간을 따로 내였으므로 먼저 기념사진을 찍고 이야기나 나누자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들내외를 량옆에 세우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김만유동포에게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다 토론되였으니 오늘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점심식사나 같이하자고 하시면서 일행을 오찬회장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의 여러 일군들이 참가한 연회장에서 굳이 그들내외를 자신의 곁에 앉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김만유선생이 자신의 생일을 계기로 조국에 훌륭한 병원을 세워준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그와 안해 그리고 맏아들과 일일이 축배잔을 찧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에 놓인 음식을 가리키시며 물고기회를 좋아하는분들은 이 쏘가리회를 맛보라고 하시면서 이

물고기는 찬물에서 자라기때문에 대동강과 압록강에 주로 있는데 잔가시가 없고 맛도 별맛이라고 설명까지 해주시였다.

손수 그들앞에다 음식그릇을 밀어놓기도 하시고 맛나는 음식을 일일이 집어주기도 하시면서 수령님께서는 김만유동포에게 요즘 손님들도 많이 오고 여러가지 행사들이 겹치여 병원개원식에 참가하지 못했는데 이제 손님들이 다 가면 인차 나가보겠다고 하시였다.

너무도 감동된 김만유동포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조국에 병원을 짓기로 결심한것은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자신의 심중을 털어놓으면서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조국에 병원을 세우도록 특전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수령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자신께서 오히려 그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원장선생은 비록 이국땅에서 살고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조국에 두고 자신보다 조국과 민족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조국인민들이 원장선생의 애국적소행을 잊지 않도록하기 위하여 선생이 조국에 선물한 병원을 김만유병원으로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김만유병원에서는 평양시민들뿐 아니라 지방인민들도 치료를 받겠는데 아마 그들이 대단히 좋아할것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조국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한 애국적인 해외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습니다. 조국을 위한 원장선생의 애국적소행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을것입니다.》

분에 넘치는 치하에 감격에 겨워 어쩔바를 몰라하는 그에게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이번에 원장선생이 조국에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선물한것을 보고 70만재일동포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자고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수령님께서는 김만유병원은 현대적인 병원이라고, 침대수가 1 300대나 되며 의료설비들도 다 최신설비들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병원을 잘 관리운영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신의치료와 함께 고려의학치료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화국에 와서 고려의학치료를 받고 몸을 회복한 외국인사들의 경험도 들려주시였다.

그 말씀에 심취되여 음식을 드는것마저 잊고있는 김만유동포를 보신 수령님께서는 말씀을 멈추시더니 그에게 술을 권하시였다.

그가 건강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사양하자 수령님께서는 들쭉술을 가져오게 하시여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누룩대신 길금을 넣어 만들었기때문에 알콜성분이 없으므로 마음

놓고 들라고 하시였다.

육친의 정을 한가슴 가득히 받아안으면서 술잔을 단숨에 비운 그가 술맛이 참 좋다고 말씀드리자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술은 연하고 맛이 좋기때문에 다 좋아한다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음식을 드시면서 조국의 특산인 신덕샘물의 약효와 그 전설도 재미나게 들려주시였다.

오찬이 끝나자 김만유동포는 어버이수령님께 자기 온 가족이 준비한 탄생 74돐을 맞으시는 수령님의 만년장수를 축원하는 축하문과 함께 정원용앞상과 의자를 삼가 선물로 올리면서 이 등나무의자를 사용하시면서 피로를 푸셔달라고 말씀드리였다.

수령님께서는 그와 가족들의 손을 다시금 따뜻이 잡아주시며 고맙다고 사의를 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날에 계속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도 또다시 그들부부를 불러 공연을 함께 관람하시였고 병원개원을 축하하러 온 재일동포들과 일본인교수들을 만나시여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에도 그들을 자신의 곁에 세워주시였다.

그리고 며칠후 그들이 조국을 떠나게 되였을 때에는 인삼과 록용을 비롯한 귀중한 선물까지 안겨주시였다.

김만유동포가 조국에서 뜻깊은 나날을 보내고 일본으로 돌

아간지 얼마 안되던 그해 6월 28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비내리는 궂은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김만유병원을 찾으시였다.

이날 병원의 맨 웃층까지 올라가시여 방들을 일일이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병원을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김만유동포가 조국의 의학발전과 우리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또다시 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지금도 김만유병원에 가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의 애국충정을 길이 빛내여주기 위하여 세우도록 해주신 화강석비에 새겨져있는 다음과 같은 글을 볼수 있다.

《…머나먼 일본땅에 살면서 한시도 조국을 잊지 않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애국지성을 다하고있는 김만유동포의 뜨거운 충성심과 높은 애국적열의와 크나큰 공로를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 비를 세운다.》

정녕 민족의 어버이이신 우리 수령님의 태양의 품에 안기였기에 동포의학자의 삶은 그의 애국충정이 깃든 김만유병원과 더불어 그처럼 빛날수 있었던것이다.

제 2 편

전 국제고통련 위원장에게 돌려주신 사랑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왜놈들에게 빼앗기고 살길을 찾아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중국과 이전 쏘련의 여러 지방으로 이주해갔다.

그들중 쏘련의 원동지방으로 건너갔던 조선사람들은 1937년 쏘련침공을 노린 일제의 교활한 민족리간책동에 의하여 또다시 조국으로부터 수만리 떨어진 중앙아시아지역으로 이주당하게 되였다.

그들은 《일본놈의 개》라는 억울한 루명을 쓰고 유개화차에 짐짝처럼 실려가 불모의 땅에 내동댕이쳐진 후 황무지와 갈밭을 피땀으로 개간하며 억척스럽게 삶을 이어갔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조국을 떠날 때의 세대들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점차 옛말로 되고말았으며 거기에서 태여난 세대들속에서는 조선말도 모르고 본적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륭성하는 조국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사람들속에서 널리 전해짐에 따라 점차 그들은 자신들도 조선사람이라는 긍지를 가지게 되였으

며 동시에 민족이 겪고있는 재난과 비극도 체험하게 되였다.

이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조선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민족분렬의 고통을 가시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이들중에는 이전 쏘련시기에 우즈베끼스딴공화국의 건설관리국 기사장으로, 쏘련내각직속 중앙아시아농업 및 처녀지개간성 제1부상으로 30여년간 일해온 강일선생도 있었다.

식민지망국민의 후손으로 원동지방에서 태여나 오래동안 자기의 뿌리도 잊고 민족과 동떨어져 남을 위해 일해오던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야 누구에게나 친어머니가 하나이듯이 오직 하나의 조국만이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으며 분렬된 우리 겨레의 고통을 알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늦게나마 여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바칠것을 결심하고 조선동포조직결성을 위한 사업에 결연히 나섰다.

강일선생을 비롯한 동포인사들은 동포들의 민족적권리를 고수하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조직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시켜 1989년말 이전 쏘련의 우즈베끼스딴공화국 따슈껜뜨에서 쏘련조선통일촉진위원회(1993년에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로 명칭 변경)를 결성하였다.

쏘련조선통일촉진위원회는 이전 쏘련지역에서 사는 조선동포들이 민족의 넋을 간직하고 살아나가도록 하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활동하는것을 기본임무로 내세웠다.

주체79(1990)년 4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조국에 온 재쏘조선인축하단을 친히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통일촉진위원회의 강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포인사들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되였다.

재쏘조선인축하단을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쏘조선인들이 쏘련조선통일촉진위원회를 조직한데 대하여 축하해주시면서 재쏘조선인들이 쏘련땅에서 조선통일촉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번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6개나 되는 재쏘조선인예술단이 참가했는데 이것은 결코 적지 않은것이라고, 쏘련조선통일촉진위원회 본부를 조선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우즈베끼스딴가맹공화국의 수도 따슈껜뜨에 둔것도 아주 잘한 일이라고 치하해주시면서 모두가 조직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사람의 넋을 지켜가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리라는 믿음도 안겨주시였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축하단성원들을 위해 오찬까지 마련해주시면서 어버이의 따뜻한 정을 가슴가득 안겨주시였다.

갓 시작을 뗀데 불과한 통일촉진위원회사업에 대해 축하해주시고 고무를 주시는 절세의 위인의 은정깊은 사랑에 축하

단성원들은 뜨거운것을 삼켰다.

그해에 조국에서 진행되는 8.15범민족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전 쏘련을 비롯한 해외의 여러 지역에서 온 동포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의 뜨거운 열망을 안고 조국에 온 여러분은 해외에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해온 애국자들이라고,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조선사람은 누구나 다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하며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고무의 말씀을 전달받은 강일선생을 비롯한 동포인사들은 백배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체적인 교포조직의 강화발전에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였다.

자나깨나 절세의 위인들께서 계시는 조국의 품을 그리며 통일애국위업에 헌신하던 강일선생은 주체81(1992)년 10월 조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구면친지를 맞이하듯 강일선생부부를 반겨맞아주시였다. 그이의 환하신 영상과 따뜻한 미소, 너그러운 인품, 구수하게 하시는 말씀은 얼음장을 녹이는 봄빛과도 같이 따사로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일선생에게 이역땅에서 살고있는 동

포들을 묶어세워 조국통일운동을 벌려나가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 그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조선사람은 조선을 위한 애국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통일촉진위원회가 나아갈 앞길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들부부를 위해 오찬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감자국수를 권하시며 그 유래와 가공방법에 이르기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였다.

민족의 정취를 자아내는 별식을 맛보게 하여 이국풍상에 서린 피로를 풀어주시려 자별한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오찬의 그 좌석은 해외에서 애틋한 정을 모르고 살아온 그가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에 안긴 행복감을 가슴뿌듯이 체험한 평생 잊을수 없는 자리였다.

영광의 그날 강일선생은 위대한 수령님께 완전히 매혹되였다.

바다를 향해 도도히 굽이치는 대하, 이 거세찬 흐름도 수억만개의 물방울로 이루어져있다. 헤아릴수 없는 그 물방울이 모여 내를 이루고 내물이 합쳐져 강물의 도도한 흐름을 이루는것이다.

그런데 남의 나라의 강물에 합쳐지던 작은 물방울, 이것이 바로 어제날의 자신이였다.

하지만 그는 희세의 위인의 사랑의 품에 안김으로써 도도히 흐르는 조국의 대하에 합류되여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한 통일애국의 바다로 굽이쳐 흘러가고있는것이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구원해주시고 통일애국의 길에서 보람있는 삶을 빛내이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은총에 보답하기 위해 밤잠도 잊고 일함으로써 동포조직을 강화하고 동포사회의 단합을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해 6월 조국을 방문한 강일선생부부를 또다시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시 만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반가와하시면서 동무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와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에서 사는 동포들과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조국통일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고 고무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부부를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오찬도 베풀어주시였다.

동포들속에서 조선말을 배우기 위한 사업을 벌리고있는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치하해주신 다음 그의 가정형편에 대하여 물으신 수령님께서는 아들, 손자는 없고 딸들과 외손녀들만 있다는것을 아시고 딸들을 키우는 재미가 있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며 음식들을 권하시였다.

강일선생은 《저희들은 지금 그립던 본가집에 찾아와

친아버님을 모신 심정입니다. 주석님께 최대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진정을 담아 말씀드렸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해외동포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본가집, 큰집이라고, 해마다 한번씩 조국에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며 자신의 존함이 모셔진 금시계를 그들부부의 손목에 직접 채워주시였다.

그때 강일선생부부는 한생을 남의 땅에서 살면서 이제껏 그 누구한테서도 받아보지 못한 정을 절세의 위인으로부터 받아안고 더없는 행복감에 북받쳐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강일선생은 어찌하여 우리 민족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어버이라고 부르며 그이의 넓은 품에 달려와 안기는가를 자신의 산 체험으로, 폐부로 절감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통일애국의 길에서 전심전력을 바쳐가는 강일선생을 아끼시고 위해주시며 세월과 더불어 더욱 깊어지는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였다.

1991년은 그가 예순번째 생일을 맞는 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0(1991)년 11월 강일선생부부에게 생일선물을 보내주시였다.

수만리 하늘길에 실려와 안겨진 선물을 쓰다듬으며 그는 장군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너무도 고마와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사실상 그로 말하면 조국건설에 흙 한삽, 벽돌 한장 보태

지 못한 처지였다.

다시 산다면 과거를 되풀이하지는 않을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만약 자기의 뿌리에 대하여, 민족에 대하여 좀더 일찌기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자책속에 늦게나마 애국애족의 한길로 달음박질쳐온 그였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민족적 량심과 애국의 열정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고 생일선물까지 보내주시였으니 그이의 사랑은 정녕 온 민족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친어버이사랑이였다.

따슈겐뜨시의 금강식당에서 있은 그의 생일축하연에 참가한 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신 은덕에 더없이 감격해마지 않았다.

그들은 국사에 다망하신 속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살고있는 해외동포들까지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각근히 보살펴주시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통일위업실현에 나선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그에게 조국통일상수상자의 영광을 안겨주시였으며 외손녀에게 조국의 말과 글을 배워주고싶어하는 그의 소원을 헤아리시여 김형직사범대학 어문학부에서 공부하도록 배려를 돌려주시고 육친의 사랑으로 돌봐주시였다.

애국의 열정을 안고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사업을 활기있게 벌려나가던 강일선생은 1995년 11월 어느날 심장병이 재발하

여 병원에 실려가게 되였다.

원래 그는 10여년전에 1차 심근경색을 경과하였으며 그후에도 때때로 협심증발작을 일으켜 주변에서는 그를 두고 《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가 심장병으로 입원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병상태와 치료정형을 료해하시고 긴급대책을 세워 어떻게 하나 강일위원장의 건강을 회복시켜야 하겠다고, 자신께서는 강일위원장이 신념과 의지가 강하기때문에 병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 건강을 회복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무격려의 말씀을 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비행기를 띄워 사향을 비롯한 보약재들을 보내며 권위있는 심장전문의사들을 인입시켜 그를 소생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가 입원하였던 모스크바 심장전문병원 의사들은 이역의 해외동포에게까지 값진 약재들을 보내주어 환생의 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동포애와 의리에 탄복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5(1996)년 9월에 강일선생이 심장발작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도 특별치료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강일선생은 통일애국의 뜻은 지녔으나 조국과 민족앞에 별로 해놓은 일이 없는 자신에게 주실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주시고 소생의 기쁨까지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고 가슴가득 넘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평양행비행기시간과 렬차시간을 수첩에 적어넣고 영광의 그날을 고대하고있었다.

그러던 강일선생은 1996년 12월 13일 고질적인 심근경색으로 끝내 사무실에서 심장의 고동을 멈추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보를 받으시고 아까운 사람을 잃었다고 못내 애석해하시며 조의대표단을 급히 파견하여 장의식을 현지에서도 크게 하고 조국에서도 영결식을 크게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그가 세상을 떠난것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장의식과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고도 추도회장에 친히 화환을 보내주시였다.

추도회참가자들은 한 해외동포인사에게 온갖 육친적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정과 의리에 감복하여 뜨거운것으로 눈굽을 적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강일위원장은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수령을 열렬히 흠모하였으며 조국을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였다고 그를 추억하시였다.

오늘도 사람들은 강일선생의 한생을 돌이켜보며 위대한 태양의 품이 있어, 진정한 조국이 있어 그의 삶이 영생하고 있다는것을 재삼 절감하고있다.

이름도 새로 지어주시며

주체79(1990)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의 분렬비극의 상징이며 축도이기도 한 판문점에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1차 범민족대회가 민족공동의 력사적인 회합으로 대성황리에 열리였다.

이 대회에는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북과 남, 해외동포대표 수백여명이 참가하였다.

분렬과 매국, 파쑈세력들과의 간고한 투쟁끝에 모처럼 마련된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인사들의 대회합인 범민족대회가 열리는 판문점은 아침부터 통일열기로 끓어번졌다.

가슴과 머리에 구호띠를 두르고 백두—한나대행진에 이어 판문점에 이른 대회참가자들은 구호를 웨치고 노래를 부르며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사회자의 개회사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고통련의 대표로 참가한 한 녀성이 연탁에 나섰다.

《여러분!

저는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피흘려 싸운 공화국영웅 안동수의 안해입니다.

저의 남편이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도 그려보았고 이 땅의 수많은 유명무명의 영웅들과 인민들이 쓰러지며 숨지며 그토록 절절히 갈망해온 우리 조국의 통일은 아직 이 저주로운 분계선철책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 판문점 남쪽대밑에 만리장성처럼 쌓아진 콩크리트장벽은 과연 누구의 소산이며 무엇을 뜻하는것입니까?》

이렇게 허두를 뗀 그의 열기띤 토론은 불기운을 들씌우는듯한 8월의 무더위속에서도 분렬의 장본인들을 규탄하는 차디찬 랭혹의 비수가 되여 청중의 심장을 울리였다.

토론을 마치면서 그는 두손을 들어 호소하였다.

《여러분!

우리 배달민족은 수수천년 하나의 강토에서 자자손손 화목하게 살아온 하나의 민족입니다. 이 땅도 백두로부터 한나까지 면면히 하나로 이어진 하나의 강토입니다.

조선은 하나입니다.

민족도 하나, 강토도 하나, 결코 더는 헤여져 살수 없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촌 그 어디에 살든 민족의 한 성원된 시대적사명감을 간직하고 사상과 리념을 뛰여넘어 나라의 통일성업에 이바지합시다.

그리하여 이 땅우에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웁시다.

우리의 통일된 부흥조국을 천하가 부럽도록 세계만방에 높이 올려세웁시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 만세!

민족의 대단결 만세!》

장내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흥분된 마음을 안고 참가자들을 둘러보는 그의 눈에는 맑은 이슬이 고여올랐다.

그의 이름은 정일심, 조국해방전쟁초시기인 1950년 7월 6일 경기도의 오산계선에서 진행된 미군선견부대와의 전투에서 땅크를 타고 수백명의 적들을 소멸하고 희생된 조선인민군 제105땅크사단 문화부사단장이였던 안동수 공화국영웅의 미망인이였다.

젊은 시절 농촌꼴호즈의 부기원으로밖에 일한적 없는 평범한 이 녀성이 오늘은 이렇듯 전 민족적인 대회합장의 연단에서 조국통일을 호소하는 연설까지 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었다.

그는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어렸을적에 고향을 떠나 머나먼 따슈껜뜨로 이주해오면서 부모들이 붙여준 정 이리나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의 부양을 받으며 평범하게 살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동수영웅의 유가족을 조국으로 불러주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하여 영웅의 유가족들은 안동수영웅이 전사한 7월 6일

을 맞으며 조국을 방문하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몇해가 지난 주체78(1989)년 9월 다시 조국을 방문한 안동수영웅의 유가족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쏘련에 가실 때마다 안동수동무의 유가족들을 찾고싶은 생각이 많았다고, 그러나 일이 바쁘다보니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나는 안동수동무가 전사한 후 부인이 혼자서 고생하면서 아들딸들을 잘 키운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두해도 아니고 40여년동안이나 그것도 구라파사람들속에서 재가를 하지 않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산다는것이 헐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자 그는 남편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여주시고 어려웠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아이들을 위하여 보조금을 보내주시여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편이 전사한 후 재가하지 않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것을 그저 녀성들의 품성상문제로만 볼수 없다고, 먼저 간 남편의 뜻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어 그들이 혁명의 대를 이어나가게 하려는 높은 혁명정신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동수영웅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영웅의 아들딸들에게 아버지의 혁명정신을 계승하여

훌륭한 애국자, 공산주의자가 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앞으로 조국에 자주 오라고, 그래야 조국을 더 잘 알게 되고 훌륭한 조국을 가지고 있는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장마철이나 추운 겨울에 오지 말고 날씨가 좋은 봄이나 가을에 오는것이 좋다고, 지금 해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이 조국에 많이 오고있다고 하시였다.

조선사람은 세계에 가있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고, 올해 봄에 자신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 예술단들이 왔는데 다른 나라에서 사는 조선사람들도 예술단을 무어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안색이 갑자기 흐려지시였다.

한동안 사이를 두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때 미국과 일본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이 많이 왔댔는데 쏘련에서 사는 조선사람들만 이름을 쏘련식으로 고치고 옷도 조선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지난날 조선을 강점한 일제가 조선사람들의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요한데 대하여 가슴아프게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사람들처럼 나라를 잃고 고생한 민족은 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부인과 자식들의 이름도 조선이름으로 고쳐지어야 하겠다고, 쏘련에 가서는 쏘련이름을 쓰

더라도 조국에 와서는 조선이름을 부르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 알겠습니다. 수령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면 오늘부터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부인이 이렇게 말씀올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인의 이름은 한 일자에 마음 심자를 써서 정일심이라고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부인의 이름을 일심이라고 짓자고 하는것은 부인이 자기 조국과 수령을 위하여 그리고 안동수동무의 아들딸들을 위하여 일편단심 변함없이 살아왔기때문입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는 무엇이라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그저 감격의 눈물만 흘리고있는데 아들이 벌떡 일어서더니 《위대한 수령님, 어머니의 이름이 정말 좋습니다. 저와 누이들의 이름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들의 이름은 묘향산에서 만났다는 뜻에서 안향산이라고, 맏딸은 향산이라는 향자와 목란이라는데서 란자를 따서 향란이라고, 둘째딸의 이름은 진달래꽃이라는데서 진자를 따서 향진이라고 짓자고 말씀하시였다.

정일심, 안향산, 안향란, 안향진…

정일심은 자신과 아들딸들의 새 이름을 다시한번 불러보며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그이앞에 나섰다.

자식들도 어머니의 옆에 나란히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영원히 조선사람으로 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였습니다.

저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존경하는 아버지로 모시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인사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손들을 다시금 뜨겁게 잡아주시며 안동수동무의 유가족들이 비록 다른 나라에서 살고있지만 안동수동무처럼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믿음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9월 23일과 24일 이틀간에 걸쳐 안동수영웅의 유가족들을 만나주시면서 만찬도 베풀어주시고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금시계와 옷감, 인삼을 비롯한 여러가지 귀중한 선물도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그들이 묘향산에 머무르는 동안 안동수영웅이 살아있을 당시 105땅크사단의 사단장이였던 항일혁명투사 류경수동지의 부인인 항일혁명투사 황순희동지와의 상봉도 마련해주시였다.

정일심동포와 그의 자식들을 만나신 다음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전화로 부르시여 애국렬사릉에 안동수영웅의 비석을 세워줄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안동수영웅의 가족들이 떠나기 전에 애국렬사릉에 비석을 세워주고 거기에 가족들도 데리고 가서 조의를 표시하도록 하여

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안동수영웅의 가족들이 애국렬사릉에 가는 날 관계기관들에서도 화환을 가지고 가서 조의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다시 두번, 세번 전화를 거시여 이 문제를 재삼 강조하시면서 비석에는 공화국영웅이라고 밝혀야 한다는것과 조의식에 참가할 일군들과 조의식이 끝난 후 동석식사를 조직하는 문제까지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운지 이틀만에 애국렬사릉에 안동수영웅의 묘비가 세워지게 되였다.

묘비제막식에 참가한 정일심동포는 격정을 금할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남편의 묘지가 평양에 있었더라면 조국에 자주 왔을것이였다고 말씀드린것이 엊그제였는데 벌써 이렇게…

모스크바로 돌아간 정일심동포는 자식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부하신대로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 나섰으며 이렇듯 범민족대회의 토론연단에까지 서게 된것이였다.

토론을 마치고 연단을 내린 그는 범민족대회의 여러 행사들이 끝날 때까지도 줄곧 흥분된 마음을 걷잡지 못하였다.

범민족대회의 전 과정을 TV로 시청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 범민족대회가 잘되였다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일심동포가 토론을 아주 잘했다고 하시면서 대회에 참가한 각 지역별대표들을 집체적으로 만나주려고 하는데 안동수의 부인을 접견행사에 더 참가시키도록 하라고 일군들에게 이르시였다.

그리하여 정일심동포는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지역별대표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1년 8월 제2차 범민족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왔던 정일심동포는 갑자기 안면신경마비로 치료를 받게 되였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그를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와 같이 환하신 얼굴로 그의 손목을 잡아주시면서 안면에 신경마비가 왔다는데 증세는 어떤가고 따뜻이 물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꼭 병을 고치고 돌아가야겠다고 하시면서 병원이나 료양소 같은데 가서 치료받도록 하라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모스크바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정일심동무가 조국에 와서 살고싶으면 와살라고, 배치장도 좋은 곳에 떼주겠다고 하시였다.

하지만 그는 신경마비로 말을 제대로 할수 없어 그이께 속시원한 대답을 드릴수 없었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일심동포가 큰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고급약재와 식사보장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그의 건강상태를 알아보시면서 앞으로 그가 모스크바에 돌아가서도 계속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사랑의 넓은 바다속에서 날과 달이 흘러갔다.

8월의 잎새 무성하던 병원정원의 나무아지에 붉은 단풍지는 가을이 오더니 어느새 락엽의 계절도 지나가고 눈꽃날리는 겨울이 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름옷차림으로 조국에 온 정일심동포에게 가을에는 가을옷, 겨울에는 겨울옷과 외투 그리고 속내의에 이르기까지 철따라 옷까지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몇달동안에 걸쳐 병을 말끔히 치료하고 퇴원한 그를 만나시고 오찬을 베풀어주시였다.

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따뜻이 물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년에 한번씩 조국을 방문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래년 9월 14일(음력)이 생일 일흔돐이 되는 날이면 자신께서 일흔돐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주체81

(1992)년 9월 평양에 와서 병원치료를 받고있던 그에게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주체82(1993)년에 정일심동포가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 또다시 오찬회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일심동무를 만나니 매우 기쁘다고, 자신께서는 정일심동무가 조국에 왔다는 말을 듣고 너무 반가와 다른 일을 미루고 오늘 동무를 만나기로 하였다고 하시면서 정일심동포와 아들인 안향산이 자신과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열성을 내여 일하고있다고 그들의 수고를 치하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조국에 와서 병치료를 받으라고, 나이도 많은데 조국에 오면 자기 집에 온것처럼 생각하고 한 여섯달씩 놀다가 가라고,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보고싶으니 다음해 4.15때에 그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하시였다.

정일심동포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대로 주체83(1994)년 4월 수령님의 탄생 82돐을 앞두고 아들과 딸,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앞세우고 평양에 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4월 11일 그들을 만나시여 은정어린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고 오찬회도 마련해주시였다.

오찬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동수동무를 추모하여, 정일심동무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자고 하시면서 어서 많이 들라고, 오늘 정일심동무가족을 위하여 쟁반국수를 준비하였는데 많이 들어야 하겠다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오랜 시간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일심동무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해마다 조국에 오면 자신께서 친히 만나주시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신 후 매해 조국에 와서 치료도 하고 백두산과 금강산을 비롯한 경치좋은 명승지들을 돌아보면서 마음껏 휴식하라고 재삼 이르시였다.

《어버이수령님!

수령님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년에도 오고 래후년에도 조국에 와서 수령님을 만나뵙고 경치좋은 곳에서 휴식도 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더없이 만족해하시였다.

그런데 이날이 위대한 수령님을 마지막으로 만나뵈온 날이 될줄 어이 알았으랴!

그들이 조국을 떠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주체83(1994)년 7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안동수영웅유가족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던 사랑을 그대로 이어주시였다.

어느해 4월 정일심동포가 아들 향산과 함께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였다.

어느날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향산의 생일상을 받아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 만나뵈웠을 때 아들 향산의 생일이 자신의 탄생일과 같은 4월 15일이라는것을 아시고 자신의 생신날마다 향산을 생각하겠다고 하신 수령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듯 생일상까지 차려주신것이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던 그의 안면신경마비와 심장병을 해마다 현대적인 병원에서 치료받아 말끔히 고치도록 해주시였고 유능한 고려의학치료진을 모스크바에까지 주재시키면서 일반성인병과 로환으로 올수 있는 여러가지 질병들도 미리막을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리고 1997년에 조국을 방문한 그가 속이 불편해한다는것을 아시고 떠날 차비를 서두르고있던 그를 다시 병원에 보내시여 종합검진을 받도록 하시였다.

검진결과 본인으로서도 전혀 모르고있던 위암증세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그는 난치의 병을 제때에 치료하여 깨끗이 없앨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9월 공화국창건 50돐을 맞으며 조국을 방문한 정일심동포에게 희귀한 산삼을 선물로 보내주시였으며 그가 조국을 떠나는 날에는 비행기의 리륙시간까지 연장시켜 자신께서 선물로 받으신 남방과일을

선물로 주시였다.

그후에도 정일심동포의 조국방문은 계속되였는데 그때마다 장군님께서는 국사를 돌보시는 분망하신 속에서도 그와 가족들의 건강문제로부터 해외에서의 생활형편, 조국체류일정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자상히 알아보시며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정일심동포에게 새해를 맞으며 친히 보내주신 년하장들과 그가 여든번째 생일을 쇨 때 배려하여주신 생일상에도 몸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바라시는 그이의 다심하고 각근한 어버이의 사랑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이후에도 정일심동포의 조국방문길은 끊기지 않았으니 주체107(2018)년 8월에도 그는 90을 훨씬 넘긴 고령의 몸으로 조국을 방문하여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주체109(2020)년 4월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난 정일심동포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고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시여 조전을 보내시였다.

그의 자식들은 절세의 위인들께서 자기들의 가정에 베풀어주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잊지 않고 몸은 비록 이역땅에 살아도 조국통일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고있다.

통일의 원로, 선각자로 내세워주시여

1992년 4월 재미동포 림창영선생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이미전 여러 차례 조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사람이였다.

1909년 10월 황해남도 은률에서 태여난 그는 평양숭실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3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을 졸업하고 도산 안창호의 국민회에 가입하여 항일에 열을 올리였다. 해방후에는 남조선에 돌아와 미군정장관 하지의 고문인 서재필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참여하였다.

5.16군사쿠데타당시 유엔대사직을 맡고있던 그는 《군사<정부>의 정당성을 유엔에 알리라.》는 지시를 단연 거부하고 대사직을 사임하였다. 또한 미국무성과 국회에 《박정희쿠데타<정권>을 지지해서는 안된다.》고 청원하였으며 《워싱톤 포스트》 등 신문에 그와 같은 내용의 기고도 하고 백악관앞에서 시위도 벌렸다.

《유신》철폐, 민주화를 부르짖던 림창영선생은 1970년대에 이르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받아안고 동포들의 앞장에 서서 조국통일운동을 벌려나갔다.

이국땅에서 조국통일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바치고있는 그

의 소행을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림창영선생을 조국에 불러 여러 차례 만나주시고 선생이 미국의 정계와 학계, 종교계, 언론계인사들과 친교관계를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자신께서는 달리 생각하지 않는다고, 조국통일의 지지세력을 늘이기 위하여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있는것은 애국적인 활동으로 된다고 크나큰 믿음과 고무의 말씀도 하여주시였다.

그리고 조국통일상수상자대렬에도 세워주시고 여러 차례 귀중한 선물도 안겨주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영예를 간직하고 통일애국의 길에서 여생을 바쳐가고있던 림창영선생이였다. …

평양에 도착한 그는 4월 22일 부인과 함께 그토록 그리며 흠모하여마지 않던 위대한 수령님을 또다시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치 죽마고우를 만나신듯 림창영선생을 뜨겁게 포옹해주시며 소박한 음식상으로 그들부부를 다정히 이끄시였다.

거기에는 언감자국수를 비롯한 별식들이 차려져있었다.

림창영선생은 흥분된 마음을 다잡고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인사를 올리면서 수령님께서 국사로 다망하신 속에서도 이처럼 시간을 내시여 만나주시고 훌륭한 음식까지 차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림창영선생의 건강을 위해 잔을 들자고 하시며 잔을 비우시고는 그의 안색을 주의깊게 살피시며 아픈데가 있으면 꼭 말해야 한다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부부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어느덧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한식솔과도 같은 오늘의 이 모습이 통일조국의 모습으로 될 그날이 꼭 오리라는 확신을 가다듬으며 림창영선생은 수령님께 진정어린 목소리로 민족을 위하여 80평생 고생만 하신 주석님께서 통일조국에서 락을 보시며 무궁장생하셔야 한다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없는 경모심으로 울먹이는 그를 진정시켜주시며 림선생은 83살이고 리녀사의 나이도 적지 않은데 우리모두 건강해서 통일에 전심하자고 굳은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이날 림창영부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도 지니게 되였다.

미국으로 돌아간 림창영선생은 교포들속에서 공화국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을 널리 선전하는데 열정을 기울이였다.

그러던중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를 만나시여 대결국면의 정세를 완화에로 방향전환해주신 사실이며 이어 곧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회담도 열리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들을 접하게 되였다. 그날 림창영선생은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온 순간인가.

그는 이런 기쁜 날을 보자고 고목의 인생이 여직 죽지 않고있다는 생각에 하느님께 감사라도 드리고싶은 심정이였다.

회담이 열릴 7월 25일이 가까와올수록 사람들은 요즘의 하루하루는 기쁨속에서 물흐르듯 지난다 했건만 그에게는 왜서인지 하루가 자기 인생의 10년, 20년보다도 더디게 흐르는것만 같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에 웃음을 지어담고 이제사 북과 남이 신랑신부가 되여 통일잔치를 차리게 되였다고, 그때엔 이국살이에 골병든 우리 교포들도 모두 함께 고국땅에 가서 마음껏 덩실덩실 춤을 추어보자고 말들을 하였다.

만리타향에 와서도 제 고장의 사투리를 재산처럼 간직하며 회향병에 시달려온 그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당장 통일이라도 된 기분이였다.

그런데 이 무슨 청천벽력인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갑자기 서거하셨다니…

림창영선생은 수령님의 서거비보에 너무도 놀라 온몸이 전기에라도 감전된듯하였다.

참을래야 참을수 없는 비통감으로 하여 몸이 떨리였다.

그러다가 금시 얼굴이 벌겋게 충혈되였고 실신하여 아무

말도 못했다.

《아! 불행한 민족이여…》

림창영선생은 통일의 서막이 열릴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며칠 앞두고 수령님께서 급서하신것이 못내 슬프고 금시 뼈가 부스러지는듯하였다.

그는 비통하고 절통한 마음을 달랠길 없어 뉴욕에 있는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를 찾아 조의를 표한 다음 조의록에 글을 남기였다.

그는 이날에 수령님의 초상화를 오래도록 우러르며 한평생 이 겨레를 위해 너무도 많은 고생을 겪으시고 너무도 많은 업적을 쌓으신 수령님을 깊이 추모하였다.

림창영선생은 그후 로환과 병마가 육신을 파고드는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유지를 가슴속 깊은 곳에 새기고 꿋꿋이 일해나갔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전심하는 림창영선생의 애국적인 활동에 감복된 해외동포들은 1995년 11월 그를 범민련 해외본부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는 그해 12월 또다시 조국으로 향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고령의 몸으로 조국방문길에 오른 그를 념려하시여 베이징에 비행기를 보내여 맞이하도록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어린 비행기를 타고 조국으로 향한 림

창영선생은 몇해전 조국을 방문했을 때 위대한 장군님을 처음 만나뵙던 그때를 돌이켜보았다.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림창영선생에게로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년로한 몸으로 먼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겠다고, 선생님과 같은분들이야말로 해외조국통일운동의 원로이고 선각자라고 하시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조국통일보다 더한 국사가 어디에 있겠는가고, 7천만겨레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앞에서는 모두가 심신을 바칠줄 아는 전사가 되여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성대한 환영연회도 마련해주시고 가족, 친척들과 만나 즐겁게 지낼수 있도록 해주시였으며 그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유능한 의료진의 치료를 받도록 세심한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는 조국의 여러곳을 참관하고 보고 듣는 과정에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해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요설을 퍼뜨려도 그것은 진리이고 생명이라는것,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는것을 속일수도 묻어버릴수도 없다는것을 깊이 느끼게 되였던것이였다. …

이윽고 평양에 도착한 림창영선생은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을 찾아 수령님의 령전에서 그이의 조국통일유훈을 지켜갈

결의를 다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슬픔에 잠겨있는 림창영선생에게 위로의 말씀도 보내주시였으며 그가 이역땅에 살아도 애국의 넋과 의지를 변치 말라고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이 어린 단군릉도 참관하고 전설무용극 《봉선화》도 관람하도록 관심을 돌려주시였으며 은차그릇조와 은수저를 선물로 보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수령님의 사랑그대로 민족적 량심을 지니고 통일애국에 사는 온 겨레를 따뜻이 안아주고 보살펴주시는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이라는것을 림창영선생은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그는 장군님께서 선물로 안겨주신 은수저의 은빛처럼 변함없이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관철에 미력이나마 기꺼이 바칠 굳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통일성업에 헌신하던 림창영선생은 병환끝에 1996년 1월 25일 《장례는 교회에서 가족장으로 간소하게 치를것이며 유해는 화장해 조국이 통일된 후 조국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비보에 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외조국통일운동의 원로들이 떠나가는것이 못내 가슴아프다고 하시면서 림선생을 가족장만으로는 안된다고, 조국에서 추도회를 크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화환까지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림창영선생에게 베풀어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가 세상을 떠난지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의 이름은 통일의 원로, 선각자로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다.

재미동포녀류기자에게 베푸신 은총

주체83(1994)년 4월 어느날 베이징을 떠나 평양을 향해 날고있는 려객기에는 탄생 82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축원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평양을 찾아오는 많은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타고있었다.

그들중에는 재미동포녀류기자인 문명자도 있었다.

기창옆에 말없이 앉아 발밑으로 흘러가는 대지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뵙고 그이의 인품에 매혹되던 때의 일이 돌이켜졌다.

문명자동포는 수십여년의 기자생활과정에 세계 안가본데가 없다싶이 종횡무진으로 내달려왔다.

조국과 이웃인 중국만 해도 몇차례나 오갔으며 등소평을 비롯한 이 나라의 거물급인물들도 여러번 만나 취재한 그였다.

하지만 분명 고국땅의 한 부분이 틀림없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해서만은 외면해왔었다.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편견때문이였다.

공화국에 대하여 외곡된 보도가 란무하는 미국땅에서 제대로 된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려올리 만무하였던것이다.

그러던 문명자동포는 언제부터인가 공화국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적지 않은 해외동포들이 고향방문과 통일방도를 의논하기 위해 평양을 다녀왔다.

그들은 평양방문기간 받은 소감에 대하여 그리고 공화국의 현실에 대하여 동포들에게 말해주기도 하고 출판물에 싣기도 하였다.

처음 문명자동포는 수십년만에 고향을 다녀온 사람들이니 그렇게 말할수 있을것이라고 흘려보내군 하였다.

그러나 림창영이나 최덕신, 최홍희와 같은 해외의 유명인사들, 고향을 남조선에 둔 동포들이 공화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낸 글들을 보고는 머리를 기웃거리게 되였다.

더우기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처럼 북조선에서도 붉은기가 내리워질것이라던 서방언론들의 《예평》과는 달리 끄떡없이 서있는 공화국정권은 그에게 있어서 풀수 없는 하나의 수수께끼였다.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글을 쓰지 않는것이 문명자의 특질이였다.

그는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대로 그곳

에 가서 자기 눈으로 모든것을 확인하고싶은 마음속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1992년 4월 처음으로 평양방문길에 올랐다.

평양에 도착하여 여러곳을 돌아보는 과정에 그는 공화국이 제국주의세력의 고립압살속에서도 아주 신심에 넘쳐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모든것을 자기식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있다는것을 강하게 느낄수 있었다.

식당간판을 하나 달아도 옥류관, 청류관이라고 고유한 조선말로 붙이고 인민대학습당, 평양대극장, 주체사상탑, 개선문, 창광거리, 문수거리를 비롯하여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거리를 하나 일떠세워도 자기식으로 건설하고있다.

그런데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순박하고 거짓을 몰랐다. 비록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화려하고 번쩍거리는것은 많지 않아도 누구나 고르롭고 평등했으며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순박했다.

이것이 왜 내 가슴을 이리도 크게 울리는것일가?

나는 지금껏 나름대로 사회의 온갖 불의에 도전하여 정의의 필봉을 들고 싸워왔다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불의는 어디나 독버섯처럼 돋아나있었으며 사람들을 괴롭히고있다.

그것은 어제도 그러했으며 오늘도 그러했고 래일도 그러할것이다.

그러나 여기 북에서는 신기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건전

하고 순박하면서도 자부심에 넘쳐 살아가고있었던것이다.

문명자는 주체81(1992)년 4월 26일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당시 그이께서는 자신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외국의 여러 국가수반들과 대표단들, 해외동포들과의 사업으로 분망한 시간을 보내고계시였으나 그 바쁘신 속에서도 해외동포언론인인 문명자를 만나시여 오찬도 함께 하시며 그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기탄없이 이야기해주시였다.

문명자는 미국에 돌아와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받은 충격을 잊을수가 없었다.

하여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운데 대하여서와 자기가 공화국을 방문하고 받은 소감을 출판물에 발표했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그이의 고매한 애족애민의 숭고한 풍모에 깊이 감동한 자기의 심정을 사실그대로 진실하게 서술한 글은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

문명자가 이런 상념에서 깨여나보니 비행기는 어느덧 평양국제비행장을 가까이하고있었다.

그는 2년전과 마찬가지로 공화국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그럴수록 무엇인가 뇌리를 치고 가슴속흉벽을 세차게 두드

리며 울리는 진한것을 느끼게 되였다.

그것은 바로 북부조국의 령도자와 인민이 혈연으로 뭉쳐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였다.

고금동서의 력대 정치인들치고 국민단합의 대경륜을 이룩하고저 했던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실현한 사람이 없었으며 그것은 정치가들의 꿈으로, 념원으로만 남고 현실에서는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것으로 치부되여왔었다.

그러나 공화국은 령도자와 온 나라 인민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의지, 하나의 뜻으로 뭉쳐 전일체를 이루고있는 나라였다.

이것을 두고 서방나라들은 갖은 험담을 다하며 비난하고 있다.

그래 국가지도부의 두리에 온 나라 국민이 하나로 뭉친것이 무엇이 나쁘단 말인가.

참으로 경이적인 사변이였다. 믿어지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수 있을가?

약육강식의 론리가 판을 치는 서방세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었던 참사람의 참생활을 《철의 장막》이라던 공화국에서 목격하게 되였다는 사실은 문명자에게 다시한번 큰 충격을 주었다.

그로부터 며칠후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다시 만나뵙게 되

였다.

그날은 주체83(1994)년 4월 21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축원의 인사를 올리는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선생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여 매우 반갑다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그 친근하고 다정한 음성을 격정속에 들으며 문명자동포는 해빛같이 환한 **김일성**주석님의 모습을 우러르고 또 우러러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김일성**주석님은 만인의 칭송을 받고계시는 태양과 같은분이시라는 감동에 젖은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감격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다정히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생이 나의 생일 80돐때 조국을 방문하여 나를 만나고 돌아가서 쓴 접견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선생이 접견기를 진실하게 잘 쓴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정담아 말씀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문명자는 주석님께선 몇해전이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무랍없이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세월이 흘렀으니 나도 이제는 늙었을것이라고, 그렇지만 나는 아픈데가 없고 아주 건강하다고, 그래서 지금도 정상적으로 사업하고있다고 하시

였다.

문명자는 통일문제와 평화보장문제 그리고 인민생활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마다 즉시에 명쾌하고도 만족한 해답을 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미관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였다.

담화를 마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생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문필활동을 하기 바랍니다.》라고 기대와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동서방 각국을 다니며 수많은 대통령, 국가수반들과 만나는 과정에 제노라 하는 사람들의 성격, 취미와 뒤생활에 대해서까지 낱낱이 알게 되면서 정치인들에게 쓰거운 눈길을 보내기도 하던 문명자였지만 그에게 있어서 절세의 위인, 참다운 인민의 수령이신 **김일성**주석님을 여러 차례나 만나뵙게 된것은 수십년간에 걸치는 기자생활에서의 큰 행운이였고 인생의 더없는 영광이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문명자는 북과 남이 7월 25일 최고위급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하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그는 옹근 반세기를 기다려온 력사의 그 순간을 취재하려고 서둘러 미국땅을 떠나 도꾜까지 왔다.

그런데 이 무슨 청천벽력인가.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눈앞에 두고 그토록 통일을 념원하시며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갑자기 서거하시였다는 도저히 믿을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던것이다.

몇달전에 만나뵈왔을 때만 하여도 나는 아픈데가 없고 건강하다고, 그래서 지금도 정상적으로 사업하고있다고 하시던 수령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다니…

김일성주석님과 같은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인류의 태양을 잃는다는것은 정녕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수 없고 메꿀수도 없는 커다란 손실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너무도 비통한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전에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평양행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애도장에 들어서니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분에 잠겨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전에 호상을 서고계시였다.

화면과 사진에서보다 몹시 수척해지신 모습이였지만 수령님과 너무나 꼭같으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어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지 몰라하는 문명자에게 장군님께서는 먼길을 와주어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을 만나뵙고 쓴 기사를 활자로 확대해서 자신께서 직접 수령님께 갖다드렸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주석님께서는 문기자가 내가 말한것을 정확하

게 보도했다고 하시면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단군릉을 개막할 때 문선생과 또 만나게 되여있다고 하시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음성은 비분에 젖어있었다. 일생에 가장 큰 슬픔속에 계시면서 도리여 조문객인 그를 위로해주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계실 때처럼 자주 오라고, 단군릉개막때에도 오고 보통때에도 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날에 하신 장군님의 당부대로 문명자는 그해 단군릉개막식을 취재하기 위해 다시 평양에 왔으며 그후에도 자주 평양을 방문하였다.

언제인가 평양을 방문한 문명자는 장군님께 만나주시였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였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여러가지 중대사들이 많이 제기되여 그를 만나주실 시간적여유를 내지 못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선군장정을 이어가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그에게 편지를 보내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편지에서 녀사가 이번 조국을 방문한 기회에 시간을 내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으나 여러가지 일들이 제기되여 짬을 낼수 없게 된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수령님께서 생전에 녀사를 만나시여 정의의 필봉을 들고 해외에서 애국애족의 활동을 널리 벌리고있는 녀사

와 같은 저명한 녀류문필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라고 하시던 말씀을 잊지 않고있다고, 자신께서는 녀사가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나 우리곁을 떠나신 이후에나 변함없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 활약하고있는데 대하여 잘 알고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한 해외교포 녀류기자의 소원을 헤아리시고 몸소 보내주신 편지는 그에게 장군님을 직접 뵈운데 못지 않은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

장군님의 편지를 받아안은 문명자는 비록 그이를 뵈옵는 기회는 미루어졌지만 그이의 믿음과 기대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울 시각을 문명자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마침내 그날은 오고야말았다.

그날은 주체89(2000)년 6월 30일이였다.

문명자는 민족을 우선시하고 통일을 절대시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에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이께서 계시는 곳으로 향하였다.

현관에까지 나와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도착하자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동포애의 정으로 따뜻이 맞아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는데 건강이 어떤가고 물어주시고나서 이번에 조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녀사의 건강회복이 더 빨리 될수 있었지만 좀 떠진것은 년세와 많이 관계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은 조선옷차림을 하여 그런지 퍽 젊어보인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가 만났던 때로부터 이제는 6년이 되였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서거하시였을 때 녀사를 만나 악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시간을 낼수 없어 편지를 써보낸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앞으로 조국을 다시 방문하는 기회에 꼭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썼는데 나는 늘 그 약속을 잊지 않고있었습니다.》

이어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자주 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였다고, 자신께서도 오래전부터 녀사를 만나보려고 생각하였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석상에서 북남수뇌상봉과 북남공동선언에 대하여 그리고 조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그가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오찬석상에서도 종교문제, 민족음식과 건강문

제 등 다양한 주제로 그와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오찬과정에 그가 제기하는 물음들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헤여지실 때 다리가 불편한 문명자의 손을 잡고 차에 오를 때까지 편의를 돌봐주시였다.

이날은 문명자가 통일된 민족의 미래를 본 날로 그의 한생에 기록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7(2008)년 7월 그가 통일의 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몹시도 애석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그의 문필활동을 애국적인 소행으로 값높이 평가하시여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서 조전을 보내도록 하시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그가 고령의 몸이지만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문필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릴수 있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눈물속에 받은 생일상

1991년 5월 어느날 미국 네브라스카주에 살고있는 손원태선생과 그의 부인이 비행기를 타고 조국으로 오고있었다.

손원태선생으로 말하면 60여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에서 혁명활동을 벌리고계시던 시절 그이와 깊은 연고관계를 맺고있었다.

민족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그때에 손원태선생의 부친인 손정도목사는 일제의 살벌한 폭압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물심량면으로 힘껏 도와드리였으며 수령님께서 길림감옥에서 령어생활을 하실 때 적극적인 구출운동을 벌리였었다.

잊지 못할 그 길림시절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어린 손원태를 참된 삶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무으신 조선인길림소년회의 회원으로 그를 받아들이시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애족의 넋을 키워주시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력사의 모진 풍파와 시련속에서 손정도목사는 그토록 원하던 해방의 날을 보지 못한채 거치른 이역땅에 묻히게 되였으며 손원태선생도 곡절많은 인생의

길을 따라 미국땅 외진 곳에서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하지만 무정한 그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정도목사를 잊지 않고계시였으며 그럴수록 알길없는 손원태선생의 행처를 두고 마음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원태선생의 행처를 알게 되신것은 주체80(1991)년 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곧 그를 초청하시였다.

그리하여 80살을 눈앞에 둔 손원태선생이 평양행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였던것이다.

비행기의 시창밖으로 발밑에 끝없이 펼쳐진 산발들을 바라보느라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를 친동생처럼 사랑해주시고 애국심을 키워주시던 길림시절의 나날들이 그리워졌다.

한편으로는 **김일성**주석님께서 홍안의 시절에 헤여진 이 원태를 과연 알아보실가, 미국국적을 가진 이 몸을 어떻게 대해주실가, 그이를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드릴가 하는 생각에 마음은 착잡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의 모든 위구는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는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5월 15일 그가 부인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갔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환하게 웃음을 지으시고 활달한 걸음으로 마주 나오시는것이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곱씹어 외워오던 인사말도 다 잊고 《주석님!》 하고 한마디 하고는 그이의 넓은 품에 와락 안기였다. 자기가 흘리는 눈물이 위대한 수령님의 옷자락을 적시는것도 모르고 그는 넓은 그 품에 안겨 쌓이고쌓인 그리움을 터뜨리였다.

그를 한품에 꼭 껴안으시고 부인과 함께 먼길을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겠다고, 헤여진지 60여년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니 참으로 반갑다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음성도 젖어있었다.

그이께서는 백발의 그에게서 어린시절의 모습을 찾으시려는듯 이슥토록 살펴보시고나서 이제는 여든을 바라보는 고령이지만 어렸을 때의 모습이 좀 남아있어 알아보겠다고, 선생을 만나 감회깊은 회포를 나누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그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곁에 앉히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원태선생부부와 오랜 시간동안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에 이어 5월 31일과 6월 2일에도 손원태선생을 만나시여 회포를 나누시며 그에게 각별한 정을 기울여주시였다.

그것이 더없이 고마와 손원태선생은 어려움도 잊고 위대한 수령님께 《**김일성**주석님은 제가 처음으로 만나뵙던 그때나 60여년세월이 지난 오늘에나 여전히 저의 스승이시고 형님이

십니다.》라고 말씀올리였다.

손원태선생의 그 말에서 털끝만한 가식도 없는 마음속진정을 느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추억깊은 길림의 송화강반에서 손잡고 다니시였던 그가 이제는 머리우에 흰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백발의 로인이 되여 품에 안긴것이 가슴아프시여 그의 나이를 새삼스럽게 헤아려보시였다.

손원태선생의 그때 나이는 77살이였다. 3년후이면 여든번째 생일을 맞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원태선생의 여든번째 생일을 그냥은 스쳐보낼수가 없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생이 나를 형님처럼 생각한다고 하는데 선생의 생일 80돐은 조국에 와서 쇠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선생의 생일이 8월 11일이면 8.15명절도 끼우고 우리나라의 계절도 아주 좋은 때이라고, 그때에 오면 내가 동생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선생의 80돐생일상을 성의껏 차려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뜻밖에 자기의 생일상을 차려주시겠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깊은 말씀을 받아안은 손원태선생은 너무도 황송하여 몸둘바를 몰랐다.

참으로 뜻깊은 약속이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늘 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손원태선생의 여든번째 생일문제를 심중에 새겨

두시고 잊으신적이 없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원태선생이 해마다 조국을 방문할 때는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의 생일에 대하여 말씀하군 하시였다.

그리고 손원태선생의 생일을 기념하여 줄 사랑의 선물도 준비해놓으시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행복의 절정에 오를 그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던 손원태선생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자기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해주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가 미국땅에 전해졌던것이다.

꿈인가 생시인가. …제발 꿈이였으면…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닌 엄연한 현실이였다.

그는 곧 조의방문의 길에 올랐다.

조국에 도착하여 수령님의 령전앞에 서고보니 인생의 황혼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받아안은 사랑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처음 만나시였을 때 어린시절 자기 생일날에 수령님께서 중국음식점에서 사주시였던 짱즈궈즈가 먹고싶다고 롱담삼아 말씀드렸는데 잊지 않으시고 식탁에 놓아주시였던 일, 옥류관에 데리고 가시여서는 지난날 만주일대에서 언감자국수와 떡을 해먹던 이야기도 들려주시며 이름난 평양랭면도 맛보도

록 해주시던 일도 떠올랐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실줄이야…

이날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운 그는 장군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 하였다.

그런데 수령님을 잃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가슴아프실 장군님께서 오히려 손원태선생을 위로해주시면서 주석님께서 계실 때와 다름없이 지내라고, 변함없이 잘 돌봐주겠다고 하시는것이였다.

손원태선생은 눈물만 흘릴뿐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다.

수령님께서 생전에 만나실 때마다 혁명선배들을 존중하고 잘 돌봐주고계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한없이 위대한 덕망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시던 그 음성이 귀전에 들리는것만 같았다.

손원태선생은 터져나오는 오열을 가까스로 참으며 위대한 장군님께 《하늘이 꺼진것같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귀하신 몸 보중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유훈대로 힘껏 일하겠다고 나직이 말씀하시며 손원태선생의 손을 꼭 잡아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원태선생에게 베풀어주시던 그 사랑은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손길에 의해 그대로 이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손원태선생이 들어있는 숙소에 일군들을 보내시여 그와 식사도 같이 나누며 그를 잘 위로해주도

록 하시였을뿐 아니라 깊은 밤에도 잠 못이루시며 일군들에게 손원태선생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그의 생일상을 잘 차려줄데 대하여서도 당부하시였다.

손원태선생은 국상을 당한 이때에 생일상을 받는다는것은 도리에 어긋나므로 생일을 쇠지 않겠다고 거듭 사양했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손원태선생의 80돐생일을 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잘해주자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준비하신 생일선물도 전달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선물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선물도 손원태선생의 생일날에 그에게 전달되였다.

한편 이날 목란관에서는 재미교포 손원태선생의 생일연이 그의 가족, 친척, 친지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참가속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국인민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크나큰 슬픔으로 하여 잠 못이루며 눈물속에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던 때 생일상앞에 마주서게 된 손원태선생에게 있어서 다시는 영영 만나뵙지 못할 인생의 은인이신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생각은 실로 이를데가 없었다. 앞을 가리우는 눈물을 어쩌지 못하며 어버이수령님을 그리는 그의 목소리는 애절하였다.

《**김일성**주석님!

주석님께서 생전에 친동생으로 스스럼없이 여겨주시였던 이원태가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가족, 친척, 친지들까지 모였습니다.

그러면 더없이 기쁘겠다고 늘 외우시던 주석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은 이 자리에서 동생이 올리는 큰절을 받아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석님께서는 이렇게 사랑만 남겨놓으시고 우리곁을 먼저 떠나가시면 이 원태는…》

손원태선생은 너무도 애석하고 절통하여 오열을 터뜨리며 더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다.

부인도 아들딸들도 친척, 친지들도 이 광경을 목격하는 사람들모두가 격정에 목이 메여 어깨를 들먹이였다.

이날 목란관에서의 뜻깊은 생일연이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간 손원태선생은 어쩐지 그 집에 대한 의미가 더욱 새삼스럽게 감수되였다.

평양의 풍치아름다운 곳에 새로 지은 궁궐같은 저택, 드넓은 정구장… 그 어데를 둘러보아도 한없이 고마운 은정이 전류처럼 온몸에 흘러들었다.

사연도 뜨거운 사랑의 집이였다.

손원태선생의 생일을 앞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손원태선생의 생일준비에 대하여 알아보시다가 한 일군에게 손원태선생이 이번에 든 저택에 대한 말씀을 하시였다.

그 저택으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손원태선생이 자주 조국을 방문하는데 그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념려되시여 새로 마련하신 집이였으며 거기에는 손원태선생이 정구를 좋아한다고 하여 정구장까지 갖추어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사연에 대하여 한 일군에게 다시금 깨우쳐주시면서 생전에 수령님께서 손원태선생을 위하여 마련하여주신 저택은 그에게 남기신 유산이라고, 비록 수령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시였지만 수령님의 유훈대로 앞으로도 손원태선생과 그 가족들이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처럼 아무때나 오고싶을 때 조국에 찾아와 그 저택에서 살도록 해야 그들을 보는 자신의 마음도 섭섭하지 않을것이라고, 소중한 유산인데 그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그 말씀을 전달받던 그날 손원태선생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사랑에 사랑을 더하여주시는분, 만나면 순간에 온넋이 끌리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르는분, 정녕 만민이 끝없이 칭송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그이는 진정 **김일성**주석님의 천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위인중의 위인이시고 우리 겨레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그이의 크나큰 은덕을 새기면 새길수록 손원태선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시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이라고 일깨워주신 그 집은 단순한 살림집이 아니라 인생의 영원한 봄이 약동하는 삶의 보금자리이구나 하는 느낌이 강렬해졌다.

그는 복중의 복을 누려가고있는 자신이 안겨사는 삶의 품이 과연 얼마나 고귀하고 은혜로우며 영원한것인가를 세상에 대고 소리치고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은 비록 너무도 애석하게 떠나시였지만 우리 7천만민족에게는 주석님의 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며 우리 민족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신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시고 민족이 한시도 떨어져 살수 없는 어머니조국이시다!》

손원태선생은 몇번이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웨치며 가족, 친척들과 함께 저택에 모셔진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앞에서 삼가 옷깃을 여미고 큰절을 드리였다.

그리고 자기들은 몸은 비록 이역땅에 살지만 지난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따르던 손정도일가의 가풍을 살려 **김정일**장군님을 어버이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변함없이 받들어갈 맹세를 다지였다.

민족의 정통무도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1988년 11월 어느날이였다.

조국에 체류하고있던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선생과 그의 부인은 조국의 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평양시교외의 조용한 곳에 자리잡고있는 어느 한 건물로 들어섰다.

최홍희선생부부는 안내되는 방에 들어서다가 주춤 발길을 멈추었다.

넓은 그 방에는 풍성하게 차린 잔치상이 두상이나 놓여있었던것이다. 잔치상우에는 《70돐생일상》과 《60돐생일상》이라고 새겨져있는 축탑이 각각 놓여있었다. 그리고 이미 여러차례의 조국방문을 통하여 안면을 익힌 낯익은 일군들이 먼저 와 기다리고있었다.

최홍희선생부부는 아마도 어떤 간부의 생일연회에 초대되였는가 생각하면서 먼저 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별생각없이 그들과 같이 기다리려고 한옆에 비껴섰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 일군이 그들부부를 손잡아 이끌어 상앞에 세우고는 축하의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정말 천만뜻밖이였다.

물론 그는 자기 나이가 일흔이 되고 안해도 예순이 된줄은 알고있었으나 조국에 와서 생일상을 받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영문을 모르고 서있던 최홍희선생부부는 그 일군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서야 자기 부부가 어떻게 되여 생일상을 받게 되였는지 그 자초지종을 알게 되였고 너무도 감격하여 어쩔줄을 몰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홍희선생이 그동안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고국산천을 그리며 적적하게 생일을 쇠였겠는데 이번에 평양에 데려다 조국의 향취를 맛보며 마음편히 생일을 쇠게 하자고 하시였다. 그리고 선생의 부인이 올해에 환갑이면 환갑상도 겸해 차려주자고 하시면서 최홍희선생의 생일상과 부인의 생일상을 함께 보내주시였던것이다.

너무도 크나큰 감격에 겨워 그들부부의 눈에는 저도 모르게 이슬이 고였고 흥분된 심정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는 불시에 절세의 위인들의 품에 안기여 흘러온 지난날들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최홍희선생이 남조선땅을 떠난것은 1971년이였다.

남조선에서 《국군》의 《창건자》의 한사람으로서 련대장, 사단장, 군단장으로 그리고 말레이시아주재 대사노릇까지도 하였던 그가 이렇듯 망명의 길을 택하게 된것은 박정희의 군사파쑈독재에 환멸을 느꼈기때문이였다.

카나다에 간 그는 점차 민족적량심을 되찾고 조국통일을 적극 주장해나섰으며 태권도를 수단으로 하여 민족통일에 이바지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였다.

그는 이미전에 심혈을 기울여 연구발전시킨 민족무술을 《태권도》라고 명명하였으며 세계적범위에서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하여 1966년 3월 국제태권도련맹을 창설하고 총재로 되였었다.

그는 태권도보급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한편 교포신문인 《배달신보》의 발행인으로서 남조선독재《정권》을 폭로하고 통일운동을 벌려나갔다.

이를 못마땅히 여긴 남조선독재《정권》은 최홍희선생과 태권도를 해치기 위하여 모략을 꾸미였다.

막대한 자금을 마구 뿌리면서 국제태권도련맹의 활동을 공공연히 방해해나섰으며 지어는 최홍희선생의 목숨을 해칠 목적으로 자객을 파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그에게 구원의 손길이 와닿았다.

남조선군사파쑈《정권》의 마수에 걸려 시시각각 생명의 위험속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최홍희선생과 국제태권도련맹에 대한 소식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공화국에 알려지게 되였으며 이 사실은 곧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보고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최홍희선생과 태권도에 뜨

거운 재생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조국방문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던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날 자기가 공화국앞에 지은 죄가 있는지라 선뜻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태권도와 자기자신을 한시도 떼여놓고 생각해본적이 없는 그는 일신상의 위험때문에 국제태권도련맹이 부닥친 시련을 외면할수 없었다.

최홍희선생은 만약 자기가 잘못되면 자기 관우에다 《태권도》라는 세 글자를 새겨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결연히 공화국방문의 길에 올랐다.

그가 조국에 도착한것은 1979년 4월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홍희선생의 평양도착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를 동포애의 정으로 잘 대해줄데 대하여 간곡히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놓이지 않으시여 다음날 또다시 해당 부문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여 조국방문기간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그를 잘 돌봐주라고 당부하시였다.

최홍희선생은 비행장에서 공화국의 고위급간부들의 영접을 받았으며 국가수반급이 류숙하는 초대소에 려장을 풀었다.

대동강반의 옥류관에서는 그를 환영하는 연회가 진행되였다.

며칠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직승기를 타고 꿈속에서도 그려보던 고향에도 가보았다.

참으로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륭숭한 대우였다.

그가 이렇듯 따뜻한 환대속에서 조국방문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주체68(1979)년 5월 1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토록 국사에 분망하신 속에서도 친히 최홍희선생을 만나주시였다.

(내가 정말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뵈옵게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에 골몰하고있는 동안 어느덧 그를 태운 승용차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당도하였다.

그는 놀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현관에까지 나오시여 자기를 기다리고계셨던것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큰 도량과 관대하신 인품에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황황히 달려가 위대한 수령님께 인사를 올리며 《제가 최홍희입니다. 주석님을 뵙게 되여 참으로 영광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최홍희선생이 멀리 해외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찾아온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들의 이번 상봉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손잡고 함께 나아가며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시며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뜨겁게 포옹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다정히 옆에 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다음 응접실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오랜 시간동안 그와 담화하시며 조국통일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오찬까지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한없이 넓은 도량, 고매한 덕망에 깊이 감동된 최홍희선생은 수령님을 우러러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고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우리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결의를 지지해주시면서 앞으로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최홍희선생이 떠난 다음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그의 애국적량심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떠나는 날까지 불편이 없도록 잘 보살펴주라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돌아간 최홍희선생은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기 위하여 해외에서 적극적인 애국활동을 벌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시며 최홍희선생에게 크나큰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서 태권도시범출연도 하고 보급활동도 벌리고싶어하는 그의 소원을 헤아려주시였다.

그리하여 다음해인 1980년 9월 조국에 온 국제태권도련맹

의 태권도시범단이 평양과 원산에서 여러 차례에 걸치는 시범출연을 대성황리에 진행하였으며 금강산과 명사십리를 비롯한 주요명승지들과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또한 이해에 공화국이 국제태권도련맹에 가입하게 되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홍희선생이 10여년간의 고심어린 노력으로 《태권도백과사전》을 집필하여놓고도 그 제작비용때문에 출판을 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아시고 그가 그토록 소원하는 《태권도백과사전》을 조국에서 출판하도록 온갖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평양에서는 《태권도백과사전》의 출판을 위한 집단이 무어졌으며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전 15권에 달하는 방대한 《태권도백과사전》이 성과적으로 출판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홍희선생이 올린 《태권도백과사전》을 받아보시고 대단히 감사하다고 오히려 그의 로고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태권도백과사전》을 여러 나라 말로 출판하도록 또다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하여 《태권도백과사전》을 각 나라 말로 출판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끝나게 되였다.

여러 나라 말로 출판된 사전을 보며 최홍희선생은 이렇게 말했었다.

《이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기까지는 실로 13년이란 긴 나

날이 걸렸다. 이제 최홍희는 죽어도 한이 없다. 태권도는 내가 비록 만들었지만 가장 어려운 때에 **김일성**주석님께서 재생의 활력을 주심으로써 오늘날 우리 민족의 무술로 확고한 기틀을 가지게 되였고 세계에 그 자랑을 떨치게 되였다.》

이렇듯 크나큰 사랑의 손길이 있어 사멸될번한 태권도가 재생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최홍희선생도 평생소원을 이룩하게 되였던것이다. …

이러한 생각에 잠겨있는 최홍희선생을 바라보며 그 일군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홍희선생과 부인에게 생일상을 보내주시면서 생일을 축하한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시였습니다.》

최홍희선생과 부인은 애써 자제하던 격정을 끝내 터뜨리고야말았다. 기쁨의 눈물, 감동의 눈물, 행복의 눈물이 량볼을 타고 쏟아졌다.

고귀한 은정이 깃든 생일상에 마주앉은 그들부부는 인생세파에 얼룩질대로 얼룩진 자기들을 이토록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숭고한 덕망을 높이 칭송하여 축배를 들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최홍희선생은 태권도와 자기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다는 알지 못하였다.

그때로부터 한해전인 주체76(1987)년 5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에 태권도관을 건설할것을 발기하시고 한창 건설중인 청춘거리에 그 터전을 잡아주시였다.

그후 형성도안까지 여러 차례 지도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9(1990)년 1월에는 수도건설이 아무리 긴장하다고 하더라도 태권도관을 꼭 지어주어야 한다고, 수도건설에 포함시켜 지어주도록 하자고, 아빠트 한두채를 짓지 못하더라도 태권도관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건설에 필요한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해 여름 제8차 국제태권도련맹 총회에서 제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주최국을 선정하지 못하여 국제태권도련맹의 권위가 손상될 정황이 조성되였다는것을 아시고 평양에서 제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도록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주체80(1991)년 9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태권도관건설을 다그쳐 제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마감공사를 질적으로 잘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친히 《태권도전당》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크나큰 관심속에 태권도관건설은 착공한지 2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6만여㎡의 부지면적에

연 8 000㎡의 건축면적을 가진 대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섰다.

건물의 정면에는 지구우에 억센 주먹을 내민 부각장식을 하여 그 면모를 힘있게 나타내였고 건물 웃부분에는 조선식 지붕을 얹어 전체적으로 경쾌하고 우아하며 멋진 자태를 보이고있다. 기본건물에는 경기관, 관람석, 훈련장, 소회의실, 휴계실, 사무실 등 120여개의 크고작은 방들로 꾸려져있고 여러개의 부속건물에는 침실, 식당, 오락실, 의무실 등 봉사시설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1(1992)년 5월 어느날 몸소 친필로 《태권도전당》이라고 쓰시여 태권도전당 정면에 부각된 현판에 걸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주체81(1992)년 9월 10일 태권도전당 개관식이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홍희선생과 함께 준공된 태권도전당을 돌아보시며 태권도전당을 아주 좋은 위치에 잘 지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제태권도련맹 총재가 이 태권도전당이 세계에서 제일 큰 태권도전당이며 이런 전당은 우리 조국에서만 건설할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가 태권도의 조국인것만큼 응당 큰 태권도전당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난 1994년 7월 최홍희선생은 제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눈앞에 두고 꾸바에서 태권도전습을 하

고있었다.

그러던 7월 10일 새벽 뜻밖의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갑자기 급병으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알려왔던것이다.

그는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부정할수 없는 현실임을 알게 되였을 때 그는 슬픔을 참을수 없었다. 몸부림치며 통곡을 해도 슬픔은 더해만 갔다.

조국과 민족앞에 면목없는 자기를 위대한 품에 안아 내세워주시고 태권도를 되살려 그 위용을 세계에 과시할수 있도록 해주신 삶과 운명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다시는 뵈올수 없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심장은 저려들고 터질것만 같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전을 찾아 조의를 표하는것이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 그는 즉시 제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게 되는 말레이시아로 가려던 려행일정을 바꾸어 평양으로 향하였다.

조국에 도착한 최홍희선생은 다른 해외동포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을 추모하기 위하여 금수산의사당으로 향하였다. 가슴부푸는 환희와 기쁨, 행복을 안고 달려가던 이 길, 이 세상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안고가던 이 길로 이 세상 가장 큰 슬픔과 비통함을 안고가게 될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하늘도 비통한 눈물을 하염없이 뿌리고있었다.

비장한 추도곡이 가슴을 찢고 어버이를 부르는 통곡소리가 광막한 우주공간을 꽉 채운 가운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향기그윽한 꽃속에 고요히 누워계시였다.

최홍희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전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김일성**주석님! 이 못난 최홍희가 주석님을 뵈옵고저 불원천리 찾아왔습니다. 아 아! …부디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

쏟아져나오는 눈물을 억제하며 수령님의 령전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민족의 어버이를 우러러 인사를 드리고 또 드렸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령구앞에서 호상을 서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게 된 그는 《망극하십니다. 부디 가슴아픔을 이겨내시고 귀중하신 몸을 돌보십시오. …》라고 깊은 애도와 존경을 담은 가장 경건한 인사말로 장군님의 가슴아픈 심정을 위로해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걸음 앞으로 나서시며 감사의 뜻을 거듭 말씀하시면서 최홍희선생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은 비록 갈리신 목소리였으나 위대한 수령님의 독특하고 친근하신 음성 그대로였고 그이의 온몸에서 풍기는 품격과 풍모는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틀어잡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인품 그대로이시였다.

그때로부터 4년이 지난 주체87(1998)년 11월.

그때로 말하면 조국인민들이 불굴의 의지로 전대미문의 고난을 헤쳐나가던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걸머지시고 쪽잠을 주무시고 줴기밥으로 끼니를 이으시며 수천수만리의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걷고계시는 그속에서도 최홍희선생의 여든번째 생일을 잊지 않으시고 조국에 불러 선생과 부인에게 생일상을 잘 차려주도록 또다시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최홍희선생부부가 조국에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당 일군에게 그에게 나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최홍희선생은 생일 80돐을 맞는 오늘까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의 마음을 지니고 조국과 민족의 편에 서서 정통적인 우리의 태권도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약해왔습니다, 최홍희선생이 조국에서 생일 80돐을 맞는것만큼 뜻깊고 의의있게 쇠도록 하며 그의 조국체류나날이 의의있고 값있는것으로 되게 잘 조직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일 80돐을 맞는 최홍희선생이 아무쪼록 건강장수하기를 바란다는것을 전해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말씀을 전달받은 최홍희선생은 너무나 과분한 장군님의 은정에 그 무엇이라 표현할수 없을만큼 고마왔다.

주체89(2000)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55돐 경축행사에 최홍희선생을 불러주시였다.

10월 20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홍희선생을 만나주시였다.

몸소 현관에까지 나오시여 그를 마중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선생이 태권도를 세계적으로 보급하느라고 로고가 크다고 하시며 선생이 고령이지만 왕성한 투지와 패기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홍희선생을 위하여 오찬까지 마련해주시였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맛도 헤아려주시며 갖가지 조국의 특산물이 들어있는 료리를 손수 권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에게 총재선생이 국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선주후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국수를 먹기 전에 술을 좀 드는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술을 좀 들어야 하겠습니다, 총재선생이 술을 좀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양하지 말고 많이 들어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토록 다심하신 말씀에서 선생은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되였다. 장군님을 모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식사를 같이하는 선생의 마음은 행복감으로 한껏 부풀어올랐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태권도와 관련한 문제뿐만아니

라 국제정세와 관련한 여러가지 귀중한 말씀을 하시였는데 그는 장군님의 넓으신 식견과 예지에 재삼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헤여질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이많은분이라고 선생을 먼저 내세워주시며 문앞에까지 나오시여 바래워주시였다. 그리고 오래오래 장수하라고 당부까지 하시였다.

2002년 1월 최홍희선생은 불치의 병진단을 받게 되였다. 병원측은 이미 그의 병상태가 걷잡을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하였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를 생각했다.

살아도 옳바로 살고 죽어도 똑바로 죽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 미치자 그는 단호한 결심을 내렸다.

조국으로 가야 한다. 치료를 받아도 조국에서 받고 수술을 해도 조국에서 하고 죽어도 조국땅에 묻혀야 한다.

그는 자기의 이러한 뜻을 조국에 알렸다.

그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어쩐지 그가 단지 병치료만을 념두에 둔것같지 않으시였다.

불우한 타향살이에서 지친 생의 마감이라도 조국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편안히 맺고싶은 마음에서 그런 청을 했으리라고 생각되시였다.

어언 나이 84살, 고향을 하직한지 근 60년이 된 최홍희선생이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즉시 그가 조국에 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그는 부인과 함께 조국에 도착하여 검진을 받은 다음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였다.

3월 16일 그의 병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인사와 함께 여러가지 신선한 과일을 보내시여 그가 신심을 가지고 병치료를 해나갈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시였다.

그는 큰 수술을 받기도 하였지만 로년에 맞다든 병이여서인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다. 그는 얼마후 불편한 몸으로 외국에 나가 태권도와 관련한 문제를 성과적으로 처리하고 조국에 다시 돌아와 1개월만에 끝내 세상을 떠났다.

최홍희선생이 사망했다는 비보를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비통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시며 최홍희총재는 우리 수령님께와 당에 태권도를 가지고 조국통일에 이바지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고 수십년동안 해외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태권도활동을 열정적으로 해오다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것을 알고는 조국의 품에 안겨 생을 마쳤다고, 최홍희총재는 결국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셈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장군님께서는 아까운 사람인데 사망하였다고, 최홍희총재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라고 하시며 신문과 방송을 통해 부고를 내보내며 그의 장례식을 잘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2002년 6월 17일 평양시교외의 애국렬사릉에서는 최홍희선생의 장례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주체101(2012)년 4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관심속에 태권도전당 바로 옆에 조선식건축형식의 거대한 태권도성지관이 새롭게 훌륭히 일떠서 개관되였다.

이는 세계태권도계뿐 아니라 세계체육계의 커다란 관심을 집중시켰다.

여기에는 태권도와 관련된 사료들과 그림들, 사진들, 도서자료들이 전시되여 우리 민족의 무술력사가 집대성되여있었다.

또한 국제경기성과들을 포함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태권도관련 일화들과 추억들, **김정일**장군님과 태권도관련 사진들, 평양날파람과 관련한 력사적사료들, 천년강국 고구려의 무술자료 특히 절세위인의 품속에 안겨 태권도로 통일애국의 삶을 빛내인 최홍희선생과 관련한 자료들과 그가 쓴 《태권도백과사전》 등이 비치되여있다.

태권도성지관은 민족무술의 발전과 해외동포 최홍희선생의 삶을 빛내여주시기 위하여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의 결정체이다.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대해같은 믿음과 크나큰 사랑이 있어 최홍희선생은 곡절많은 삶을 훌륭히 매듭지을수 있었으며 애국렬사릉에서 영생의 삶을 빛내이고있다.

3대가 안긴 품

1978년 11월 어느날 평양국제비행장을 향해 날고있는 려객기의 좌석에는 60대중반의 나이지숙한 사람이 앉아있었다.

그는 해방후 오랜 기간 남조선의 군부와 정계의 요직에 있다가 몇해전 해외로 망명하여 미국에서 살고있던 최덕신선생이였다.

그는 지금 자기 발밑으로 지나가고있을지도 모를 어린시절의 추억이 깃든 고향산천을 그려보는듯 눈을 꾹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이윽고 평양국제비행장상공에 이른 비행기는 서서히 기수를 낮추어 착륙하였다.

다른 승객들은 내릴 준비를 하고있었지만 그는 차비를 서두르지 않았다.

공식방문도 아니고 선친의 묘소를 보러 온다는 순수 개인적인 자격으로 오는것만큼 조용히 문턱을 넘어섰다가 슬며시 물러가면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맨 나중에 내릴 심산으로 의자등받이에 몸을 맡긴채 그대로 앉아있었다.

이러한 때 문뜩 그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

《최덕신선생이 어느분이십니까?》

《…?!》

《선생님, 최덕신선생이 아니십니까? 먼저 내리실 차비를 해주십시오.》

뭇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리였다.

뜻밖의 일인지라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안내자가 이끄는대로 맨 선참으로 비행기에서 내렸다.

정말 놀라왔다.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이며 정무원부총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을 비롯한 여러 간부들이 마중나와있었던것이다.

한갖 망명객에 지나지 않는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관례없는 우대에서 그리고 소녀애가 안겨주는 꽃다발의 향기에서 최덕신은 미국이나 서부도이췰란드, 일본이나 오스트랄리아의 비행장들에서는 도저히 느낄수 없었던 혈육의 온기와 향취를 대번에 맛볼수 있었다.

이날 저녁 그는 자리에 누웠으나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였다. 미지의 땅에서 받은 첫인상이 뇌리에서 사라질줄 몰랐기때문이였다.

다음날 그는 선친의 묘소로 안내되였다.

달리는 차안에서 그를 안내하는 조국의 일군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최덕신선생이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조국을 찾아온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체류일정을 어떻게 짜놓았는가를 료해하시고 선생이 조국에 오면 먼저 부친 생각부터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선친인 최동오선생의 묘부터 찾아보게 하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차는 평양시교외의 양지바른 산기슭에 이르렀다.

아늑한 산기슭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선친과 함께 공화국의 품을 찾아왔던 김규식, 조소앙, 류동열을 비롯한 여러 입북인사들의 묘가 자리잡고있었다.

그는 선친의 묘소에 이르렀다.

묘비에는 《애국지사 최동오선생의 묘》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묘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다시 외워보았다.

애국지사!

얼마나 자랑스러운 부름인가.

그의 부친은 공산주의자도 아니였으며 천도교인이였고 민족주의자였다.

왜정때에 반일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상해림시정부에도 관여하였지만 나라를 위해 해놓은 일 없었고 해방후 리승만독재치하에서는 고초와 모멸속에서 방황하던 부친이였다.

그러하던 부친이 민족주의자들이 그렇게도 질시하던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애국지사라는 고귀한 명예를 받아안았다는

생각에 최덕신은 참말로 감사의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천도교식으로 놋합에 청수를 가득 채워 선친의 묘앞에 놓고 그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로 30여년전 38° 선을 넘어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와 밝은 웃음을 짓던 부친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그때 선친은 흥분에 겨워 속삭였다.

《왜정때 화성의숙에서 공부를 하였던 그 김성주학생이 바로 **김일성**장군이였어. 보천보에 불을 질러 왜놈들을 전률케 한 그 민족의 영웅이 김형직선생의 자제분이였거던.

이제는 우리 민족이 안길 품이 있어. 그분은 확실히 우리 민족의 구세주야!》

선친은 이렇게 절절히 말했지만 그는 그때 그 진정에 넘친 속삭임을 깊이 새겨듣지 않았었다.

그것은 선친이 화성의숙 숙장으로 있으면서 **김일성**주석님과 가까이 있던 시절에 그는 부모들의 곁을 떠나있었던 관계로 부친의 그 애틋한 감정을 다 리해할수 없었던것이다. 륙군사관학교 교장이라는 직급을 가지고있었던 당시의 그의 처지로써는 더구나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최덕신선생은 부친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전에 《내 아들 덕신이가 못된놈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있지만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고 옳은 길로 들어설것이다.》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으며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고 또 빌었다.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부친을 하루와 같이 보살펴주신 자애롭고 의리깊으신 위대하신 **김일성**주석님께 아들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나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선친이 안긴 요람을 향해 총포탄을 쏜 의리도 없고 량심도 없는 죄많은 이 몸을 어찌 상대해주시랴 하는 생각이 솟구치는 욕망을 눌러버리였다.

하여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못한채 안내자들이 이끄는대로 묘향산구경을 떠났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을 방문한 최덕신선생의 소행을 민족을 위하고 통일을 위하려는것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를 몸소 만나주시였다.

그날은 주체67(1978)년 11월 18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큰절을 올리려는 그의 손을 따뜻이 잡으시고 《나는 최덕신선생이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조국을 찾아온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응접실로 이끄시였다.

그에게 자리를 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선생을 만나고보니 의산 최동오선생이 생각난다고,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선생의 모습이 최동오선생을 꼭 닮았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생은 처음 만나지만 최동오선생은 잘 안다고 하시면서 지나온 과거사를 들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0여년전 화전에서 있었던 일들과 최동오선생이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서 일할 때 자주 만나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최동오선생은 건강하였는데 1963년 9월에 뜻밖에도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가슴아파하시였다.

최덕신은 자신의 욕된 과거로 하여 민족앞에 얼굴을 들수 없고 선친을 위해주신 주석님을 대할 면목이 없다고 말씀올리였다.

수령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박정희가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다음 선생이 그밑에서 일하였지만 그때 형편에서는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선생이 지난날의 일들을 다 씻어버리고 조국통일을 위해 일하여보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가진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입니다. 나라가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 기로에 놓인 이때에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충격이 컸다.

속죄하기조차 너무나도 불미스러운 과거를 백지화하시고 함께 손잡고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한길을 가자고 하시는

그이의 믿음은 정녕 너무나도 큰것이였다.

최덕신선생은 위대한 수령님께 여생을 조국통일사업에 헌신하며 미국에 돌아가서도 재미동포들과 미국사람들에게 공화국의 정당한 조국통일정책과 민족자주적립장에 대하여 널리 알리고 납득시키겠다고 말씀드렸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오늘 최동오선생을 만난 심정에서 선생에게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우리 당의 립장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앞으로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투쟁해나가자고, 나는 선생이 미국에 돌아가서도 자기 조국을 굳게 믿고 어떻게 하나 우리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껏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공화국을 방문한 이후부터 최덕신선생은 해외교포들을 통일위업에로 추동하는 사업에 매진하였다.

그것은 그의 한생에서 가장 보람있는 일이였다.

통일을 위한 최덕신선생의 애국활동이 날이 갈에 따라 활발해지자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반통일세력의 음모와 모략도 우심해져갔다. 그의 주변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상서롭지 못한 일들이 자주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두고 깊이 마음쓰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을 방문하는 그를 만나실적마다 해외에서 신변을 조심할데 대하여 당부를 거듭하시였다.

그리고 그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전문병원에서 치료도 받게 해주시였으며 부인에게 오랜 기간 고치지 못한 병이 있다는것을 아시고는 유능한 의료진을 붙여 수술까지 받게 해주시였다.

최덕신선생이 일흔번째 생일을 맞게 되였을 때에는 해외망명객의 처지를 헤아리시고 몸소 생일상까지 차려주기도 하시였다.

언젠가는 조국에 온 그를 만나시여 병상태에 대하여 몹시 걱정하시면서 조국에 와서 사는것이 어떤가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이미전부터 조국에 와서 살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던 최덕신선생이였다.

이곳에는 그가 태줄을 묻은 고향이 있고 고향에는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지들이 아직도 살아있어 더욱더 그러한 생각이 강렬하였었다.

그러나 선뜻 자기의 절절한 희망을 표현할수 없었던 그였다.

《주석님, 이 불민한 사람을 받아주실수 있다면 기꺼이 조국에 와 살겠습니다.》

공화국에로의 영주는 최덕신선생의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였다.

공화국에서는 그에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의 크나큰

중임을 맡겨주었다.

그 믿음을 안고 그는 통일위업에 온 힘을 다 바쳤다.

그러던 최덕신선생이 그만 불치의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병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할수 있는 온갖 치료대책을 다 세워주시였다.

그러다가 그가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애석함을 금치 못해하시며 몸소 화환을 보내시고 일군들에게 장례를 잘 치르고 묘지는 애국렬사릉에 쓰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그리하여 그는 선친과 함께 애국렬사릉에 묻히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를 원형으로 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최현덕편)을 세상에 내놓도록 하시여 그의 삶이 민족과 더불어 빛나도록 해주시였다.

돌이켜보면 남조선과 해외에서 방황하던 최덕신선생이 공화국에 삶의 닻을 내리고 살아온 기간은 불과 3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조국의 품, 민족의 은인들의 품에 안겼기에 **김일성**훈장수훈자, 조국통일상수상자, 애국지사로 값높은 삶의 흔적을 남길수 있었다.

최덕신선생에게 베풀어지던 절세의 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은 그의 부인 류미영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최덕신선생이 세상을 떠난지 얼마후 류미영은 70나이를 눈앞에 두고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고문의 중임을 말게 되였다.

오랜 세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에게 남다른 재능이나 뛰여난 기질, 왕성한 정열이 있어서가 아니였다.

남편이 이루지 못한 뜻을 변함없이 이어가기를 바라시는 절세의 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는 그후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위원, 천도교청우당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지니고 통일애국의 길을 꿋꿋이 걸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0(2001)년 2월 류미영의 여든번째 생일을 맞으며 생일상을 보내주시였으며 주체97(2008)년 8월에는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단장으로 서울에 나가 그립던 자식들도 만나보도록 해주시였다.

남편의 뒤를 이어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이바지한 공로로 하여 **김일성**훈장과 **김정일**훈장, 조국통일상 그리고 많은 국가표창을 수여받은 류미영은 주체105(2016)년 11월 23일 95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11월 24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2019년 7월 6일 남조선에서 살고있던 최덕신선생의 아들 최

인국이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 평양에 도착하였다.

그는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자기 가정에 베풀어주신 대해같은 사랑과 배려는 할아버지대에서부터 시작되였으며 오늘까지 3대째 변함없이 이어져오고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부모님들의 간곡한 유지대로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령도를 받들어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여생을 다 바치겠다고 자기 결심을 피력하였다.

한 동포음악가의 행운

주체79(1990)년 10월 평양에서는 45년간에 걸치는 우리 민족의 분렬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의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범민족통일음악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 음악회의 발기자는 재도이췰란드동포음악가 윤이상선생이였다.

그가 음악회의 발기자로서 병마에 시달리는 몸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음악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헌신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때문이였다.

1918년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여난 그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였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과 일본의 오사까, 도꾜로 방황하면서 음악공부를 한 그는 해방후에는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음악교수로 활동하다가 1956년에는 자신의 미흡한 음악지식에 한탄하면서 늦은감이 있지만 서유럽으로 류학의 길을 떠났다.

2년간 프랑스와 도이췰란드에서 음악공부를 착실히 한 그는 점차 음악계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였으며 몇해후에는

세계적인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였다.

그때 그는 자기의 작품들에 민족성을 조금이나마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1963년에 민족고유의 선률을 작곡할 결심을 품고 공화국을 방문하여 평안남도 강서군에 있는 고구려벽화무덤을 돌아보았다.

벽화에 그려진 고구려사람들의 활달하고 개방적이며 진취적인 기상에서 그는 민족의 넋을 보았으며 아름다운 민족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것이 빌미가 되여 그는 고초를 겪게 되였다.

1967년 남조선에서는 박정희집권후 두번째로 되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였다.

사기와 협잡으로 치르어진 선거를 야당은 물론 여당의 《국회》의원들까지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혼란된 정국은 박정희《정권》을 수세에 몰아넣었다.

그리하여 민심을 딴데로 돌리기 위한 상투적수법이 적용되였다.

남조선중앙정보부(당시)가 씨나리오를 작성하고 전면적인 실행에 달라붙었다.

그것이 바로 서부도이췰란드와 프랑스 등지의 교수, 예술가, 의사, 공무원을 비롯한 각이한 직업의 해외동포들에게 북과 접촉을 갖고 《간첩행위》를 했다는 허위날조된 협의를

들씌우고 랍치해다가 공판놀음을 벌려놓고 사형과 무기징역을 들씌운 이른바 《동부베를린사건》이였다.

이 사건의 희생물이 된 윤이상부부는 1967년 6월 남조선에 랍치되여갔으며 무기징역을 언도받게 되였다.

하지만 세계의 량심있는 문화인들의 석방운동으로 하여 그는 2년만에 출옥하여 서부도이췰란드로 돌아왔다.

그때로부터 그의 창작활동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창작초기 예술지상주의관념에서 순수 예술성만을 추구하면서 고대의 력사와 문화, 민속전통 같은 주제에만 몰두하던 창작관념을 버리고 현실을 반영한 작품들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그는 1974년 8월 김대중랍치사건을 계기로 가진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자신의 랍치경위와 고문에 대한 사실을 폭로하였으며 세계의 평화운동가들이 참가한 회의에서 남조선에서 죄없이 감옥에 들어가 악형을 당하고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국제적인 련대를 호소하는 강연도 하였다. 또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해외동포들의 련합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통일애국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이 나날 그는 공화국의 통일방안들에 접하면서 그에 공감하게 되였으며 공화국을 방문할 결심을 품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70년대가 저물어가던 1979년 가을 공화국을 방문

하게 되였다.

주체68(1979)년 10월 11일.

조국을 방문하고있던 윤이상선생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16년전 강서고분벽화참관차로 공화국을 처음 방문하여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5.1절경축행사장에서 멀리에서나마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뵈옵게 된 때로부터 그이를 만나뵙고 싶은 소원을 가슴속깊이 소중히 간직하고있던 그였다.

그런데 일구월심 바라던 소원을 이루게 된것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그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를 애국지사로 불러주시였다.

애국지사!

이 고귀한 칭호에는 해외에 사는 조선사람으로서 분렬된 조국의 아픔을 한시도 잊지 말고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바라시는 그이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있었다.

서부도이칠란드로 돌아간 윤이상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방안들을 동포들속에 널리 선전하는 한편 음악가로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참답게 이바지하는 음악작품창작활동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갔다.

그의 불타는 열정, 뜨거운 애국의 넋은 그대로 선률에 옮

겨졌으며 분렬된 조국의 현실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주제로 한 음악작품들을 낳게 하였다.

그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가 1981년에 창작한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였다.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는 전두환역도가 광주땅을 피바다로 만든데 분격한 그의 량심의 웨침이였다.

1984년 9월 윤이상선생을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는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술영화를 만들면 좋은 영화가 될것이고 해외동포들이 보면 다 눈물을 흘릴것이라고 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생의 재능으로 보아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애국적투쟁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곡을 더 많이 창작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해마다 여름 한철에는 조국에 와서 3～4개월씩 휴식도 하면서 조국의 예술인들과 만나 그들의 예술활동도 고무해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큰 신임이고 은정이였다.

돌이켜보면 그는 음악계에서 명성도 얻었고 음악축전들에서 최고상, 명예칭호들과 훈장들도 수많이 받았다.

하지만 그 모든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값높은 평가와 믿음에 어찌 비길수 있겠는가.

몸은 비록 유럽땅에 있어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조국의 통일을 위해 재능과 열정을 힘껏 바쳐가리라. 이렇게 결심한 그는 서울올림픽에 음악가로 협조해줄데 대한 남조선당국의 청탁을 단호히 거부하고 량심의 곡, 민족에게 바치는 곡을 창작하는데 달라붙었다.

60여일간의 고심어린 사색끝에 교성곡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를 완성하였다.

교성곡에는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뜨거운 열망과 그것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강렬한 의지가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되여있었다.

그는 작품이 완성되자 곧 조국에 왔다.

자신의 조국애와 민족애가 담겨져있고 통일을 위해 살려는 의지가 강하게 굽이치고있는 이 새 교성곡의 첫 연주회를 꼭 조국에서 진행하고싶었던것이였다.

그가 교성곡을 조국에 가지고 온것을 두고 누구보다 기뻐하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주체76(1987)년 10월 5일 만수대예술극장에 나오시여 윤이상과 함께 교성곡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의 첫 공연을 친히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사도 좋고 곡도 좋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아주 훌륭한 노래

라고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를 만나신 석상에서 작품을 오페라식으로 아주 잘 썼다고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윤이상은 작곡가의 창작적의도와 작품의 특성을 그처럼 속속들이 헤아려보시는 그이의 빛나는 예지에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사실 그가 이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은 합창형식으로 된 교성곡이라는 그릇에 어떻게 하면 오페라식으로 심오하고 폭넓은 음악형식을 담겠는가를 깊이 탐구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날 저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내가 윤이상선생을 아껴야 한다고 하는것은 음악계에서 그런 재간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드물기때문이라고, 그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산이고 재간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오로지 민족과 통일을 위해 여생을 바칠 애국애족의 열망을 터쳐놓은 자기의 작품을 그렇듯 높이 평가해주시는 수령님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 윤이상은 뜨거운것을 삼켰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실려 그는 민족의 통일을 위한 참된 음악활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그러한 가운데 1990년 8.15를 계기로 판문점에서는 국토가 량단되여 45년만에 처음으로 북과 해외의 각계각층 대표

들과 남측추진본부의 위임을 받은 남측대표의 참가하에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력사적인 범민족대회가 진행되였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윤이상선생은 예술분야에서 먼저 통일을 이룩할 취지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회를 진행할것을 발기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를 적극 지지해주시면서 음악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친히 음악회를 《범민족통일음악회》로 명명해주시였다.

윤이상선생은 범민족통일음악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되여 음악회준비사업을 추진시켜나갔다.

음악회에는 평양음악단과 서울전통음악연주단 그리고 미국, 카나다, 도이췰란드, 쏘련, 중국, 일본 등지에서 온 수많은 해외동포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그때 윤이상은 병마에 시달리는 속에서도 개막식에 참석하여 대회참가자들에게 노래와 통일의 힘찬 웨침으로 7천만민족에게 다시한번 통일을 호소하고 우리 민족의 단결과 세계평화에 기여할것을 온 세계에 행동으로 표시할것을 호소하였으며 페막식때는 페막연설에 이어 음악회참가자전원과 함께 평양의 중심거리를 누비며 시위행진을 벌리였다.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범민족통일음악회는 조선민족의 우수한 음악예술전통을 훌륭히 계승발전시킬뿐 아니라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인 문화의 공통성이 점차 사멸되여가는것을 방지하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범민족통일음악회가 성과적으로 끝난 다음날인 주체79(1990)년 10월 24일 윤이상선생과 부인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윤이상선생이 이번에 범민족통일음악회를 준비하여 진행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였다고, 평양에서 진행된 범민족통일음악회는 우리 조국력사에 뜻깊은 장을 기록한 민족의 축전이였다고 하시면서 《선생은 범민족통일음악회의 성과를 통하여 조국통일위업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렸습니다.》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다음해인 1991년부터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의장의 중임을 맡게 된 윤이상선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음악작품창작과 함께 조국통일운동에 자기의 심혼을 다 바치였다.

그의 애국활동을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조국통일상수상자대렬에 세워주시고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도록 하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의 건강에 늘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보약까지 보내주시였으며 그들부부가 조국에 와서 마음편히 생활할수 있도록 대동강반의 경치좋은 곳에 고급주택도 마련해주시였다. 그리고 그의 일흔다섯번째 생일을 맞으며 평양의 중

심부에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는 윤이상음악당을 새로 건립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인 주체73(1994)년의 어느 봄날에도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윤이상을 풍치수려하고 유서깊은 묘향산에서 만나주시였다.

이날 윤이상선생은 변함없이 자기를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는 그이의 은정에 목메여 허물없이 자기가 소원한 바를 말씀드렸다.

그는 자기에게 불행만을 덧씌워준 이남땅에 침을 뱉고 돌아선터여서 갈 생각은 없었지만 나이가 들고보니 선친의 뼈가 묻힌 고향 통영이 못견디게 그립다고, 그래서 올해중에 고향을 찾아가 부모님들의 산소를 찾고 광주의 망월동에서 대연주회를 벌려 돌아간 영령들을 위로하고싶은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늘 《통일은 못보아도 한번의 문화제로라도 통일한 마당을 이룰수 있는 자리를 보고 죽게 된다면 여한이 없을 것같다.》고 하던 그의 속깊은 심중에서 우러나온 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나는 그것을 지지한다, 선생은 음악가인것만큼 음악으로 통일성업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러니 갈바에는 평양예술인들도 함께 데리고 가서 춘향의 고향인 남원에서 《춘향전》대연주회를 크게 벌리는것도 좋을것이라고 격려해주시였다.

돌이켜보면 윤이상선생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남다른

사랑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함께 어리여있었다.

1982년 평양에서 처음으로 윤이상음악회가 진행될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 앞서 친히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를 록음으로 들어주시고 특색있는 민족적선률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음악속에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바라는 작곡가의 사상감정이 잘 반영되여있다고 하시면서 음악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관록있는 국립교향악단에 그 작품연주를 맡기시고 독특한 곡상요구에 따르는 수십종의 타악기를 일식으로 마련하도록 긴급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고는 공연을 TV로 방영하고 이름있는 평론가들의 관평도 신문에 내도록 해주시였다.

민족적정서와 색채가 짙은 그의 음악을 발굴소개하는 사업에도 힘을 넣도록 하신 장군님께서는 그자신의 기억에서조차 희미해진 초기의 음악들을 찾아주시여 제2차 윤이상음악회에서 다시 빛을 보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가지고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만들 때에도 그를 영화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이렇듯 평생을 두고도 갚지 못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을 받아안은 윤이상선생이였기에 조국과 민족

을 위한 의로운 활동에 심신을 깡그리 바칠수 있었다.

그는 1994년에 교향시곡 《화염속의 천사》를 작곡하였다.

그때 그는 고질병으로 하여 이제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것이라는것을 예감하였다.

그는 자신의 량심을 오선지에 기록하는 이 일을 서둘렀다.

앞으로 얼마만큼 힘이 계속될지 모르기에 그는 정신적괴로움속에서 이 곡을 완성시켰다.

교향시곡 《화염속의 천사》는 1991년 봄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스스로 제 몸에 불을 달고 목숨을 던진 20여명의 젊은이들을 형상한 작품이였다.

이 교향시곡은 그의 생의 마지막작품으로 되였다.

1995년 11월 4일 그는 이국의 병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윤이상선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몹시 가슴아파하시며 신문들에 그의 부고를 크게 내게 하시고 거기에 윤이상선생의 생애는 조국통일을 위한 한길을 꿋꿋이 걸어온 한생이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한생이였다는것을 강조하게 하시였다.

윤이상선생을 추모하는 행사를 크게 조직하도록 하시고 화환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공적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며 윤이상음악당에 윤이상박물관을 꾸리고 그의 반신상도 세우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푸시였다.

또한 그의 미망인인 리수자가 이국땅에서 적적하게 지내고 있는데 대해 걱정하시며 조국에 와서 장기간 건강을 돌볼데 대한 은정을 돌려주시고 일흔번째 생일때에는 생일상도 차려주도록 하시였다.

오늘도 윤이상음악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윤이상선생에게 베풀어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전하며 평양의 중심거리에 우뚝 서있다.

《보천보할머니》가 받아안은 은정

주체81(1992)년 4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80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만수축원의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조국에 온 해외동포들중에는 미국에서 살고있는 최정렬녀성도 있었다.

그의 고향은 량강도 혜산이였다.

해방전 혜산보통공업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리화녀자중학교를 다니였으며 일본에 가서 법률과 미술공부를 한 그는 해방후에는 량강도에서 녀맹사업을 하다가 1949년부터 함흥시교육부 시학으로까지 사업하였다.

그러다가 조국해방전쟁시기인 1950년말 미국의 원자탄투하설에 겁을 먹고 남으로 나갔다가 다시 1970년대초 미국에 이민으로 건너갔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그는 자기 일생을 돌이켜보고 늦게나마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였다.

최정렬녀성을 비롯한 재미동포선각자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실머리를 공화국동포들과 해외동포들간의 대화, 우선 그리스도교신자들간의 대화에서 찾고 각방으로 노력함으로써 두차례에 걸쳐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교신

자간의 대화를 실현시켰다.

또한 최정렬녀성은 재미애국녀성동우협의회 회장으로서 1987년 도꾜에서 열린 민족통일을 위한 범해외동포학자들의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공화국과의 대화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아메리카지역에 사는 동포들의 공화국방문이 가능하게 되여 수천명의 동포들이 공화국을 방문하여 가족, 친척들과 상봉하였으며 공화국을 바로 알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1970년대에는 소수 인사들의 국한된 방문이였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 사업이 보다 활발히 벌어져 1987년에는 공화국방문과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사업을 전담추진할수 있는 조국통일북아메리카주협회를 내오기까지 하였다.

최정렬녀성은 이 단체의 고문으로 사업하면서 여러 해외교포조직들과 련계하여 범민족대회준비위원회활동도 본격적으로 벌리였으며 동포대중속에서 민족적화해와 통일운동의 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는데서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이 나날 그는 조국을 방문하였다.

그가 조국방문의 용단을 내리기까지에는 고충이 컸다.

비록 본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버리고 떠났던 그 품을 무슨 체면에 찾아간단 말인가, 북에서 과연 나를 용납할것인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렇지만 누이, 동생하며 가까이 지내던 최덕신과 같이 군

부의 장성으로 반북대결에 앞장섰던 사람까지도 과거를 뉘우치며 인생전환을 하고 민족의 령수께서 그런 죄많은 사람까지 따뜻이 품어주시는것을 보고는 몹시 흥분하였다.

언제든지 달려가면 과거불문하고 따뜻이 포옹해줄 어버이품, 상처입은 마음을 풀어헤치며 안길수 있는 조국의 품을 보았기때문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온갖 잡생각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조국방문의 길에 올랐다.

조국의 동포들은 그를 따뜻한 미소로 친절하게 맞이해주었다.

모두가 눈물겹도록 고맙고 감사했다.

조국방문은 방황하던 인생이 뿌리를 찾아 새 생명을 받아안는 새 출발의 계기였다.

조국방문을 통하여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푸시는 인덕정치, 광폭정치의 실상을 폐부로 절감하였다.

조국의 운명이 위기에 처하였던 준엄한 시기에 자기 한몸만을 생각하면서 주저없이 떠나갔던 불민한 이 몸을 책망할 대신 통일을 위한 자그마한 소행도 크게 여기며 환대해주는 어머니조국앞에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어머니조국은 아무런 차별도 없이 자기의 형제들과 조카들을 보살펴주고 키워주었으며 사회의 역군으로 내세워주었다.

서방출판물들과 자본주의사회에서 떠돌아가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서뿌르게 《사람 못살 곳》으로 단정했던 공화국이였다. 하지만 그가 본 북녘사회는 참된 삶을 누리려는 인간이 한생을 값높이 그리고 빛나게 살수 있는 사회였다.

그와 함께 고향방문차로 공화국을 찾았던 동포들모두가 수십년만에 보는 공화국의 현실앞에서 찬탄을 련발했다.

조국방문은 그로 하여금 귀로 듣고 이러니저러니할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신념대로 살아야겠다는 인생철리를 마음속깊이 체득하게 하였다.

그는 여러 차례의 공화국방문을 통하여 이것을 더욱더 절감하였으며 민족적비극을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였다.

그는 1989년에 진행된 해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촉진대회와 1990년 8월 15일에 진행된 제1차 범민족대회를 비롯한 여러 통일회합들에 참가하여 민족의 통일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1990년 12월 미국의 로스안젤스에서는 미국의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동포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을 망라하는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재미본부가 결성되였다.

범민련 재미본부 고문으로 선출된 최정렬녀성은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밑에 아메리카주지역에서 통일운동에 헌신하였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운것은 주체79(1990)년 4월

4.15경축 재미조선인축하단으로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4월 16일 그들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재미조선인축하단 성원으로 온 녀사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자료를 많이 가져온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라고 치하하시면서 녀사가 가져온 박달동무가 체포되여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과 그가 감옥에서 쓴 혈서 같은 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있었던 사실들을 고증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된다고 하시였다.

최정렬녀성은 감사하기 그지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가 가져온 단편적인 사적자료들을 그렇듯 귀중한 보물로 받아들이실줄은 미처 생각지 못하였었다. 아득히 흘러간 옛시절 보천보전투의 목격자로서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혁명투쟁과 인연을 맺게 되여 항일빨찌산투쟁과 관련한 사료라면 크든작든 모아오는것을 백성의 도리로 여겨온 그였다. 그런데 그것이 내 나라, 내 조국의 근본을 지키는 중대한 사업에 기여하게 될줄은 미처 몰랐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면 늘 보천보전투이야기부터 펼쳐놓는다 하여 《보천보할머니》로 불리워온 그는 그것이 얼마나 긍지로운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듯싶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비롯한 동포들에게 해마다 한번씩 조국에 오기 바란다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해마다 조국에 오면 오늘처럼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수

있을것이라고 정겹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이 말씀은 최정렬녀성에게 있어서 온 세상을 다 안겨주시는 말씀이였다.

참된 어머니품을 떠나 남조선에서, 미국에서 인생의 후반생을 살아오며 사랑과 정에 주린 그였다.

그런데 온 세상이 우러르며 경모해마지 않는 절세의 위인께서 한갖 교포사회의 한 늙은이에 지나지 않는 자기를 영광의 절정에 세워주시였으니 이보다 더한 행운, 이보다 값진 인생총화가 어디에 있으랴.

곡절많은 인생길에서 풍상고초를 많이 겪어본 사람일수록 민족의 령도자를 잘 모시는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행운인가를 절감하게 되는것이다.

이날 최정렬은 그토록 숭앙해마지 않는 절세의 위인을 만나뵙고 삶의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가슴뿌듯이 절감하였다.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난 1992년 4월 최정렬은 또다시 감동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였다.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한 최정렬녀성은 자기의 여든번째 생일을 맞으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생일상을 받아안게 된것이였다.

친척들과 조국의 일군들, 해외교포들이 참가한 가운데 축하를 받으며 생일상앞에 마주앉은 그는 뜨거운 눈물을 하염

없이 흘리였다.

한걸음을 잘못 디딘탓에 수십년세월을 방황하였고 애국의 길에 들어서서도 민족을 위해 떳떳이 자부할만한 일을 해놓은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였다.

이런 그였기에 생일상을 마주하고 오래동안 눈물을 거둘 줄 몰랐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야 눈물을 거둔 그는 갖가지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 놓인 생일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자기앞에 놓인 생일상이 단순한 생일상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거기에는 한 인간의 재생을 축하해주시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서 여생을 계속 꽃피워나가기를 바라시는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이 깃들어있다고 생각하였다.

최정렬녀성은 끓어오르는 격정을 가까스로 누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뇌이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여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깡그리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에 보답하리라 마음속결의를 다지였다.

최정렬녀성이 인생의 황혼기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부어주신 삶의 자양분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재중동포일군에게 베푸신 사랑

1998년 8월 조국에서 진행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온 해외동포들중에는 양영동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도 있었다.

그들은 삼복철 무더위가 한창이던 8월 13일 렬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숙소에 려장을 풀기 바쁘게 찾아온 조국의 한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번에 평양에 온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과 부의장에게 환갑상을 배려해주시였다는 소식을 전해주는것이였다.

의장과 부의장은 어리둥절하여 서로의 얼굴만 마주볼뿐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때로 말하면 조국이 전대미문의 엄청난 시련을 겪고있던 때였다. 안팎으로 조여드는 제국주의의 봉쇄와 위협, 전례없는 자연재해 등으로 말미암아 공장들은 숨이 죽고 가정들에 불빛마저 꺼지던 처절한 고난의 시기였다.

조국인민들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있는 때에 맞게 되는 환갑이여서 가족들이 상을 차리겠다고 하는것을 극히 만류하였

던 의장과 부의장이였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헤아려보시고 조국에 온 그들에게 환갑상을 차려주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신것이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을 그대로 받아안는것은 너무나도 죄송하고 렴치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찾아온 일군에게 통사정으로 그렇게는 할수 없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 자기들의 심정을 다시 말씀드려줄것을 간청하였다.

그러자 그 일군은 그 생각은 충분히 리해되지만 그렇게 하면 장군님께서 섭섭해하신다고,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것이 전사의 도리라고 그들을 나무랐다.

그리하여 그들은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환갑상을 고마움과 죄송한 마음을 안고 받아안게 되였다.

만수대예술극장의 연회장에서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에게 수여되는 높은 국가표창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환갑상과 높은 국가수훈을 전달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을 안고 의식에 참가하였다.

특히 젊은 시절부터 오래동안 재중조선공민사업을 하였고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결성된 이후부터는 총련합회의 책임적

인 지위에서 사업해온 양영동의장에게 있어서 이날 받아안은 환갑상과 높은 국가수훈은 그에게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평가와 믿음의 표시였으며 최상의 축복이였다.

돌이켜보면 그의 한생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서 흘러온 한생이였다.

할빈사범대학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한 양영동의장은 《대단한 배치지》를 마다하고 1964년부터 흑룡강성 가목사시의 목재종합가공공장에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떼였다.

로동생활을 하면서 기사자격을 획득하고 많은 창안과 기술혁신으로 혁신자로 손꼽히게 되였던 양영동의장은 어느날 국적등록사업이 제기되자 서슴없이 해외조선공민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후 공민학습반에 망라되여 활동하면서 학습반의 책임자로 선출된 양영동의장은 동포대중속에 들어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민활동을 벌리는 과정에 자기자신도 정신육체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던 그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접하고 조선사람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처음으로 간직하게 된것은 조국을 방문한 때부터였다.

1973년 9월 재중동포들속에서 처음으로 되는 조국방문단이 조직되여 조국을 방문하게 되였다. 양영동의장도 이 방문단에 선출되여 고국을 뜬지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조국땅을

밟게 되였다.

해외동포들에 대하여 언제나 깊은 관심을 두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는 재중동포들모두에게 새옷을 배려해주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버이사랑이 깃든 새옷을 떨쳐입고 조국방문의 길에 올랐다.

평양에 도착한 그들은 조국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지난 전쟁시기 미군의 무차별폭격만행으로 벽돌 한장 성한것 없었던 페허우에서 100년이 걸려도 일떠설수 없다던 제국주의자들의 예언을 뒤엎고 불과 몇년만에 전쟁의 상처를 완전히 가시고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조국의 도시들과 다른 나라들에서는 옹근 한세기 또는 몇세기에 걸쳐 올라선 공업화의 그 높은 언덕을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치달아오른 조국의 눈부신 비약은 그들의 가슴가슴을 조선사람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한껏 부풀게 하였다.

천하절승 금강산을 탐승하고있던 9월 어느날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중동포조국방문단의 일정을 손수 하나하나 짜주시며 각별한 관심을 돌려주시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들은 모두가 눈물을 흘리였다.

그토록 나라일에 바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위해 크게 한 일도 없는 자기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주시고 그들의 일정에 대해서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였다니 어찌 감격의 눈물,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서 그들은 조국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갔다.

조국방문의 나날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의 영예감을 깊이 간직한 양영동의장은 한생을 애국사업에 바쳐갈 결의를 안고 분투하였다.

1990년대초에 들어서면서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를 결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되자 그는 공민조직사업에 전념하였다.

1991년 3월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가 결성된 후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부의장으로 선출되여 심양에서 일하게 된 그는 집을 구할수가 없어 부득불 가족들과 헤여져 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당시는 본부청사가 낡은 단층집이였고 방은 3칸밖에 되지 않아 사무실과 침실, 대기실뿐이였다.

침실이라야 바닥에 삿자리를 깔고 딱딱한 나무침대를 서너개 들여놓은데 불과하였다. 게다가 식사준비와 빨래 같은것은 전부 자체로 해야 하는 사정은 50대에 이른 그에게 적지 않은 불편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어쩌다 아버지가 보고싶어 먼곳에서 아들애가 모처럼 찾아와도 그애를 데리고 식당에 한번 나가지 못했고 잠도 비좁은 자기 침대에서 재워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타발도 하지 않고 낡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그마저 고장나면 신발바닥이 닳도록 걸으면서

동포들을 찾아다니며 조직에 묶어세우고 교양하는 사업을 벌려나갔다.

본부의장의 중임을 지닌 후에도 그의 드팀없는 애국신조와 검박하고 소탈한 생활방식에서는 전혀 달라진것이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소행을 귀중히 여기시면서 주체81(1992)년 4월과 주체82(1993)년 8월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위대한 수령님앞에 내세워주시고 기념사진도 찍도록 영광을 안겨주시였으며 그를 비롯한 일부 일군들이 집이 없어 여러해동안 합숙생활을 하면서 공민사업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서는 빨리 집을 이사하고 안착되여 사업할수 있도록 은정깊은 사랑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그에게 은정어린 환갑상까지 안겨주신것이였다.

이날 양영동의장이 답사를 하였다.

《여러분, 오늘의 이 꿈같은 현실앞에서 저는 위대한 장군님께 무슨 말씀을 올려야 한단 말입니까. …

위대한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국살이의 50여년간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오늘 한 일도 없는 저를 조국에 불러 이같이 분에 넘친 환갑상을 받도록 해주셨으니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한단 말입니까. 정말 우리의 위대하신 장군님같으신 자애로운 인민의 수령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

그와 같이 생일상을 받은 부의장도 목이 메여 흐느끼였다.

그들은 하늘땅이 열백번 변하고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와도 위대한 장군님만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그 한길에서 영원히 충성다할것을 마음다지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양영동의장을 영예의 **김일성**훈장수훈자로,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표창도 안겨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의 품속에서 양영동의장은 근 20년간이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으로, 그후에는 명예의장으로 애국사업에 헌신할수 있었다.

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필　자	김 영 일
장　정	채 대 성
교　정	김 철 준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1(2022)년 2월 19일
발　행	주체111(2022)년 2월 23일

ㄱ―1527ㄷ

ISBN 978-9946-31-154-8

ISBN 978-9946-414-83-6